

# MAXIM

KOREA

## 2011 MAXIM RPM AWARD

올해를 달군  
최고의 자동차는?

**MOST  
WANTED**  
(올코 흥대정태)의  
상큼 여경 사희

**GAME**  
리그 오브 레전드  
기울을 불사를 신작 게임 3종

**WORLD'S  
HOTTEST  
JESSICA  
GOMES**

2011년 11월호  
정가 5,400원

꼭 이 샴피에 물을 주지 마세요.

**SWEET IDOL**  
에이프릴키스

**GEAR**  
사적하는 남자를 위한 시계  
핀타스틱 3D TV, 1등은 누구?  
MAXIM이 고안한 드림 스마트폰

**SEX**  
많이 하는 법

**MAXIM  
PARTY #5**

스티브 잭스 / 원자현  
아만다 사이프리트 / 고영욱

www.maximkorea.net

9 | 772233 | 427008  
ISSN 2233-4270

# MAXIM FEATURES

## NOVEMBER 2011

### 66 LOVE

#### 섹스 많이 하는 법

12월 24일이 채 100일도 남지 않았다. 지금부터 부지런히 준비하면 당신의 크리스마스도 메리할 거야.

### 70 에이프틸리스

내송 따윈 없는 당찬 아이돌. 대체 4월의 키스는 어떤 느낌이나구?

### 74 MAXIM 2011 RPM AWARD

남자의 드림카에서 학자급 대충을 갓아줄 최고의 차까지. MAXIM이 선정한 최고의 차는?

### 82 ICON:

#### 스티브 잡스

교황이 죽어도 이렇진 않았다. 컴퓨터 회사 사장의 죽음에 전 세계가 슬퍼하는 이유를 알고 싶나?

### 88 REAL GUYS TOY: RC카

RC카로 스파크를 끌 수 있다고? 의심 많은 우리가 해봤다. MAXIM RC카까지 직접 제작해세

### 102 성공률 100% 황천길 가는 법

이왕 죽을 거라면 똑똑하고, 확실하고, 간편한 방법을 선택할 것 돌아오면 번거롭잖아?

### 114 ALLAH'S MAGIC STICK: RPG-7

알라신이 이슬람 땅에게 선물한 가성비 최강 로켓 포! 매직봉이라는 이름만큼 자극적인 녀석이다

### 118 이븐느

#### 스트라홍보스키

〈킬러 엘리트〉, 미드 〈착〉을 빛낸 글밭 미녀가 격한 유머 감각을 선보인다.



# 92

## 제시카 고메즈

이젠 우리랑도  
리듬을 맞춰요~!





## 106 사희

(플코) 홍대정태의  
말괄량이 여경찰 사희가  
제복을 벗고 성숙미를  
발신한다. (민중의  
지팡이를, 대민 서비스는  
이런 거야, 듣고 있나?)



### 14 CIRCUS MAXIMUS

김정호도 울고 갈 대한민국 미인전도  
미친 여자 코사는 범. 백소보다 쉬운  
타이어 교체법, 드림 스마트론,  
동네에서 땅 먹는 화려한 발놀림  
프리스타일 풋볼, 현빈, 송하연편,  
세상에 이런 양어 연구개!

### 26 SMOKE&DRINK

여자보다 맛있는 맥주 이야기.  
고양이의 역할, 이달의 술,  
던탈... 200원의 자주, 낙타들이  
몰려온다

### 36 RATED

이만다 사이프리트, 로맨틱 코미디.  
에디 머피와 벤 스틸러의 만남.  
가련한 솔로를 위한 엠. 쓸쓸한  
가을밤보다 더 잔인한 연애 리얼리티  
쇼, 여성 잡는 권잡은 공연 삼선

### 43 GAME

섹시 여전사 원자현(권혁희).  
(리그 오브 레전드) 충격 준비 완료.  
(월간 게이머즈)가 추천하는 신작  
게임 3종

### 52 STUFF

핀타스틱 3D TV, 남자를 위한 시계.  
추억의 카세트 테이프

### 62 MOTOR

길들일 것인가, 굴복할 것인가!  
DUCATI MONSTER 686,  
MAXIMI 마이가 독자들에게 뿌리는  
선물: 슬라기드&그레이드

### 126 STYLE

100프로 순결한 니트와 카디건, 해외  
쇼핑 달인의 영국 쇼핑물 이용 팁,  
나이키가 구현한 (Back to the future  
2), 그리고 가장 중요한.. 탈모방지제

### 131 THE MAXIM PARTY

가을 한가를 녹인 만큼 뜨거웠던  
MAXIM 파티

### 142 24 HOURS TO LIVE: 고영욱

제2의 전성기가 왔는데 죽어라  
한다니, 이게 작은 일이야!



# Got MAXIM?



경고 ©세 미안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앱스토어에서만 구입합니다. MAXIM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은 아니어도 내 가족, 이웃까지도 물리게 합니다. 아이폰/이패드용 MAXIM에는 중독성 물질인 불동영상, 미공개컷, 독한농담, 우수암컷, 때깔가게, 교미사실, 독장비행, 거친수컷, 패인게임, 총질캡질, 프로운동, 새만차관, 오도비이, 만취음료가 많이 들어있어서 국내 유료 아이폰/이패드 매가진 중 매출순위가 부동의 1위인가 봅니다.

# MAXIM

KOREA

편집장 이경비  
yj@maximkorea.net**EDITORIAL / 편집부**

수석에디터 차왕 고경희 koko@maximkorea.net  
 에디터 과정 우승민 sm@maximkorea.net  
 과정 김성현 psych@maximkorea.net  
 대리 김진욱 14@maximkorea.net  
 주임 김희성 alica@maximkorea.net  
 사원 박현늘리 nu@maximkorea.net  
 사원 송준근 jm@maximkorea.net  
 객원에디터 김재영 storm@maximkorea.net  
 아시스턴트 조다현 h@maximkorea.net

**DESIGN / 디자인**

디자이너 주임 정미연 berryms@maximkorea.net  
 주임 이은하 eastscu@maximkorea.net  
 사원 김보라 bor@maximkorea.net  
 일러스트레이터 사원 전영준 ziraops@maximkorea.net

**STRATEGIC PLANNING / 기획 전략**

과정 진우빈 woobin@maximkorea.net  
 과정 우승민 sm@maximkorea.net  
 주임 최인영 joy@maximkorea.net

**ADVERTISEMENT MARKETING / 광고 마케팅**

대리 임종국 j@maximkorea.net  
 대리 임진록 14@maximkorea.net  
 대리 홍승리 soulmate@maximkorea.net

**WEB SERVICE / 웹**

탈탈 사장님 orisis@town.com

**발행인/ 대표이사 이예성**

사진 ARC STUDIO www.arcstudio.co.kr

교필 신선경 kshin0111@daum.net

인쇄 · 활자배판 (주)리터라피레스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상저지리 90-1 인쇄인 이원순

유통 승주출판유통



발행처 (주)이미디어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00-30 MAXIM KOREA 빌딩 1~4층  
 TEL. 02-323-1982 / FAX. 02-6465-0903  
 2016년 11월호 정권 제1호 / 등록번호 2012년 2월 30일 / 등록번호 마보 라-00250

MAXIM KOREA는 세계 30개국에서 발행되는 글로벌 남성 월간지 MAXIM의 공식 한국어판입니다.  
 MAXIM 상표와 스토리라인 미국의 일리아더 그룹은 2008년 11월 29일부로 대한민국 (Y Media)에 독점적 상표사용권 부여하였습니다. Y Media는 대한민국 내에서 유일하게 라이선스 계약자인 MAXIM의 한국판권을 총괄, 배급, 판매하고 웹사이트는 오직 Y Media를 운영하며 독점적인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일리아더 그룹과 일리아더 위해 야생인 제임스 맥아무르 레티드미오와 로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MAXIM 본인 일리아더 그룹과 (주) Media에 귀속되므로 무단 임의 복제할 수 없습니다.



CHIEF EXECUTIVE OFFICER

JOSEPH MANGIONE

CHIEF REVENUE OFFICER

BEN MADDEN

CHIEF OPERATING OFFICER

DAVID SINCOX

**MAXIM INTERNATIONAL**

INTERNATIONAL LICENSING DIRECTOR

MARIANNA GAPANOVICH

INTERNATIONAL BUSINESS DEVELOPMENT

& DIGITAL ASSET MANAGER

MARIESA CONWAY

INTERNATIONAL FINANCE MANAGER

ERIK VANVOORHEES

DENNIS PUBLISHING INC.

415 Madison Avenue, 4th Floor, New York, NY 10017, United States of America

**MAXIM INTERNATIONAL EDITION / EDITOR IN CHIEF**

USA JOE LEVY

ESPAÑOL-US HISPANIC ANDRÉ FÉLIX DIAZ ROJO  
 Dominican Republic

UNITED KINGDOM BEN RAWORTH  
 Ireland, Australia, New Zealand

FRANCE FRANÇOIS DE GUILLEBON  
 Belgium, Switzerland, Canada Québec

GERMANY MIKE BLEIBTREU  
 Austria, Lichtenstein, Switzerland

CZECH REPUBLIC PAVEL VONDRACEK  
 Slovakia

SERBIA LAZAR JOVANOVIC  
 Montenegro, Bosnia, Herzegovina, Frym

TURKEY KAN KUSTUTAN  
 Cyprus

ITALY CARLO CROCI

PORTUGAL PEDRO JAVALOYES

RUSSIA SASHA MALENKOV

ARGENTINA GERMAN PITTELLI

BRAZIL ROMARIO OLIVEIRA

BULGARIA HRISTO ZAPYREVA

GREECE GEORGE FOTINOPOULOS

INDIA VIVEK PAREEK

INDONESIA TITAN HARINDA

THAILAND SIRDET PETCHJAMROANSUK

UKRAINE SASHA MALENKOV

국가별 담당자 연락처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www.maximkorea.net

copyright©2011Dennis Publishing Inc.  
 MAXIM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ALPHA MEDIA GROUP Inc., the owner of the Dennis Publishing Inc. MAXIM is a monthly published by Dennis Publishing Inc. On Nov 21st 2009, Y Media Inc.(Korea) contracted exclusive license agreement of MAXIM magazine, a world famous men's magazine. Y Media Inc. is the sole MAXIM licensee in South Korea and has an exclusive license right to publish, distribute, and sell a monthly Korean-language MAXIM magazine. No party but Alpha Media Group Inc. and Y Media Inc. are permitted to use the MAXIM trademarks or the MAXIM logos in Korea.

광고 문의 070-4010-9041, 9043, 9046 구독 문의 02-323-1182  
 기타 문의 joy@maximkorea.net twitter.com/maximkorea  
 | www.maximkorea.net |

From SEIKO WATCH CORPORATION  
www.albawatch.co.kr

ALBA  
POSITIVE & SMART



totally timeless trend...

Let it just be brilliant





## HYDRA ENERGETIC

이드라 에너제틱 멀티액션 8

아근, 음주, 흡연, 스트레스로  
지친 피부를 위한  
에너지이징 수분 로션

지친 피부의  
모든 증상을 한번에!

- 건조한 피부
- 아토피와 칙칙한 피부톤
- 거친 피부결
- 다크서클
- 피부 트러블



“

**8초 충전으로 24시간  
지속되는 피부 에너지!**

로레알파리 맨 엑스퍼트 전속모델, 영화 300의 주인공, 제라드 버틀러 Gerard Butler

”

L'ORÉAL  
PARIS  
men expert



# Letters



스마트폰으로  
시연 보내기



**☞** 욕지 것들이 너무 안이하오!



반갑습니다. MAXIM을 격하게 이끄는 마도로스오. 외국을 제 집 드나들 듯하는 유조선에서 즐락 열심히 일하느라 가을이 된 줄도 모르고 자랐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에는 한 달에 1번 정도 들르는데 그때마다 고백고백 MAXIM을 수취 받고 있습니다. MAXIM을 읽히는 침실이 언제 맑은지라 서점에 들를 때면 전방이 따로 없소. 다행히 이번 100호는 타이밍이 잘 맞아 쉽게 손에 넣었고, MAXIM 한정 티셔츠까지 2장까지 득템했으니 이런 미치 둘이 딱을 치다 하나씩 죽어도 모를 끝맛 같은 기분입니다. 이 모든 행운이 욕지 목자의 게으름 덕분인 것 같아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승리의 인공사를 첨부하오. 독자 시연에 실패 시 싫어준다면 기면 바다 위에서 X잡고 물구 나무 사기를 할 정도로 충성을 맹세하겠소.

**김기영, e-mail 시연**

**☞** 물구나무사기만으로도 놀라운데 X을 잡는 여유라니! 이것이야말로 수컷의 호연지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MAXIM 티셔츠의 인공사으로도 당신이 참치처럼 행동이 날뛸 MAXIM 열정 독자임을 증명하기에 충분합니다. 다행히도 바다 위에서 X잡고 물구나무 서기를 한 인공사를 보내주시면 1년 기부 구독권을 쥐어 드리겠습니다. 욕지의 독자 역시 발 빠른 움직임을 보였습니까만 뽀뽀와 티셔츠의 부조화로 눈물을 머금고 포기한 경우가 많았습니다(애들...). 다음부터는 MAXIM 독자의 다양한 체형을 배려해 다양한 사이즈의 티셔츠를 준비하겠습니다.

## 독자 시연 응모

- ▶우편 접수  
(121-841)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46-36 MAXIM KOREA 빌딩 4층 편집부
- ▶이메일 접수  
reader@maximkorea.net
- ▶QR 코드 접수: 독자 시연 페이지의 QR 코드를 스캔하고 댓글을 달아라.
- ▶방문 접수: 100호 특집을 준비하면서 내심 기대했던 방문 접수는 0명이었다. 당신이 클럽에서 레슬링할 피트너를 구하려고 날리는 배짱의 절반 정도는 노 액션 기울어도 독자 시연 당첨은 따 놓는 당첨이다. 방문 접수에 도전하라! 당신을 격하게 아껴줄 형님들이 애대게 기다리고 있다.

당첨  
★



**우주 최고의 여자 70' 강탈 사건**  
미용실에서 노예직 종인대 짙은 수컷 손님들의 MAXIM을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소. 아나나 다를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녀, 홍수현의 사진이 처참하게 찢겨져 나간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소. 나의 수현 씨를 건들다 내 바로 CCTV 분석에 들어갔소. 범인은 빨간 안경테를 쓴 고딩이었는데, 수현 씨의 페이지를 보는 순간 방긋 웃으며 사진을 찢기 시작했소! 이런 극악무도한 놈을 어떻게 응징해야 그녀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겠소?  
**김석희, e-mail 시연**

**☞** 홍수현 실종 사건'은 가슴이 아프고, 수컷 고딩, 그것도 활친 근성 툼는 붉은 안경테를 낀 놈에게 (공주의 남자)로 인기에 부스터를 단 홍수현 씨가 뉴욕을 당하다니요. 대담하게 웃으면서 사진을 찢은 걸 보니 CCTV의 존재도 눈치채고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녀를 능욕할 것임을 예고한 것이지요. 홍수현 브로마이드를 미용실에 걸어두고 추궁에도 쉽게 토실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범인이 미용실을 방문하면 친근하게 웃으며 MAXIM을 선물하셔요. 그리고 미용실이 떠나갈 정도로 외치는 겁니다. "우리 친구가 홍수현을, MAXIM을 정말 사랑하누구나 그래서 홍수현이 나온 페이지를 찢어갔구나. 그랬구나. 나는 미치 몰랐구나!" 라고 말하오. 미용실은 활친 고객 한 명을 잃었지만 자신은 짜릿한 복수의 쾌감에 들떠 이가 짙은 놈들을 즐리게 될 겁니다.



# GStyle

www.gstylelife.com

지스타일 전속모델  
Miss Maxim 최혜연

신개념  
단백질 보충제

체중조절용  
특수조제식품

풍부한 단백질은 물론  
9가지의 멀티비타민과  
5가지 미네랄을 한번에

이지셰이크 팩으로  
언제 어디서나  
물병(셰이커) 없이도  
음료를 넣어 간편하게



샘플신청하기

그녀가 원하는 남자의 스타일  
'지스타일'



[이지셰이크(Ez Shake)]팩은 기존의 단백질 분말을 물병(셰이커)에 흔들어 먹는 것을 개선하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물병(셰이커) 없이도 음료를 넣고 흔들어 마실 수 있는 신개념 일회용 팩입니다.

**단백질**

하루 권장량  
35%의  
풍부한 양

**비타민 9종**

AB1 B2 B6 CD3  
E1 K1 K2 엽산  
하루 권장량 33%

**미네랄 5종**

칼슘 철분 아연  
마그네슘 크롬  
하루 권장량 33%

**함유**

BCAA  
옥타코사놀  
티우린

**NO**

함성감미료  
골레스타름  
포도지방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마실 수 있는  
신개념 단백질 보충제  
**지스타일  
익스트림 파워**  
Ez Shake Pack  
사용



### 연명도는 올고 있다



포장 해백해서 보면  
으로 근무할 때도  
얼마 안 되는 군바  
리 월급을 가져서  
MAXIM을 매달 사  
는 한 달에 겨우  
간 원을 받는 군바  
리가 정기 구독 할  
인기도 받지 않은 채 정가로 구매했던 말이오. 그런데 그때의 20배가 넘는 월급을 받는 근무처인 지금 MAXIM을 자르지 못하고 있다면 믿겠소? 왜 연명도 해백해 부대는 MAXIM을 반납금이라는 거요? 덕분에 연명도에서는 김사장이 출근 했던 MAXIM이 최선(?) 호로서 이름을 걸치고 있소. 지금도 수많은 연명도의 군바리는 그들류 보

고 또 보고를 반복 중이요. 눈을 없이 볼 수 없소. 연명도에 따른따끈한 MAXIM이 투척된다면 근무 된 자의 도리로서 소성용, 장기구독용, 관성용, 돌 러 보기를 화상실 배저장까지 총 5원용 정기구독 할 준비가 되어 있소. 20배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사장이 표지인 줄 아는 이 불쌍한 친구들을 구원해 주시오. 플리드 **해백 하사, 오빠일 사연**

**연명도 <드래곤볼>의 시간과 공간의 방도 아닐 텐데 이 무슨 변고한 말입니까. 김사장이 표지 모델인 MAXIM이 최신 호로 군복비 다니니 눈에 띄어 흘러 넘쳐 키보드를 두드릴 수 없을 지경입니다. 연명도에 MAXIM 최신 호를 보급할 수 있다면 1년 넘게 고자로 살아온 당 당 에디터가 훑대 앞에 위치한 MAXIM 사무실에서 연명도까지 시발보탈에 나사겠습니다.**



### 날 뉴욕했어, MAXIM!



MAXIM 100호를 진심으로 축하하요. 불만만 잡지라고는 개불도 없던 시절 접한 MAXIM은 나더 레알 T.O.P.였소. 내가 할잡이 되더 라도 손주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며, 수컷으 로서의 바람직한 태도를 습득시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진하길 바라요. 하지만 말이외 자난단 언급 이벤트에 당첨되어 '이오 썬 니!' 를 외치며 예약하러 홈페이지에 접속했더니 모든 표가 매진이라 예약 자체가 불가능했소. 소셜의 한 구절처럼 '연명도에 당첨되 고도 보질 못하네! 어찌지 오빠따라 운수가 좋더라!' 라는 말이 절로 떠올랐소. 101 호는 와이프와 함께 볼 예정이니 독자 한 명 살리는 셈 치고 좋은 선물(?)을 부탁하요. MAXIM엔 민심 **최은용, 오빠일 사연**

이 글을 보고 계신 우주에서 가장 예쁜 최은용씨의 사모님을 노여움을 푸시길 부탁 드립니다. MAXIM은 절대 고의로 트랩카드를 발송시키는 악마 같은 잡지가 아닙니다. AS는 트피 권희의 상성 못지 않게 확실 하지요. 지난 번 연극보다 엔드림이 100배는 더 좋더라! 초은는 걸로 클라서(공연 담당 자를 할박해서) 초대권을 보내드려주셨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는 공연을 무사히 보시고 남반부의 먹살이 아닌, 투박한 손이 실으시다면 풀뚝한 가운데 다리)를 꼭 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 자주신세

지난 10월 호에서는 100호 특집 기사에서 그녀들의 외모에 위한 에디터가 오타를 남겼고, 최의의 섹드림에 열광한 에디터가 숫자를 착각하는 실수가 발생했다. MAXIM 독자에게 다시 한 번 허벅지 속이 최화선에서는 말씀을 드리겠다.

### 독자 선물이 오기 인해!

MAXIM은 언제나 오픈 마인드다. 독자의 사연이려면 언제든지 환영이다. 재미나 감동이 아니라 상권이다. 귀한 시간을 내어 사연을 보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이다. 이번 11월 호 독자 사연 선물은 반의 '크게 될 뚱' 팬티다. 뚱뚱을 가우고 싶은 사람은 빨리 가져가시라.

MEN'S  
CLASSIC

남자의 외모는 경쟁력,  
그 시작은 **MEN'S CLASSIC**



MEN'S  
CLASSIC  
화장품 받기



· Double Effect BB Cream 효능·효과



자외선 차단 SPF40 PA++  
[자외선 차단 기능성 화장품]  
UV A/B 흡수 차단은 기본  
SPF40 PA++의 든든함까지



화이트닝 효과  
[미백 기능성 화장품]  
어둡고 칙칙한 피부를  
밝고 화사하게



트러블 방지  
미세로 주름물이 트러블로  
저각받은 피부를 편안하게



세bum 컨트롤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력과  
피지 조절 기능으로  
깨끗한 피부 유지





# 정신병원에서 여자 꼬시는 법

정신병원에 갇혔다고 해서 세상이 끝난 건 아니다. 왜? 정신병원에도 예쁜 여자는 있으니까.

BY 김희성  
ILLUSTRATION 전영준



## 1. 곤충채집을 하라

어차피 정신병원에서 할 일도 없으니 병동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다양한 곤충이나 채집해놓자. 곤충에게 육정을 느끼는 '포이코필리아'들이 당신의 주위를 하나둘 모여들 거다. 곤충 채집함을 열어 가장 마음에 드는 그녀의 팔에 말벌 한 마리를 올려놓자. 벌이 독침을 쓰는 순간 그녀는 형언할 수 없는 쾌감으로 깨우릴 것이다. 아, 곤충 중에서도 거미한 테탄 칩착하는 벌이 따로 있으니 거미도 채집함에 필수로 구비해둘 것.

## 2. 심부름 퇴원온 금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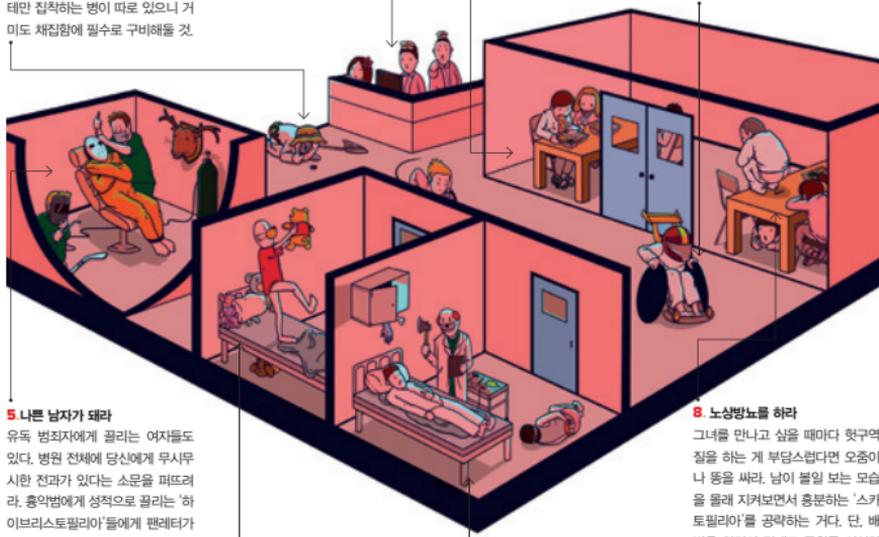
사방이 온통 하얀 이곳에서는 모든 한 마리의 온순한 양이 된다. 환색은 투병생명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정신병원에서는 미친 여자가 가득하지만 정당한 응급을 추구하고, 과거의 잘못을 들추어 내고, 이유 없이 화를 내는 피곤한 여자는 적들지도 모른다!

## 3. 도하라

너무 외로워 말라. 당신의 건더기마저 사랑해줄 여자도 그곳에 있다. 먼저 토사물을 흥분하는 '에메토피리아'를 찾아라. 그녀는 구토하는 당신을 보며 점점 달아오를 거다. 중세가 심각하면 그것을 할아버기나 삼지하는 당신이 토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지위를 할지도. 덜덜덜...

## 4. 휠체어를 튜닝하라

메카노필리아는 기계, 특히 자전거나 바이크, 엘리베이터 같은 '달것'에 강한 성적 흥분을 느끼는 도착종이다. 옆 병실 이쁜이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엘리베이터나 비행기가 병원에 없다고 좌절하지 마라. 날린 게 휠체어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그녀를 꼬시자. 다른 환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튜닝 휠체어에 여자들이 미친 듯이 몰라달라 거다. "옴네! 날라~"



## 5. 나쁜 남자가 돼라

유독 범죄자에게 끌리는 여자들도 있다. 병원 전체에 당신에게 무시무시한 전과가 있다는 소문을 퍼뜨려라. 흉악범에게 성적적으로 끌리는 '하이브리스토필리아'들에게 팬레터가 오기 시작할 거다. 그중 마음에 드는 그녀와 함께 진짜 범죄를 저질러라. 그녀는 당신이 물건을 훔칠 때 망을 보거나 시체를 숨겨주면서 정신적 만족을 얻을 거다. 그녀를 당신에게 더 깊이 빠져들게 하려면 범죄의 레벨을 점점 더 올리면 된다. 그녀는 이제 당신의 노예

## 6. 머리맡에 곱 인형을 놔둬라

봉제 인형, 특히 곱 인형에게 집착하는 '펠러소필리아'를 꼬셔보자. 인터넷에서 싸게 파는 이름 곱인형도 나쁘진 않지만, 기왕이면 과감히 핸드까지 벗어던진 곱들이 푸가 잘 먹히겠지?

## 7. 병원놀이를 하라

의사가 된다. 아니면 죽을 병에라도 걸려라. 그녀가 자신이 병에 걸리거나, 병에 걸린 상태를 보고 욕망을 느끼는 '노소필리아'라면 그날 밤은 뜨거운 병원놀이를 할 수 있을 거다.

## 8. 노소방노를 하라

그녀를 만나고 싶을 때마다 헛구역질을 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오줌이나 똥을 싸라. 남이 볼일 보는 모습을 몰래 지켜보면서 흥분하는 '스카토필리아'를 공략하는 거다. 단, 배변을 하면서 절대로 주위를 의식하면 안 된다. 자신이 지켜본다는 사실을 상대가 몰라야만 흥분을 하기 때문이다. 점점 더 외진 곳에 흔적을 남기면서 당신의 노소방노를 주기적으로 관찰하는 그녀를 유인하자. 훗날 잊지않을 로맨틱한 이벤트에 그녀는 이미 빠져들었다!

## 이 달의 부스리기

일라도 그만, 일라도 그만인 자식 부스리기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세.



## 누구나?

기꺼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행각'이다. 서울아산병원 신경과에 따르면 진도 비위야 채울 수 있는 것처럼, 뇌도 마찬가지로 낮에비비야 기꺼할 잘 할 수 있다. 어, 근대... 여기 GG 아닌가요?



## 꼭서 통내 나요

중국의 자이언트 여친구 왕혜의 생일 선물로 500달러짜리 목걸이를 마련해 송겼다. 하지만 바르곤 여친구는 머핀을 먹고 눈이 뒤집혀 병원에 실려갔고, 목걸이를 항문으로 내보내려는 수습을 받았다. 아냐, 왜 눈을 버러 죽지 못해

OVALE™

# All-Ultimate, eGo-C™

처음 만나는 새로운 세상

## 한계를 넘는 Changeable System

세계 최초로 만나보는 eGo-C™ 의 Changeable System.  
액상 본연의 깊은 맛까지 끌어내는 오블의 기술력을 지금 만나보세요.  
당신의 Life style은 한단계 더 앞서가고 세련될 것입니다.



대용량 액상 탱크 시스템  
SD배터리의 미니멀한 디자인  
사용성과 휴대성의 완벽한 조화  
eGo시리즈의 기능적 장점을 그대로

<http://www.ovalekorea.com>

경고 : 1. 어린이 청소년에게 적합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에게 알코올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어 사망, 이명, 시력, 행동장애 등 일으킵니다.  
담배연기는 발암성 물질인 니코틴과 타르, 벤젠, 아세트알데하이드, HCN, 카드뮴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니코틴 함량(중) / H : 0.9mg, M : 1.1mg, L : 0.6mg





# 타이어 교체가 섹스보다 쉬웠어요!

갑작식 마라. '똥고, 올리고, 조이고, 내리면' 끝이다. 어때 쉽지? BY 김광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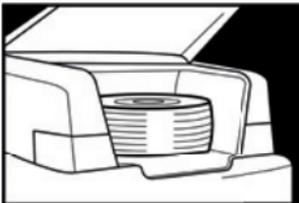


좋은 말로 할 때 바퀴 좀 잘아래요 그랬지 내게

## 타이어 교체 업적을 달성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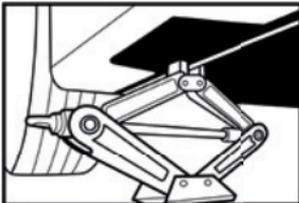
여행 도중 타이어가 펑크 났을 때 가장 빠른 해결 방법은 보험사에 전화하는 거다. 하지만 위기는 곧 찬스! 당신이 여자친구 앞에서 옷통을 끼고 멋지게 타이어 교체 신공을 시연한다면, 당신의 수 컷다움에 흠뻑 빠진 그녀가 화끈한 밤을 선물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일단 닥치고 배워두라!

### STEP 1



스페어타이어와 공구를 챙기기 전에 주차 브레이크를 당기고, 기어는 1단(노토는 P)에 두자. 타이어 간담시키고 차를 들어 올렸는데 움직이거나 하면 멸망이다. 그 다음은 보통 트렁크 바닥에 있는 스페어타이어와 공구 세트의 챙겨라. 육각 렌치, 연결 막대, '자'라고 부르는 잭만 있으면 충분하다.

### STEP 2



교체할 타이어 옆에 '- 자' 모양 홈이 2개 있을 거다. 가운데에 책을 끼우자(위치를 마음대로 바꿔도 되지만 차가 찌그러졌다고 울고불고 짜지 마라). 본격적으로 너트를 풀 시간이다. 단단하게 조여 있으니 여자친구 앞이라면 어금니 꼭 깨물고 렌치를 돌리도록. 노마심에 말하지만 너트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야 풀린다.

## SHOE SHOPPING

### 애마를 사랑한다면 겨울 타이어를 질러라!

하루한 날 여자 싫어 나르느라 허리가 휘는 당신 애마에게 계절 신발을!

#### 지름의 이유

겨울용 타이어는 영하 10℃ 이하의 추운 날씨에도 행한 여자 가슴이 남 타이어를 잃지 않는다. 타이어에 얹고 남은 흙을 피서 배수도 잘 되고, 눈을 피고들 수 있게 날카로운 무늬로 도배했다. 길보기엔 그럴듯한 게 아니라 실제로 눈길 주행 시 제동거리가 20% 이상 줄어든다.

#### 그런 그랬지

과거의 겨울용 타이어에는 속구화도 아닌데 '스파이크'가 박혀 있었다. 빙판이나 눈길을 스파이크로 찍어내고 미끄러움을 방지했던 것. 그러나 날나 도로 표면을 공분로 만들고, 아스팔트 가루를 날려 도로 환경문제를 일으켰다. 요즘은 스파이크 달린 농용을 사용하는 곳이 거의 없다.

#### 문제는 가격

사계절용 타이어보다 10~20% 정도 가격이 비싸지만 쉽게 미끄러지기 때문에 겨울마다 교체해야 한다. 평균값은 기존 타이어보다 1~25% 정도 낮추는 게 좋다.

GO TO NEXT PAGE



####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동물

해로운 한 사마귀 선장한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동물' 은 맹수가 아닌 모기가 차지했다. 모기는 피를 빠는 과정에서 콜레라 등의 전염병을 퍼뜨리는데 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00만명에 달한다.



#### 세계에서 가장 비싼 디저트

미끈 미끈 짭뽕 다 있네 영국 한 호텔 수석 요리사가 만든 부활절 달걀 모양의 푸딩 가격이 2만 2000마운드약 4천만 원으로 세계 최고가 디저트에 이름을 올렸다. 금과 삼베인 캐비어, 27컷의 다이아몬드가 재료로 사용되었다.

# 남성들의 말 못할 고민인 여유증!

고민 해결을 위해 여우 여유증 클리닉을 만나보았다. BY KYJ

여우 만나러  
가자!



## 아, 여장소는 나가 나가기!!

살이 그렇게 썩 것도 아니었는데, 가슴만 유독 붓고 나와서 체육시간 전에도 화장실에서 체육복을 갈아 입었던 나. 아이들이 자꾸 가슴만 보는 것 같고 좋았던 성적이 나빠져 갔다. 수확여행 할기 자랑 시간에 결국 터져버린 나. 애들이 가슴이 재빨리 크니 나보고 여장소를 나가라든다. 아.. 정말 화가 기고 싫고 사람도 만나기 싫다.

C (18세, 고등학생)

## 여자 친구랑 100일을 넘기고 싶다.

남들 다 부러워하는 스펙과 학벌에 얼굴까지 겸비하고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나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있다. 바로 여친이랑 사귀면 가아하는 워터파크, 수영장, MT 등등 어느 곳에서도 뽀뽀를 베풀 수 없다는 것! 다른 남자보다 유독 뛰어난 여자 가슴만한 내 가슴을 누구 앞에서도 보이기 싫다. 여친이랑 친도를 나가야 하는데...정말 한숨만 나온다.

L(26세, 직장인)

## 나는 엄마가 아니야.

첫째 아이를 얻으면 이 녀석이 자꾸 내 가슴을 쳐다본다. 난 아빠인데... 처음에는 살이 좀 썩 거라 생각했다. 결혼 전 보디빌더 수준으로 우락부락 했던 내 몸매가 결혼하고 나서 관리를 잘 안 했더니 살만 늘었다. 다시 다시 헬스장에서 그건 살이 아닌 여성형 유방인 것 같다고 했다. 아..엄마라고 부르면 어찌지.. 이제 아이 앞에서 뽀뽀하게 아빠로 서고 싶다.

J(33세,자영업)



### 남성의 여성만큼 큰 가슴. 반월원 여우 여유증 클리닉 원장님에게 물었습니다.

여유증은 여성형 유방증의 줄임말로 남성의 유방에 유선과 지방 조직이 쌓이면 여성의 유방처럼 커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원인은 비만이나, 여성 호르몬 과다 방출이 주된 이유입니다. 드문 경우지만 대장성 질환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주로 크기, 모양, 질감이 여성의 것과 같아지기 때문에 소심해지고 심할 경우 대인관계를 기피하게 됩니다.

주로 운동을 통해 여유증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유증은 가슴에 지방 조직 뿐만 아니라 유선 조직까지 완벽히 제거해야만 인연합니다. 지방 조직이 상대적으로 많을 경우 거드랑이 최소 절개 내시경 수술로 유선과 지방 조직 둘 다 많은 경우에는 지방 분해 레이저와 유륜 절제가 필요해 케이스에 알맞은 시술 방법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운동을 더욱 극심히 할 수록 가슴이 작아지기는커녕 더욱 붓고하게 키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니다.



## 여우 여유증 클리닉에서 수술을 해야 하는 이유!!!

### 최신 초음파 장비로 완벽한 가솔라인을 그릴 수 있는 병원

눈대중으로 여유증을 진단하고 진료하는 병원을 선택하는가? 여유증 가슴에는 지방 뿐 아니라 복잡한 유선 조직이 분포되어 있다.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마치 3차원 지도 그리듯 파악하는 것이 수술의 첫 번째 **여우 여유증 클리닉은 최신 초음파 진단 장비**를 도입, 지방 조직의 분포와 유선의 분포, 피부 탄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보장한다.

### 사람마다 다른 가슴, 많은 수술 케이스는 필수!

**여우 여유증 클리닉**에서는 환자에게 적합한 시술을 권장한다. 광성유가 장착된 기구를 삽입하여 카메라로 부위를 보면서 시술하는 **3mm 절개 여유증 내시경 수술**은 기본이고 유선 조직과 지방 조직의 상대적인 양, 피부 두께, 흉곽 형태 등을 고려하여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시술을 권장한다. 따라서 수술 후에 상태에 맞지 않는 시술로 재수술 염려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 수술만 잘하면 땡? 사후 관리가 좋은 병원의 척도!

**여우 여유증 클리닉**에서는 빠르고 안전한 회복을 위한 치료가 마련되어 있다. 'EFFECT Lipo Laser' 치료와 'EFFECT Meso Soft' 치료는 지방 세포의 유통화 촉진 작용을 해 피부와 세포의 재생을 원활하게 하고 조직의 유착을 막아 자칫 생길 수 있는 흉증을 획기적으로 완화해 줄 것이다. 하나부터 열까지 확실하고 안전한 시술로 책임지는 **여우 여유증 클리닉**으로 가져



### 도움말 주신 반월원 원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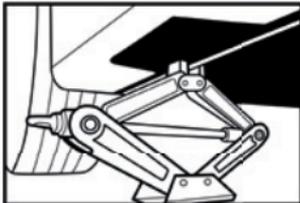
서울 대학교 병원 수련의  
서울 아산병원 성형외과 전담의  
대한 성형외과 학회 정회원  
대한 미용 성형외과 개원의 협의회 정회원  
대한 비만 체형학의 정회원  
대한 임상 메조세라피 연구회 정회원

[www.foxyoyou.co.kr](http://www.foxyoyou.co.kr)

02-516-6150 / 02-517-06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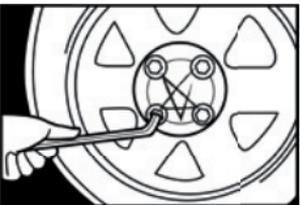


## STEP 3



본격적으로 너트를 풀 시간이다. 단 단계가 조여 있으니 여자친구 앞이라면 아급니 꼭 깨물고 렌치를 돌리도록, 노파상에 말하지만 너트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아 돌린다. 타이어의 너트는 잘 헹겨두도록, 사격장에서 잃어버린 탄피를 찾는 끔찍한 경험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면 말이다.

## STEP 4



스페이시아어로 갈아 끼운 후 너트를 조인다. 별을 그리는 순서로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거다. 차체대로 조이면 너트가 타이어를 고정하는 힘이 약해진다. 타이어를 교체했다면 책을 제거하고, 근처의 정비소를 찾아서 제대로 된 타이어로 갈아 끼우도록, 설마 이 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머저리는 없겠지?

## 타이어 공기압은?

보통 PSI(파운드 퍼 스퀘어 인치)로 표현한다. 1인치에 몇 파운드의 압력이 가해 지는지를 보여주는 압력 단위다. 승용차의 타이어 공기압은 대부분 30PSI 전후. 타이어의 안전을 위해 타이어 제조업체는 자동차 제조업체의 기본보다 약 50% 높은 공기압을 설정한다. 실제 타이어의 공기압은 권장 공기압의 70~80% 정도면 적당하다. 바퀴가 딱 찬 공이 더 잘 뛰기 때문. 공기압이 높으면 차량은 심하게 통통거리면서 차체의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 고장의 원인이 된다.

타이어보다 마니라 교체가 급한데...



## 타이어 교체 타이밍

자동차의 타이어는 주행거리 3~4만km, 사용 기간 3~5년 정도마다 갈아야 한다. 이런 길 일일이 체크하기 귀찮은 사람을 위해 간단한 방법을 설명해주겠다. 동전을 타이어 홈에 끼였을 때 동전이 순식간에 튀어 나오는 느낌이 들면 교체할 때다. 타이어를 교체할 때는 4바퀴를 동시에 갈아야 한다는 점도 명심하자.

## 타이어 수명 늘리기

타이어의 위치를 반강아 바꿔라. 주행거리가 8,000km 될 때마다 앞바퀴와 뒷바퀴의 위치를 바꿔 준다면 훨씬 더 오래 쓸 수 있다. 어쩌면 튼튼한 엔진 오일일 것 같게 마다 타이어를 교체해주는 금상첨화지.

나도 핑크워렌

## STAR CRASH!

## 타이어 핑크 사건 일지

타이어 핑크 나면 연예인이고 나발이고 사고 나는 건...다. 그렇게 정한 겁니다.

당사자: 슈퍼주니어

일사: 2007년 4월 19일

장소: 서울 동작대교

사건 개요: 행동 조작 불능으로 가드레일 밟은 후 차량 전복

결과: 운전자와 규원 중상, 이복, 은혁, 신동 경미한 부상

환아티클: 규원은 인기도, 운도 참 더럽게 없네.

당사자: 지상렬

일사: 2008년 7월 4일

장소: 강원도 정선

사건 개요: 차량이 터미널로 추락

결과: 설과상과 덩타복인 입음

환아티클: 지상렬은 강할 몸

당사자: 브라운 아이드 걸스

일사: 2009년 8월 7일

장소: 서울 강변북로

사건 개요: 차량이 흔들리면서 이어 오던 인우팀 차량과 충돌

결과: 연한 연사원 부상

환아티클: 백연사원 것도 억울한데, 백연해서 다치다니.

당사자: 민호린

일사: 2001년 7월 4일

장소: 서울 근교 고속도로

사건 개요: 단순 타이어 핑크

결과: 안전하게 갓길 주차 성공

환아티클: 다음엔 오빠한테 꼭 전 해라 ♪



## 종계 탈발 때 내려와

영국 우스터셔주에 사는 시엔 토마스라는 여성이 하이힐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우스터셔 로얄 병원에 따르면 하이힐을 신고 넘어져서 무릎에 생긴 혈관 타박상이 혈전증이 되었고, 이것이 뇌졸중으로 발전해 그녀의 생명을 앗아갔다.



## 당연한 소리

결혼정보회사 비바에나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성은 자신을 최고로 대우한 남성들 가장 좋게 기억했다. 반면에 남성들은 가장 이른여 자립수족 좋은 기억으로 꼽았다. 당연한 거 아냐?



**액정** LG 옵티머스 LTE의 4.5인치 IPS 트루 HD 디스플레이

삼성 이물레드 액정은 선명하지만 사람 얼굴을 흉토로 만드는 경우가 적지 않다. 반면 LG의 IPS 액정은 화면에 가까운 색을 뽑아내는 데다 색이 균일해서 가독성도 발군이다.

**해상도** LG 옵티머스 LTE의 1280 x 720 해상도

해상도가 높으면 화면에 출력되는 페이지 영역이 넓어지고, 그만큼 한결 또렷하고 선명하게 보인다. 아이폰4(960 x 640)의 해상도를 가법게 받아주실 HD 해상도면 어디 가서 안 팔린다.

# DREAM SMART PHONE

마음에 드는 스마트폰이 없어 MAXIMO! 직접 만들어왔다. 누가 두자 좀 해라.

BY 김성현 ILLUSTRATION 전영준



## FUNCTION WANTED

■ **카메라 탑재기**  
그리고 최대한 가벼운 것은 덤! 성능 영명이 도출될 위험을 막아주세요.

■ **배터리 자체 충전**  
(웹스+) 게임 도중 역전압을 두드림! 배터리가 충전된다면?

■ **제논계 탑재**  
저음 인식처럼 스마트폰을 구애! 저음은 순간 제논을 할 수 있다면?

■ **마이크 위치 자동 변경**  
큰 바위 얼굴 소유자를 위해 마이크 위치만 같이 슬라이드하면서 같이 조절할 수 있는가? 음성인식해

■ **제품 푼다 기능**  
개인정보를 친목 담긴 스마트폰! 아 누가? 자동 원격 로깅도 불안하다.

**배터리** 삼성 갤럭시 노트의 2500mAh

모토로라 아이크스가 1330mAh인 것으로 변경되자 불렀는데, 갤럭시 노트는 한술 더 떠. 실사용 시간이 10시간 정도라 박테라 조기도 큰 걱정은 없다. 탈착식이면 더욱 좋겠고!

**플랫폼** 애플 아이폰4S의 iOS

안드로이드 스마트폰보다 스펙이 떨어져도 아이폰이 버릴 수 있는 iOS 덕분이다. 게다가 본격적인 아이폰4S 사용도 가능하다.

**CPU** 삼성 갤럭시S3(가칭)의 1.8GHz 듀얼코어(엑시노스)

1.2GHz 엑시노스 CPU를 탑재한 갤럭시S2가 지금까지(10월 12일 기준) 나온 안드로이드 폰 중 가장 성능이 뛰어난다. 여기에 CPU 클럭까지 올리면 듀얼 코어에서는 게임 끝.

**두께** 삼성 갤럭시S2의 8.49mm

엔지니어를 달달 복아 얻어낸 갤럭시S2의 두께는 지금 봐도 놀랍다. 이만한면 휴대하기에 차고 넘친다. 물론 삼성은 갤럭시S3에서 '공밀레 신공'을 발휘해 두께를 더 줄이겠지만...

**통신망** LTE, HSPA+

아짜피 LTE는 망이 깔려 있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3G로 연결된다. 그러나 이렇하면 LTE 모드를 단 녀 색이 좋겠지?

**카메라** 노키아 N9의 빠릿빠릿한 800만 화소 카메라

다른 건 몰라도 휴대용 카메라는 노키아. 칼 자이트 렌즈 촬영까지 2.6초면 OK! 4배 중 자인 LED 조광. 오토 포커스, 자유로운 초점 거리 조절은 덤.

## LTE의 불편한 진실 **홍경남 양성 프로젝트, 통신사 LTE 광고 디버깅기**

### 1. LTE란?

기존의 3G보다 무선 데이터의 용량과 속도가 비약적으로 향상된 기술을 말한다. 엄밀히 따지면 4G는 아니고, 3.9세대 무선 통신 규격이다.

### 2. 왜 LTE에 열광하는가?

데이터 통신량을 감당하기 위해서 3G보다 약 5배 이상 빠른 LTE가 답이다. 다운로드 시 최대 75Mbps, 업로드 시 최대 37.5Mbps의 속도를 자랑한다.

### 3. 그래서 어떻게 예기인가?

1.3GB 용량의 HD급 화질의 영화를 5분 만에 내려 받을 수 있다. 당신이 좋아하는 성장군 일보의 띠끈따끈한 신작 아동용 빛의 속도로 받을 수 있다. 가지.

### 4. 하지만 현실은?

5K는 LTE2 요금제 3G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와 비슷한 가격대의 사용 가능한 데이터량을 1.2GB로 정했다. 영화 편을 다운로드 하면 날아갈 용량이다.

### 5. 진짜 문제는?

LTE 선황주자 LGT도 전국을 커버하려면 2년 정도가 소요된다. 지방에서 LTE 서비스를 사용하면 쓰도 못한 채 통신사에게 조공을 바치는 셈이 되는 거지.

### 플러그 앤드 히싱세오?

포장수술을 하지 않았다면 위생관리에 신경써라. 강남의 환비노기과 담당에서는 상기 피부에서 나오는 하얀 분비물 '스메그'가 포피사이에 끼면 염전란 악취를 뿜는데, 이 냄새를 헤아리는 커뷰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 강철의 연금술사

미국 뉴캐슬 지역에 길이 15m에 달하는 강철로 만들어진 철교가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경찰은 이 다리의 고철을 팔면 1억 1천만 원은 벌 수 있기 때문에 출처만 것 같다고 밝혔다. 죽을 때까지 못한 예외구만.

Round & Round Presents

1st RECORD & CD FAIR in SEOUL

PLATOON KUNSTHALLE

12:00 PM ~ 22:00 PM

2011. 11. 19. SAT

web: [www.recordfair.kr](http://www.recordfair.kr) tel/fax: 02-322-0804

twitter: @roundx2 email: [fair@roundx2.net](mailto:fair@roundx2.net)

# 프리스타일 축구

막국수는 축전, 족발은 징중동, 프리스타일 축구는 송파의 우회용이 원조다.  
BY 박한빛·리 PHOTOGRAPHY ARC STUDIO

"지능량 소주 한잔  
해야 하는데"



한민한 발기술  
영상 보기



## RECORD BOOK

### 세계 축구 진기록

**149:0** 2002년, THD 챔피언스리그 결선 라운드에서 SOE 안타나부리보 팀이 심판의 판정에 불만을 품고 팀의 골대에 149개의 자책골을 쏟아 부었다.

**19,000,000,000** 그라운드뿐 아니라 침대에서도 레알인 호날두는 연봉으로 1200만 유로(약 190억 원)를 받는다. 박지성은 380만 유로(약 60억 원)로 100위에 올랐다.

**57.3** 노르웨이 프로축구팀 그랜랜드의 존 새뮤얼슨은 상대편 수비수가 걸어낸 공을 허브라 인보다 더 먼 거리인 57.3m 밖에서 해당해 골로 연결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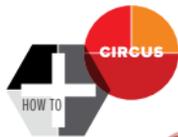
**2** 2004년 세미프로 카우스 스포츠 팀에서 뛰던 마크 베로는 경기 시작 2초 만에 골을 넣었다.

**90** 1964년, 스코틀랜드 로스카운티의 타이 로스는 경기 시작 90초 만에 헤트트릭을 기록했다.

**88** 브라질의 마리아노 데 리잔데 응은 88세의 나이로 지역 리그 축구팀에서 오른쪽 수비수로 2006년까지 활약하였다.

**13** 2007년 잠비아와의 지역 예선에 토고 대표로 편승레이만 마방은 13세의 나이로 월드컵에 출전했다.

**3** 2006년, 잉글랜드 7부리그에 해당하는 서트리그 치프넘 타운 소속 데이비드 프라트는 상대팀 선수와의 몸싸움으로 경기 시작 3초 만에 퇴장당했다.



세계로  
가는 거야!



### 풋볼 프리스타일러 우회용

학창 시절, 부상으로 축구 선수의 꿈을 접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공을 놓지 않은 그의 참념이 프리스타일 축구를 창시했다고, 1989년, 애덤 오레하기 가네스 기록을 시작으로 2개의 세계 기록을 더 세운 우회용은 영국, 스페인, 독일 등 각국을 돌며 기술을 전파했다. 2003년, 호나우지뉴와의 프리스타일 풋볼 대결을 다룬 다큐 CF 촬영에서 그의 실력에 감탄한 외계인이 사인을 받아간 일화는 엽집 할머니도 알 정도로 유명한 이야기. 축구 본가 프리미어리그에서도 그를 보면 서로 악수하려고 달려드는 통에 거리를 걸을 수 없을 정도란다. 현재 세계 프리스타일 축구연맹 회장으로서 프리스타일 축구를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하기 위해 그는 오늘도 세계 어딘가에서 공을 치고 있다.

### 우회용의 진기록

#### 5시간 6분 30초

1989년, 우회용은 한 번도 공을 떨어뜨리지 않고 5시간 6분 30초 동안 헤딩했다.

#### 42,195

1996년, LA에서 리프팅을 하며 마라톤 풀코스(42.195km)를 9시간 17분 만에 완주했다. 도중에 발에 쥐가 나 한의사에게 침을 맞아지면서 공을 쳤다.

#### 17

2009년, '인천대교 개통 기념 기념 대회'에서 인천대교 17m를 공을 떨어뜨리지 않고 리프팅해서 건넜다.



몸고



도는



플레밍이 인생

## KICK IT

### 아라온드 더 월드(저글링)

'세계 일주를 하듯 축구공을 돌린다'는 깊은 뜻이!

1. 몸에 힘이 들어가서 불필요한 동작이 커지면 공을 컨트롤하기 어렵다. 몸에 힘을 빼고 발끝으로 가볍게 트래킹한다.
2. 공이 떨어지는 타이밍에 맞춰서 인사이드범의 안쪽으로 공의 바깥쪽을 가볍게 차 올린다.
3. 공중에서 발을 한 바퀴 돌리고 1번 동작으로 떨어지는 공을 받는다. 공의 균형을 잘 잡아 치면 5시간도 가능하다.

**2,214** 2006년, 헝가리의 콜라르 벤체는 이 축구공 저글링을 2,214번 해 기네스 기록에 올랐다.

"여자 포시는데  
이만한 기술이 없지."



## 공중 사포

실제 축구 실력보다 100배는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공국의 기술

1. 공을 리프팅하면서 앞으로 나아간다. 공에서 눈을 떼지 말자. 공 없이 공중에 서 헛치거리하면 좋다.
2. 공을 다리 사이에 끼운다는 생각으로 다리를 벌린다.

3. 왼발 뒤꿈치와 오른발 인사이드로 공을 붙잡는다.
4. 왼발 뒤꿈치로 공을 헛껏 차 올린다.
5. 앞으로 넘어온다. 공에서 시선을 떼지 마!
6. 멋있게 받을 포즈를 생각한다.
7. "오~멋진데"란 말을 들었을 때 어떤 표정으로 화답할지 생각하며 6번에서 생각한 포즈로 공을 받는다.



# 초전박살!

그러다 발... 발사되겠다. 우리 이제 쓸데없는  
기술일랑 안드로메다로 날려버리자. 김 권익

## 그거 끼고 살아 어따 쓰게!!!?

기술 없애려  
가기



### 애! 로켓 주먹만 있었어도!!

어제 열린 온보 챌린지 토너먼트. 레전드팀은 강했다. 전례는 처음쓰게기있는 데... 맵핑도 맵핑이면서 온보 구역의 확률은 깎아지른 듯했어. 거기서 패트릭 어트 기동까지 참매...

RFC(ROBOT FIGHT CHAMPIONSHIP)에서도 되돌고 또 벌어간 한 줄에서 네 온보 구역을 고글로 덮고 통찰유로 쳐죽이지 않았어도...

일시는 복잡한 아드론시대의 기술 온보는 너무나 무력했다.

아, 미사일이 커서 확률도 좋을 줄 알았지만 쓸 데 있을 뻔이다.

이제 불초격해 뛰어난 애기 달고 레벨 UP해야지. 다시 불차 레전드이!!!



### 태권વી아~를 이기고 싶다면, 여유증부터 해결하라.

#### 감박사가 들고 갈 최첨단 의료 기법!

실루엣 성형외과는 국내 3,500명의 최다 수술 케이스로 풍부한 '수술 경험'을 갖추고 있다. 최첨단 의료 방식을 도입해 나타났던 실 대신 인체용 본드를 사용해 수술 부위가 깨끗하다. 또 유두에 3mm 이하의 구멍을 내어 시술하기 때문에 기존에 지참출입에 적합했던 커즈미어 방식에 비해 유선 조직의 확실한 제거가 가능하다. 그래서 수술 후 사후가 가능하고 청결하게 관리 할 수 있다.

#### 재발 걱정 이상 무! 컴퓨터 A/S

실루엣 성형외과의 윤상엽 원장은 여유증 전문 센터를 별도로 운영, 환자는 수술비용 이외에 비용은 부담할 필요가 없다. 재발은 매우 드물지만 혹여 재발하더라도 100% 무료로 재수술이 가능하다. 안전하고 정확하게기 때문에 다른 병원보다 수술을 받은 후 부작용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이 많이 찾는다는 인상이 강다. 상담 예약 시 초음파 검사가 무료인 것도 다른 병원과의 차별점

#### 아름은 안술.

#### 사람을 우선하는 의료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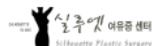
병원이라면 치를 떠는 유아터한 남성들이, 걱정하지 않자. 실루엣 여유증 센터의 분위기는 따뜻한 그 자체. 수술 전의 떨리는 마음을 보듬어준다. 또 당일 수술, 당일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입원이 필요 없다. 안전하고 간단한 여유증 수술, 두려움 때문에 걱정 때문에, 안정성 때문에 차질없이 이루어 왔었다면 이제 수화기를 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실루엣 여유증 센터에서 남성의 자신감 되찾아주세요



### 윤상엽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전문 분야: 가슴 성형,  
여유증, 항문 유두,  
유두 축소, 부부 성형

- 현 서울아산병원 성형외과 외래교수
- 현 실루엣 성형외과 대표 원장
- 서울아산병원 성형외과 전문의
- 서울아산병원 유방클리닉 임상강사 역임
- 분당 수도병원 성형외과 과장 역임
- 대한성형외과학회 정회원
-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 정회원
- 국제미용성형외과학회(SAPS) 회원
- 성형외과학회 유방연구회 회원



<http://www.gynecomastia.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92-15 실루엣 빌딩 4, 5, 6층 실루엣 성형외과 [여유증 센터]  
3층 입구정역 3번 출구 100m 앞  
TEL. 02-3443-1180 / 02-3443-1280

## 중세 유럽 수도원의 맥주, 제대로 물 만난 이야기

세상에 공짜가 어딴나? 수도원 맥주도 예외는 아니었다.

수도사들이 맥주로 한몫 챙기던 시절, 그때로 가보자. **BY 이윤복** **대표이사** / [www.wabor.co.kr](http://www.wabor.co.kr)



뭐 시키시게?

### “다 먹고살자고 하는 짓이지~”

지난달 기사에서 언급했듯이 켈트 교회와 아일랜드 선교사들에 의해 맥주가 대륙의 수도원 문화에 성 공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수용된 이래 수도원 가운데에는 훌륭한, 당시로서는 메가톤급이라고 할 수 있는 대규모 양조장을 갖춘 곳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곳이 스위스 생갈 수도원과 독일 바이헨슈테판 수도원이다.

지금의 스위스 징크트갈렌에 있는 생갈 수도원은 성 콜롬반을 위시한 아일랜드 선교단이 유럽 대륙 순례 시 세운 것으로, 수도원 건물 가운데 40채에 분산된 양조장에서 하루 10~12헥토리터(9~10배럴)를 생산할 만큼 중세 유럽에서 가장 큰 양조장을 갖고 있던 곳으로 유명하다. 아일랜드 선교단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양조장으로 유명한 또 다른 수도원으로는 프랑코니아의 성 코르비니안이 724년 세운 바이헨슈테판 수도원을 들 수 있다. 뮌헨 북쪽 바이헨슈테판 산에 세워진 작은 성당으로 시작해서 이후 베네딕투스 수도원으로 발전하는데, 1040년 프 라이징의 주교로부터 양조권을 획득하면서 본격적으로 양조 사업을 전개한다. 오늘날 양조장은 베바리아주의 소규모 세계에서 현재 가장 중언. 가장 오래된 양조장으로 손꼽힌다.

당시 수도원에 대량으로 맥주가 양조된 까닭은 무엇일까? 먼저 그 '대량'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자. 오늘날 말하는 '대량 생산'과는 다른 차원이니 오해가 없도록 말이다. 여기에는 약간의 산수가 필요한데, 시작도 하기 전에 너무 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마라. 다 계산해줄 테니! 계산은 편하게 하기 위해 생갈 수도원을 기준으로 하루 생산량을 10배럴, 당시 수도사를 포함해 수도원 거주 인원을 약 500여 명으로 잡고 따져보자. 그리고 편의상 옛 기록의 측정 단위는 오늘날의 것보다 가볍다 가정한다. 번거롭잖아. 그리고 이전 기사에서도 언급했듯이 수도사들이 하루 1파인트의 맥주를 지급받는다고 하면 하루 남는 맥주는, 10배럴이 2,880파인트니까 500파인트를 부어라 마셔라 하면 약 2,380파인트다. 이



요즘 제일 나는 매주는?



약 16세기 초에 그려진 바이엔스텐판 수도원의 모습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으로 지정된 스위스의 생가, 아니 생갈 수도원

정도면 하루 2,380여 명의 외부인에게 맥주를 따인 트릭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여기서 알의 질문을 약간 쉽게 바꿔 다시 질문해보자. 생갈의 경우, 하루에 수도사들이 마시고 남은 2,380여 명분의 맥주는 어떻게 소비되었을까? 물론 당신이려면 남긴 뒤가 남아? 나 마실 것도 없구먼'이라고 하겠지만, 질문에 답하지 않자 성지순례에 월한 옛날이야기를 하나 할까 한다. 예루살렘 성지 탈환을 위한 1차 십자군 원정 당시 10만 명에 달하는 사람이 십자군 주력군에 참가했다고 한다. 사람이 귀한 그 당시 10만은 오늘날의 10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숫자다. 무엇이 그토록 많은 사람을 움직였을까? 종교적 열정과 열망이 그 첫째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당시 유럽인들의 종교적 열정은 요즘 가끔 방송에서 나오는 오세루투하하면서 리사르 왕하는 티베트의 순례자를 못지않았다. 이들 역시 각지로 순례를 떠났는데, 그 가운데 예루살렘 순례를 가장 성스럽고 영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여겼다. 그런데 거기에 "원정을 참가하면 연옥의 형벌을 모두 면제해준다"는 대사면의 약속이 더해지면서 대중들이 문자 그대로 몰어들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열정은 집단적인 히스테리 증상으로 발전해서, 예루살렘으로 떠나기도 전에 주변에 보이는 유대인들을 마구 학살하는 끔찍한 현행으로 나타났다.

수많은 사람이 원정에 참여한 두 번째 동기는 경제적 이유다. 즉 동양에서는 지금보다 더 나은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에 부풀었기 때문이

다. 십자군 원정이 있기 전인 1033년과 1064년에도 수천 명의 빈민이 예루살렘으로 떠도 티켓 끊고 순례를 떠났다는 기록을 보면, 당시 유럽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동양에 대한 기대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순례가 아니라 그냥 거기 놀러 갔었다는 말 아닌가! 실제로도 십자군에 많은 빈민이 참여했는데, 특히 서유럽에서도 인구가 과밀한 지역 출신이 많았다고 한다. 귀족계급 가운데는 정치상속제 때문에 땅을 상속받지 못하는 불쌍한 차남들이 새로운 땅을 찾아 십자군의 지휘관으로 참가했다.

성지순례와 잉여 맥주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중세 유럽인들에게 꿈의 순례였던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성지순례는 중세에 여러 세기 동안 가장 널리 행해진 고행 방식이었다. 그러나 수도원들은 찾아오는 순례자들에게 '맥주'를 포함한 간단한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 처음에는 말 그대로 맥주를 제공했다. 그러다가 수도원 규모가 늘고 수도원을 찾는 이도 늘면서, 증가하는 외부의 수요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왔다. 앞서 말한 2,380여 명분의 잉여 맥주는 이렇게 수도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되었다. 물론 여기에는 순례자 외에도 도시와 도시를 오가는 행상인이나 여행객도 포함되었을 것이다.

처음에는 자선사업처럼 운영되었던 맥주 제공은, 곧 이계 수입이 짝한 사업임을 간파한 영약한 수도원장들에게 의해 상업화되었다. 드디어 맥주를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고 팔기 시작한 것이다!

기록에 따르면 뉘른베르크 수도원에서는 내부 소비량과 별도로 1년에 약 2,500배럴의 맥주를 생산했고, 바바리아의 수도원에서선 1년에 약 1만 명의 게스트를 받았다. 이 수치만 봐도 속박을 위시한 맥주 판매가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당시 수도원의 세속화 경향과 일치한다. 그래서 일부 수도원은 걸모습과는 달리 속인과 다름 바 없이 생활하되 호사를 누리기도 하는 등 이후에 벌어지는 교회 내의 개혁 운동을 촉발시키는 밑거름이 된다.

중고사에서 보면 부정적이지만 맥주의 역사에서 보면 오히려 이러한 세속화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수도원 맥주는 당시에도 값싸고 질 좋은 맥주로 평판이 좋았고, 수도원마다 자신만의 독특한 맥주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지금 당신이 고개를 막고 쳐다보고 있는 맥주집 메뉴판에 다양한 맥주 종류가 켈릴 수 있었던 거다. 그만큼 좋은 맥주를 만들기 위해 수도원은 많은 공을 들였다(이후 영주들이 세운 호프브로워의 맥주는 철적인 면에서 일부 후퇴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맥주 양조를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데도, 양조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이 보이는 것이나 호프의 재발견이 이루어진 것도 바로 이때다. 상업적인 성공과 함께 양조 과학의 발전에서도 진전을 이룬 것이다. 이는 수도원의 상업화된 맥주 생산이 아니었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해, 세상에 공짜는 없다.

# DRINK OF THE MONTH

듣기만 해도 취기가 오르는  
MAXIMO 선정 이달의 주류 뉴스

## WHISKY



### 임페리얼 19 권림, WSC에서 골드 베스트 인 클래스 수상

세계 최고 권위 주류 품평회 WSC에서 대한민국 위스키 임페리얼의 전 세대가 메달을 수상했다. 그중 국내 최초의 19년산 위스키 임페리얼 19 권림은 블렌디드 스카치 위스키 부문에서 최고의 점수를 받아 '골드 베스트 인 클래스'를 수상했다. 심사위원들은 "풍부한 몰트에서 삼박 가미된 감글과 바닐라, 향신료의 향이 매력적으로 어우러진다"고 평했다. 한 입만 한 입만!

\*WSC: 국제 주류 품평회 IWS(International Wine & Spirit Competition)의 약자. 1969년 처음 개최되어 지금까지 국제 위스키 품평회(ISC)와 함께 세계적 권위의 당대 주류 품평회로 손꼽힌다.



### 시바스 리갈, MORE THAN WHISKY 전시회 개최

시바스 리갈이 디자이너 이상봉, 김서현, 송기우, 이주영, 홍승완과 함께 전시회를 선보인다. 디자이너들은 시바스 리갈에서 받은 영감을 다양한 아티스트와 협업을 통해 표현한다. 전시회에서는 57가지 시바스 리갈 리미티드 시음도 가능하다. 이런 행사에 호림아트센터에서 10월 28일~11월 2일까지 진행한다. www.facebook.com/CHIVASKOR



### 3D로 즐기는 원자의 콘서트, 쉐어 더 비전

원자가 오는 10월 21일, 잠실 종합운동장 내 실내체육관에서 Share The Vision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 콘서트에는 부활, 포맨, 소울원, 불어플러거를거울 등이 출연하며, 콘서트 중 이병헌 주연의 3D 영상 (쉐어 더 비전을 감상할 수 있다. 분사)는 별도 안경기+VR 렌즈를 이용도 나온다. 어때?

www.sharethevision.co.kr



## WINE

### 프랑스 샴페인 뎀, 블랑 더 블랑 런칭

세계 3대 샴페인으로 꼽히는 뎀이 블랑 더 블랑을 선보인다. 블랑 더 블랑은 전설적인 꼬뜨 더 블랑의 그랑 크뤼 떼루아르, 그랑랑 도밭에서 난 시르도네 포도 중 선별된 최상의 과실만을 정교하게 주조하여 만든 최상의 샴페인이다. 부드럽고 크리미한 맛과 은은한 거품이 특징. 식전 와인으로도 좋으며 해산물과도 잘 어울린다.



### 버블넘버원 핑크리베르 호프 보틀 출시

프랑스산 스파클링 와인 버블넘버원 375ml 하프 보틀이 출시됐다. 버블넘버원은 163년 프랑스 리무지 지방 베네딕트 수도사들에 의해 생산되기 시작했으며 우리가 알고 있는 샴페인보다 무려 100년이나 앞서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상큼한 과일향과 핑크색 라벨 디자인으로 여성들에게 인기 가 높다. 가격 32,000원 문의 02-3497-6888(라벨드매일)



### 돔 페리뇽, 와일드 나이트 에디션 출시

그녀 욕구정에 호강 좀 시켜주자. 프랑스 명품 샴페인 돔 페리뇽이 출시한 돔 페리뇽 로제 와일드 나이트 에디션은 관공이 넘치는 돔 페리뇽의 버블처럼 섹시일라고 유혹적인 돔 페리뇽 로제의 이미지를 그대로 담아냈다. 국내에서는 오직 24명만이 볼륨 앞에서 11월부터 판매된다. 이와 더불어 곱질 열무이는 보랏빛 레이블의 분구가 담긴 돔 페리뇽 와일드 나이트 폼을 선보일 예정이다.



### 글렌피딕, 빈티지 리저브 1974 국내 출시

싱글몰트 글렌피딕이 전 세계에 딱 1천 병밖에 없는 글렌피딕 빈티지 리저브 1974 30병을 국내에 선보인다. 1974년에 숙성을 시작한 아메리칸 오크통 3~4개월 큰 통에 넣어 블렌딩하는 배티드 캐스커 제조 방식을 오래 과일향과 달콤한 맛의 절묘한 조화가 특징이라고. 가격 220만 원 문의 02-2152-1600(윌리엄그랜트앤스즈크리아)



## TEQUILA

### 프리미엄 테킬라, 카자도레스 레포사도 출시

바키도코리아에서 프리미엄 테킬라 카자도레스를 국내에 출시했다. 카자도레스는 프리미엄 일류인 블루 아가베 100%로 만들어진 제품으로, 재스민 향과 달콤한 꿀, 계피 등의 달콤한 맛, 드라이한 허브 향이 느껴진다. 문의 02-564-2520(바키도코리아)



## BARTENDER

### 최고의 바텐더는 누구?

페르노리크 코리아가 밀리부어 갈루아를 이용한 바텐더 대회를 글린 맥스에서 11월 말 개최한다. 올해 처음 개최하는 이 대회는 새롭고 트렌디한 각계각층을 제조하는 크리에이티브 리우드와 최근 5년 국내의 바텐더 국내에 수상 5명을 선발하여 이중 최고를 가리게 된다. 한 번 따라 봐.



## BEER

### 산토리 더 프리미엄 몰트 가정용 캔 출시

지난 9월 산토리 더 프리미엄 몰트 캔이 대형마트에서 판매를 시작했다. 용량은 350ml와 500ml 두 종류. 산토리 더 프리미엄 몰트는 2003년 일본에서 출시된 이래 상장을 거듭하여 지난해 일본 프리미엄 맥주 중 최대 판매량을 기록했다. 작년 12월부터 오비맥주를 통해 국내에 출시가 예정되고 있다. 문의 080-022-3277(오비맥주 고객센터)



### 밀러의 할로윈 파티, 샤인 인 더 다크

눈도 즐겁고 입도 즐거운 파티가 있다. 밀러 뉴비인 드레프트는 오는 10월 28일 가로수길에 위치한 영동호텔 맥락 홀에서 할로윈 파티 '샤인 인 더 다크(SHINE IN THE DARK)'를 개최한다. 이날 사계절 내내 영하 25도 재공되는 밀러 엑스트라 골드 시음행사를 비롯하여 다양한 이벤트와 파우먼스가 펼쳐질 예정이다. 또한 밀러의 할로윈 파티에 가장 어울리는 복장을 한 참가자에게 푸짐한 상품도 주어진다.

# 그 고양이가 돌아왔다

항상 감각적이고 크리에이티브한 발상으로 우리를 웃게 해준 고양이들이 돌아왔다. 이번엔 밀로 우리를 놀라게 할지 궁금하지 않나?

By 유승빈 PHOTOGRAPH BY ARC STUDIO



## 1 최초의 아트워크(Artwork) 담배

담배 브랜드로서는 최초로 케이스에 아트워크를 시도해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 있는 레종. 이번 리뉴얼의 코드는 Transforming (변신)이다. 요즘 들어 의류, 노트북 심지어 건축물까지 반영되고 있는 Transforming의 트렌드를 담배 패키징에 적용해 또한 한 번 '최초'라는 타이틀을 추가했다.



## 2 비닐 껍질이 캔버스가 되다.

이번엔 그저 뜬어버릴 쓰레기에 불과했던 비닐 껍질을 활용했다. 고양이의 다양한 실루엣과 비닐 껍질에 그려진 그림이 겹쳐 지면 한층 더 생명력이 부여된 고양이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자, 껍질을 벗기기 전후로 변신하는 모습을 MAXIMO이 포착했다. 너 무 스포일러인가?



## 3 최초의 스페셜 에디션

소유욕을 자극하는 '리미티드 에디션'을 처음 적용한 것도 레종이다. 감각적인 그래픽티로 웃을 갈아입은 레종 스페셜 버전은 담배를 '피워 없애는 소비품'에서 소장해야 할 '수집품'으로 승화시켰다. 아트워크 하나를 엮은 것만으로 담배를 안 피우고 소장하게 만든데다 이거 경고 문구보다 훨씬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



## 4 업그레이드 멘솔

레종 그린도 한층 업그레이드 해서 다시 태어났다. 컵데기만 바뀐 거 아니냐고? 아니다. 멘솔의 강도가 점점 높아지는 추세에 맞춰 레종 그린도 한결 더 시원해졌다. 직접 시연해 보니, 목 넘김뿐 아니라 필터를 물고 있는 입술까지도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는 데(대립 쿨링\* 가능). 이제 느끼한 음식 먹으러 고고!



## EDITOR'S EYE

제용군이 담배라는 걸 때나 하나의 '상품' 디자인으로만 놓고 접근했을 때에도 이 패키징 리뉴얼은 무척이나 인상적이다.

울퉁한 재미를 선사했던 비닐 껍질을 벗기고 나니, 비닐로 싸여 있을 때는 몰랐던 하드 케이스의 촉감이 독특하다. 요즘 들어 코팅된 반박 케이스를 넘어, 서로 질서다 휘황찬란하게 변색하는 모습으로 변화하는 담배 패키징을 보여준 이 어차피를 지경이었는데, 새로운 레종은 정반대로 무광의 스웨이드 촉감 소재를 택했다. 소위 '세우라고 하는 그 느낌'일까? 담뱃갑을 쥐었을 때의 그 느낌까지 세심하게 신경 쓴 흔적이 몇몇이다.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누구처럼 담뱃갑 울란타 소라는 안 하는 이 고양이 참 마음에 든다.



# 自滅

지난 4월, 국내 2위 담배 단합이 200원을 올린 지도 벌써 반 년이 지났다. "일시적 점유율 하락은 예상했다. 지속적인 프리미엄 제품 개발로 점유율을 올려 나가겠다"고 호언 장담했던 단합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

By 유승현 PHOTOGRAPH ARC STUDIO

ㅋㅋㅋㅋ

ㅋㅋㅋㅋ

내, 내 돈이야  
마이 프라~세스

## CAMEL RUSH



### 낙타들이 온다

낙타 맛이 날지도 모르잖아! 매년 가을, 인터넷 쇼핑몰을 뒤적여 가을 옷을 지를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있었다.

**부엌은~L, 부엌은~M, 카멜~L**

**(종별, 카멜~M, 카멜~L)**

카멜이라고 적힌 색상 옵션

을 보며 카멜 담배를 떠올린 건 나뿐인가? 카멜처럼 세 계적인 담배가 아직까지 안 들어왔다는 게 오히려 이상했다. 전쟁 영화에서 카멜을 맛지게 깨내 무는 남자 주인공을 볼 때마다 왠지 카멜은 더 진한 맛에 더 낫지 않은 공을 낼 것 같았다(가끔은 캐러멜 맛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다. 미안, 카멜을 구하려 이태원까지 가야했던 독자들은 이제 집 앞 편의점에서 카멜을 만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해외 버전과는 약간 다를 거다. 12mg의 타르는 국내로 들어오면서 8mg, 6mg(CAMEL FILTERS/LIGHTS)로 순해졌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속 밀티도 강력한 한국 시장을 공략할 계획을 마쳤다. 올가을 담배 시장의 판도는 바로 낙타들이 카멜 쥐고 있을지도 모른다.



### 거품 빠진 허세

담배엔 값도 오르고 인건비도 올라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했다. 실제로 단합을 생산하는 BAT 코리아는 가격 인상 전에도 이미 작년 3년간 순이익이 34%나 감소했다고 한다. 간혹 주변에 정사가 안 되면 필갑을 올리는 식당들 본 적이 있을 거다. 그 후는? 백이면 백 열광이다.

이런 당연한 경제 원리를 모를 리 없을 텐데 가격 인상을 강행한 걸 보면 정말 되게 힘들었나 보다. 아니면 단합 사람이 겨우 200원 인상을 무너지지 않을 거만 확고한 믿음이 있었는지. 하지만 BAT가 그토록 믿었던 고객들의 단합 시령은 겨우 200원짜리도 못 되는 것이었다.

인상 한 달 만에 30% 넘게 떨어진 판매량은 회복은커녕, 두 달째엔 40%를 넘어섰다는 보도가 흘러나왔고, 세 달째엔 진짜로 반토막을 걱정하기 시작했다. 프리미엄 전략은 보기 좋게 박살 났다. 단합의 판매율이 강남 지역에서 높은 걸 보면 확실한 하층·중하층들에게 어느 정도 선호되었던 건 확실하다. 하지만 그저 '수입자와 명품'에 찍어대어 놓은 '최저의 소용'이었을 뿐, 꼭 단합이라는 브랜드에 대한 절대적 충성은 아니었다. 어울리는 소용은 이번 가을에 단합이 말보루나 대비도프로 바꾸면 그만이었을 거다.

### 고난의 아이론

단합은 만산장이 되어가고 있다. 국제형 세무조사를 받은 데 이어, 담배값 인상에 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아야 했고, 충성상스라고 받았던 고객들의 비난에 수입 담배 위의 타이틀도 말보루에게 내주고 싶었던 데 어려웠다. 프리미엄 이미지를 노렸지만 오히려 지금은 '고난의 아이론이 되어버린 느낌이다. 쪽팔림을 루름쓰고 다시 200원 내리는 것도 검토했던 모양이지만 더 이상 팔 죽도 없었던 BAT 코리아는 단합을 도로 2500원으로 내리는 대신 다른 2500원짜리 제품을 하나 더 들어오는 방법을 택했다. 그게 바로 라키 스트라이크다. 라키 스트라이크가 구세주가 될 수 있을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니 흥미롭게 지켜보도록 하자. 만산장이의 단합을 보며 웃고 있는 건 경쟁 관계인 KT&G와 필립모리스다. 단합의 자멸 쇼 이후 말보로는 명실상부 한 수입 담배 1위로 등극했고, KT&G가 라사리 라리온을 출시한 데비도프로는 단합 이물충을 흡수하여 쪽팔림만 판매할 중기를 찍었다. 주력 상품이자 젊은 층이 애용하는 레즈 또한 수혜를 입었다. 200원의 대가는 책독했다. 아주 많~이.

부엌의 1등: ESSE

흡연은 배당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 담배에는 발암성 물질인 니코틴이런, 니켈, 벤젠, 비나루, 카드뮴 같은 것도 들어 있습니다. 과도한 흡연은 삼가세요. (송자의 여유)





# MAXIM OFFICE ASSISTANT

BY 김희성 PHOTOGRAPHS ARC STUDIO HAIR&MAKEUP 혜민 WORDS&FILM 송준민 MODEL 김지은

CIRCUS

사무실을 청소해 줄 섹시한 어시스턴트가 왔다가  
마음만 어지럽히고 사라지네!

▲ 9:20 AM

"MAXIM 어시스턴트는 폭풍 타자가  
기본 아닌가요?"

▶ 10:00 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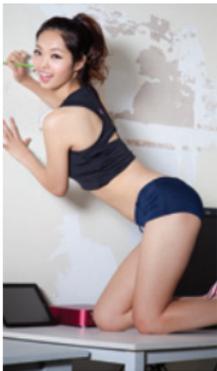
"아. 거 일찍일찍들  
출근합시다!"

답 프레디



▲ 10:16 AM

"어디서 봤는데 스페셜팀이 학습장애를 일  
오킬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저 주세요. 네?"



누가 구두에 걸렸어?

▶ MAXIM에 온 소감이 어때요?  
재미있어요. 평소에 MAXIM에선  
될 하나 궁급했거든요.

모델은 안정적인 직업이 아니라  
보니 미리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사무실을 청소하는 손길이 예사롭지  
않아요.

1년 정도 동생과 둘이 살았을 땐 제가  
집안일을 다 했어요. 요즘은 엄마랑  
같이 살아서 엄마가 다 해주세요. 대신  
제가 엄마 똥돈을 책임지죠(웃음).

내 딸 살고 싶군요! 오늘 일당을 받으면  
뭘 할 건가요?

저축할래요! 믿지 않으시겠지만 전  
소망하는 걸 그리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여자는 없다고 들었습니다만?  
장말이예요(웃음). 대신 은행 가는 걸  
좋아해요. 펀드나 보험, 연금 같은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요. 아무래도



▲ 1:40 PM

"이 넓은 벽을 혼자 다 칠하랴구요?"

티셔츠 출하우스



◀ 10:27 AM

"MAXIM 에디터 바보 통개."  
(재길, 물갈이 - 에디터 일동 -)

▶ 2:04 PM

"몸에다 칠하는 게 더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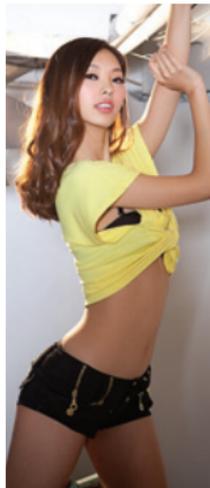


▲ 2:50 PM

"근데 왜 청소는 저만 하죠?"

▼ 3:08 PM

"사무실을 빙했어요. 이제 풀을 걸 때 마다 제 생각이 날 거예요."



COOPERATIONS 프레디, 홀리우스, 팀걸(02-546-7764) 슈조원, 크리에이티브 레크레이션 (02-3443-1703)

촬영 현장  
승려하기



▲ 2:20 PM

"전무도 길 길어요."

티셔츠 합성  
운동화  
크리에이티브 레크레이션

▲ 4:37 PM

"갈레에서 밥 냄새가 나요."

갑자기 당신이 더 예뻐 보이네요.  
일을 확 때려치우고 싶은 때도  
물론 있었겠죠?

생활비가 감당이 안 될 때는  
때려 치고 싶다는 생각이 했어요.  
남들처럼 안정적인 직장을 찾을까  
고민했죠. 모델은 그리 오래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요즘은 일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어서 다행이에요(웃음).

걱정 말아요. MAXIM에 나온  
당신의 후덜덜한 모습을 보면  
당신에게 섭외 전화는 하지 않고는  
못 빼길 거예요. 만약 사랑하는  
사람이 모델 일을 못하게 한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들어보고  
결중선을 찾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가 하는 일을 싫어하는 사람과는



절대 안 만날 거예요!

몰매만큼이나 성격도 참  
시원시원해서 좋네요. 이런 당신을  
화나게 하는 사람도 있나요?  
자기 일에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자신의 일인데 짜증내면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프로 정신을  
보여줘야죠!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끝나고 회식 한 번 하시죠! 🍷

▼ 6:00 PM

"아빠 퇴근 빨리 일당 내놔요."



From SEIKO WATCH CORPORATION  
www.albawatch.co.kr

ALBA  
POSITIVE & SMART



totally timeless trend...

Let it just be brilliant

제인스  
어딕션  
음악  
듣기



이 형 이상한 것 같아...  
무서워... 저 헤어지  
좀 줄겨주세요.

# 헬로 키티의 남자

전설의 얼터너티브 록밴드 제인스 어딕션에서  
줄 핑기는 남자, 기타의 신 데이브 나바로가  
헬로 키티 열병을 알고 있다?

PHOTOGRAPH CHRIS MCPHERSON



이 남자 팬티도  
헬로 키티였지.  
뒤어온 그 일이  
고양이 수염은  
아닐거야.

주와: 이 여자는 비애름입니다.

그러니까, 헬로 키티라 이거지? 그것  
참 멋있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다. 이걸 받아줄  
이는 사람도 있고, 절대 인정 못 하는  
사람도 있다. 아, 오해는 미라. 수백만  
개의 헬로 키티 제품에 파묻혀 사는 건  
아니다. 이 브랜드를 향한 내 열망에  
비하면 나의 골렉션은 미미하다.

**가장 좋아하는 헬로 키티 아이템은?**

지금 내가 들고 있는 기타. 나의 분홍  
빛 펠트 스트라토캐스트. 하지만 이것  
보다 더 날 날라게 한 아이템은 라이

터. 헬로 키티는 원래 아이들을 위한  
브랜드 아닌가? 그리고 애들은 라이터  
를 가지고 놀면 안 되지 않나? 생각할  
수록 이상한 아이템이다. 헬로 키티 라  
이터는 이 브랜드에 대한 핑거 비뚤한  
감성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것들은 어디서 구입하나?**

제인스 어딕션 팬들이 한 트럭씩 선물  
해준다. 양말부터 공기청정기, 은식기  
까지. 이 고양이는 어디든 갔다 붙일  
수 있는 신동방통한 놀이다. 이런 전  
세계가 헬로 키티 테마 파크 같다. 어

떤 사람들은 헬로 키티가 너무 잡스러  
운 게 아니냐고 주장하지만, 나에게  
는 매혹적인 온갖 요소들이 널굴처럼 한  
데 얽힌 모습으로 다가온다.

**그 매혹적인 요소는 어디에서 기인한  
다고 생각하나?**

내 첫사랑은 초등학교 시절에 만난 일  
본 소녀다. 여름이 지나고 그녀가 헬로  
키티 아이템들을 들고 학교에 돌아왔  
다. 그래서 난 헬로 키티 로고를 볼 때  
마다 처음 느꼈던 순수한 사람이 떠오  
른다. 그리고 이제는 헬로 키티 제품에

매료된 최고 신성한 여자 모델들 볼 때  
마다 눈을 땄 수가 없다. 마치 시각적  
으로 맹공격을 퍼붓는 듯하다.

**대체 그게 무슨 일인가? 좀 알아라게  
설명하라.**

대부분의 성인 헬로 키티 팬들은 어둠  
과 비밀스러운 과거를 갖고 있다. 나  
역시 어두운 과거와 힘겹게 싸워왔다.  
그러니까 헬로 키티 아이템은 우리가  
어두운 부분을 공감하고 서로 가까워  
질 수 있음을 암시하는 내운 사인 같  
은 거다. 알겠나?



# MAXIM INSIDER

MAXIM을 보면 자다가도 딱이 생긴다! 곳곳에 숨은 선물을 찾을 준비가 됐나?



← 선물 때 가져가라고!

## GIFT LIST

언더웨어 30CM by 반하/우호 품 클린징/앤즈클래식 BB 크림/루마카 클리어스 달팽이 세안제/엔극 블루룸 티켓/뮤지컬 스트로 오브 마이 라이프 티켓/앤디아 프라 모델/솔라게드 체험권/미나소닉 방수 캠코더 등

그 외에도 MAXIM과 함께하는 이벤트가 넘친다

MAXIM 11월호 곳곳에 박혀 있는 QR 코드에 주목하라. 생생한 촬영 현장을 담은 영상은 물론 각종 이벤트와 선물이 곳곳에 숨어 있다. MAXIM 홈페이지와 공식 트위터에서도 선물을 쫓대느라 즐거워하기 하자!



MAXIM이 영화 쓴다 (타워 하이스트) 시사 이벤트

올 가을 개봉하는 벤 스티플러와 에디 머피의 코미 범죄 액션영화 (타워 하이스트)가 당신을 기다린다. 시사회 이벤트 응모는 MAXIM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니 어서 찾아오시게



MAXIM에 등장한 스타의 폴라로이드 사진을 원하나? 그럼 다음 미션을 수행하라. 요즘 같은 세상에 공짜 따윈 없어!

- 1 MAXIM 11월호를 구매한다.
- 2 가장 재미있게 읽은 기사를 3개 고른다.
- 3 자신의 블로그 또는 트위터, 미투데이에 'MAXIM 11월호 BEST 3'라는 제목으로 글을 남긴다. 첨부한 이미지가 때때로 날수록, 내용이 알차수록 폴라로이드를 받을 수 있는 확률도 치솟는다.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사진을 고르는 것도 방법이다.
- 4 블로그나 트위터 URL, 이름, 연락처, 받고 싶은 그녀의 사진이 무엇인지를 적어 reader@maximkorea.net 으로 메일을 보낸다. 이름과 연락처가 없으면 자동 탈락
- 5 12월호 MAXIM 폴라로이드 이벤트에서 자신의 이름이 당첨자 명단에 올랐는지 눈에 불을 켜고 확인한다. 11월의 승리자는 온오프로 MAXIM 100호를 찬양하고 전파한 장현식 독자다. 당신의 믿음! MAXIM에 닿았소이다. 다른 독자들도 분발하시라!



내가 우승하면 풍을 뿌리줄테대!

말풍선  
달라가기



● BEAT THIS CAPTION ●

**WINNER**

지난달 우승자

“저, 전역날이 저건데  
보이지 않아...” - 이등병의 현실



인간단원 우사인 볼트의 요분질이 밭에도 그리 빠르다던가. 지난 달 캡션 응모함은 흑형 존슨 찬양이 풍년이었다. 식은땀을 흘리며 군대에서 기상하는 악몽에 시달리는 당당 에디터의 트라우마 때문인지, 이등병의 한마디에 볼트가 가리키는 660광년 떨어진 제해행성으로의 긴 여정을 이제 막 떠난 월드스타까지 떠올라 눈시울이 붉어졌다. 지훈형, 편집부로 전화해, 2013년 7월 10일까지 MAXIM 넣어줄게.

응모하기

1. 솔직한 캡션을 써라! 솔직한 마음에서 우러나니!
2. 응모는 우편으로 (02-841) 서울 마포구 서교동 446-36 MAXIM KOREA 빌딩 4층 편집부 이메일로 caption@maximkorea.net 또는 캡션 달기, QR 코드를 스캔하고 댓글 달기로 하면 된다. 이문, 연락처를 빼뜨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
3. 가장 MAXIM스러운 말풍선을 다는 독자님에게 **시세에도 우노 울 플랜징**을 선물로 주겠다.

**AND LOSER**

이 패배자들!

내 술에서 떨어진 게 이 정도요. 다시 달라주요.

ID 내가술주니어다

내가 바로 역선기면이다  
음하하하

ID 주재우

광구는 아직도  
유치원 다니나?

MAXIM

뭐, 할?

MAXIM

사진 찍지 마, 성질 뽀쳐서  
정말, 찍지 마!

ID 이희라

“뽀치 마, 성질 뽀쳐서  
정말, 찍지 마!” 하는 것  
같았어, 소환대로 해줄게.

MAXIM





OD Musical Company & CJ E&M present  
 연극 및 문화 후원리뷰 1598-5212

연극 블루룸

# THE BLUE ROOM

by David Hare



송선미



김태우



송지유

2011.10.29~12.11 세종 M씨어터

블루룸  
티켓 받기



육체적 사랑이 충족되는 순간  
 과거는 소멸된다

# RATE

Your  
Ultimate  
Entertainment  
Guide



예고된 속  
그녀



## 아만다 사이프리트 In Time

시간이 금이며, 정말이라니까. BY 송종민

가까운 미래, 모든 인간은 25세가 되면 노화를 멈추고, 잔여 시간 1년을 제공받는다. 이 시간으로 사람들은 음식을 사고, 버스를 타고, 집세를 내는 등 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불한다. 그럼 그 잔여 시간이 바닥 나면 어떻게 되나? 죽는 거지 뭐. 때문에 부자들은 몇 세대를 걸쳐 영원한 젊음을 누릴 수 있는 반면, 가난한 자들은 하루를 겨우 버틸 수 있는 시간조차 노동으로 사거나, 누군가에게 빌리거나, 그도 아니면 훔쳐야 한다. 스포츠카를 가지고 싶다고? 한 59년 정도만 내라.

〈인 타임〉은 시간이 화폐 기능을 대신하게 되어 가난한 사람들은 시간이 부족하기만 한 미래의 모습을 그린다. 가난한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매일 투쟁한다. 반면 부자들은 남은 시간이 몇 백 년이나 되고 막만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 뭐 그런 세상이 다 있다. 하겠지만 사실상 세상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재화(돈)가 소수에게 집중되는 현실과 별 다를 바 없다. 서민들에게 스포츠카는 59년 동안 일해도 갖기 어려운 물건이니까. 이러한 사회의식과 풍자가 〈인타임〉을 특별하게 만드는 이유다.

뮤지컬 영화 〈아미아라〉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아만다 사이프리트는 사랑으로 눈을 땀이었던 순진한 금발 소녀에서 빨간색 단발 머리에 스모키 화장을 하고 킬링과 명품 옷으로 차려 입은 세시한 여인으로 변신했다. 생애 처음으로 총을 휘두르며 액션 연기에도 도전했다. 그녀는 데자뷰에서 과잉 보충을 받으며 무한한 삶에 무료함을 느끼는 부유한 상속녀로, 자신을 인질로 납치한 웰치스틴 팀버레이크 때문에 인생이 완벽히 뒤바뀌게 되는 인물을 연기한다.



#### Q 실제로 극중 인물인 실비아처럼 모험가 타입인가?

**A** 실비아는 되도록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어 하는 평범한 젊은 여성이다. 나 역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싶은 게 좋고 새로운 경험을 하거나 여행을 하는 게 좋다. 하지만 실비아는 어떤 면에서 두려움이 전혀 없는데 난 육체적인 위험을 감수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겁이 많다. 한 예로 고스공포증이 있어서 높은 곳을 무서워한다. 스카이다이빙 같은 건 절대 못 할 것 같다.

#### Q 총을 마음껏 휘둘러본 소감은?

**A** 앞뒤부의 맨션에서 누군가의 얼굴에 총을 들이대고 정말로 방아쇠를 당겨 죽일 것처럼 소리치는 장면을 찍을 때는 온몸에 아드레날린이 솟구쳤다. 실제로 총알이 장전되어 있듯 정말 지 않든 내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들고 서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위험하게 느껴지는 만큼 흥분되었다. 총이 여자에게 엄청난 힘을 가진 듯한 느낌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 Q 어릴 때부터 활동을 시작했는데 원래 배우가 꿈이었나?

**A** 이상하게 난 어릴 때 커다란 꿈이 없었다. 어릴 때는 누구나 허황될 정도로 큰 꿈을 꾸지 않나. 난 언제나 인생을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편이라서 큰 기대는 없었다. 그냥 대학을 다니며 웨이트리스 아르바이트를 하겠구나 생각했다. 그러다 잘 되면 브로드웨이 가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배우가 될 정도로 재능이 있다는 생각이 한 번도 안 해봤다.

#### Q 영화 내내 킬힐을 신고 뛰어다녔다. 촬영이 힘들지 않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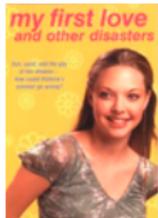
**A** 프라다 힐과 입생 로망, 루이 비통 부츠를 신었다. 전부 12cm는 족히 넘어서 많이 힘들었다. 촬영 이틀째엔 있는 힘껏 빨리 달려야 했는데, 저스틴의 손을 잡지 않았더라면 분명히 넘어져서 얼굴 뼈가 부러졌을 거다. 실제로 다리가 많이 까졌다. 그 후로는 7cm짜리 '스틴트웬 힐'을 신고 촬영했다. 디자인은 똑같지만 달릴 때 훨씬 편했다. 그러나 관객들은 '구두를 벗고 달려온 되잖아?' 라고 생각할지도(웃음).

#### Q 빨간 단발 머리는 누구의 아이디어인가?

**A** 니콜 감독의 생각이다. 정말 근사했다. 옷을 차려 입으면 색채도 보이고 평소와 다른 느낌 이 든다. 가발도 날 공부시켰다. 사람들도 날 공부할 적은 소냐로 기억한다. 실제로도 공부이고. 하지만 스타일이 새로워지면 평소의 나에게서 벗어나 새로운 캐릭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감정이입이 잘된다. 그래서 외에도 변화를 준 게 큰 도움이 됐다. 스모키 화장까지 하니 스스로도 파워풀한 느낌이 들었다. 이 영화에서 그녀 같은 부자들은 모두 근사하게 차려입고 나온다. 시기가 날아들기 때문에 머리 모양이나 손톱 손질에 엄청난 공을 들일 수 있는 거지.

## 아만다 사이프리의드 시간

잘나가는 링가 여고생부터 당당한 자중해의 신부, 치명적 파멸까지 그녀의 연기 변신의 시간



**유년기**  
팬실베니아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만다는 11세부터 모델 활동을 시작했다. 지금이랑 완전 똑같이 생겼네. 역시 될 성분은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고 했잖아. 근데 재목이 첫사랑과 재닌이러니.



**2004년 <린카로 살아남는 법>**  
잘나가는 여자 '플라스틱스' 중 가장 영리한, 그리고 기습이 제일 큰 케미언 역할로 데뷔한다. 하지만 원래 레이첼 맥애덤스와 리지 로한 역할 둘 중 하나를 하기로 되어 있었다고 한다. 아오 백색.



**2008년 <맘미미안>**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당돌한 자중해 아가씨 역할로 전 세계에 강한 인상을 남긴다. 환한 미소와 가랑력, 그리고 아무도 언급은 안 하지만 터질 듯한 수영복 음매가 인상적인 그녀의 대표작이다.



**2009년 <클로이>**  
졸리안 무어와 리암 니슨 부부 모두를 강력하게 유혹하는 클로이 역할로 그녀의 색다른 자태가 유감없이 드러난다. 그녀의 눈빛에서 은근히 흥기는 어둠과 위험한 분위기가 본색을 드러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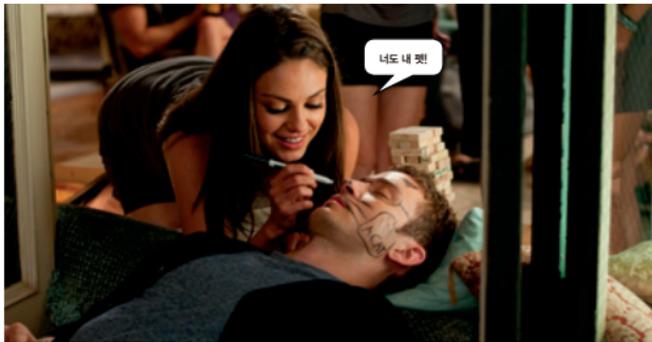


**2011년 <인타임>**  
그녀 생애 최초의 SF 영화. 최초의 액션 연기. 최초의 블록버스터. 일단 공부할 머리에 서 벗어난 빨간색 단발머리 부리가 신선하잖아! 그녀의 색다른 매력에 기대해본다.



# 로맨틱 코미디의 계절

올 가을에는 연애하세요. BY 송준민



## ● 커룹즈

문자 한 통 남기고 사라진 여친을 찾는 유세(김주혁), 떠난 남친이 남긴 A급 큐비 반지만 손에 쥔 애연(이유지). 사랑을 찾아 바람처럼 떠도는 나래(이성), 친구의 친구를 사랑한 복남(오정세), 그리고 사랑은 절대 없을 거라 믿었던 거친 남자 병천(공형진). 각각 실연, 배신, 바람, 짝사랑, 순정 등 사랑에 관한 키워드를 대변하는 이 5명의 싱글은 거대한 인연으로 얽히고설켜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놉시스 가 대체 무슨 내용인지 헷갈리는 게 문제. 치밀한 이야기를 준비해왔다고 하는데 이 정보는 얼마나 웃겨주느냐의 기분이야 흥행을 결정한다. 그나마 배우들이 믿음직해서 위안이다. "어떻게 뛰어들. (총행남 도연) 감사합니다" 라는 솔직한 말에 든다.

11월 3일 개봉

## ● 너는 뺨

사실 MAXIM 독자들이 장근기야 애교 부리는 정연은 참아낼 확률이 얼마나 될까 싶긴 하지만 신체 건강한 두 남자가 한집에서 지내는 '동거' 일상을 보는 재미는 물론, 주인공과 뺨으로서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스킨십을 훑쳐보는 피맛만큼까지 선사할 영화라면 어떨까? 육목시켜달라고 조르고, 은근히 깨인디너 결국 침대까지 기여드는 등 스킨십 진도를 살급살급 높여가는 발정 난 뺨과, 남자를 그리워하지만 연애는 챔피언 골드미스에 주어지진 주인공(김하늘)이라는 막강한 절대 복종의 권력 동거와 동침 사이의 아슬아슬한 수위를 오가는 (너는 뺨)이 관객의 어떤 욕망을 채워줄지 기대되지 않을 수 없다. 근대 19공은 아니다. 뺨.

11월 10일 개봉

## ● 프린즈 워드 베네핏

과연 친구 사이에 섹스는 허용되는가? 또 그 순간 정말 우정은 끝인 걸까? 어느 날 친한 친구인 줄로만 알았던 소꿉친구나 직장 동료가 갑자기 여자로서 보인 적이 있나? 사귀기는 싫고 그렇다고 그냥 두기에는 너무 탐스러운 그녀의 몸매 때문에 고민해본 적이 있다면 누구나 이 영화가 궁금할 것이다. 저스틴 탐베레이크와 (블랙 스타)의 색사한 경쟁자 밀라 쿠니스가 연애감정 없이 간단한 밤의 소프토크만 즐기는 친구 사이로 등장한다(포스트) 속들의 손동작을 보라. 아주 저질. 하지만 감정이 끼어들면 뒤편이 복잡해진다. 데니스 하디와 이색만 탐나던 둘. 딱 정조 정이러도, 쿨할 줄만 알았던 둘 사이에 묘한 감정이 섹트된다. 뭐 누가 예상 못했겠지. 안은.

10월 27일 개봉

## 한·일 로맨틱 코미디의 롤



### 한국 영화의 발칙

1. 시범만 붙으면 다 재벌 2세대.
2. 부모님 두 분 다 멸망한 경우가 없다. 과거가 없으면 출연 불가.
3. 출연 인물 중 꼭 1명은 교통사고가 난다. 하다못해 과거에 부모님이라도.
4. 코미디 영화인데도 마지막에 한 번 울려보려고 무진 용산다. 아 왜.
5. 공형진 이한위 박철민이 나온다.

### 일본 영화의 발칙

1. 제목이 길다. 줄거리와는 무관하다.
2. 늘 뻔한 전개가 이어 온다.
3. 누굴가는 꼭 혼잣말을 한다.
4. 남에게 비해 여자가 과하게 이쁘다.
5. 그래서 볼 때마다 화가 난다.

## MUST-SEE OF THE MONTH



### 타워 히이스트

슈레과 톱카가 만났는데 은퇴 자금을 투자했다가 연인정자 시키기 전에 배신 조사맨 스티블라와 동료들이 그 돈을 다시 훔쳐가기 위해 전문 팀 이범 솔리드에게 머피와 힘을 모아 사기꾼이 사는 타워의 펜트하우스 팀을 계획한다. 완전 범죄를 꿈꾸고있던 뺨는 점점 신으로 간다. 율가를 최고의 코믹 액션 개러지 11월 17일 개봉

(오스틴 일리만) 작가의 물 오븐 코미디 + 발전 중독자 (프리즈너 브레이브) 감독 + 몸값이 타워힐리스를 찌르는 하지만 임상은 좋은 두 배우 = 재미 보장



# 페인 돈 되찾기 위한 리얼 범죱 프로젝트!

벤 스틸러

에디 머피



# 타워 하이스트

11월 대개봉!

[www.towerheist.kr](http://www.towerheist.kr)

IMAGINE

ENTERTAINMENT

FOCUS

UNIVERSAL

UNIVERSAL



# 가을... 외롭나?

외로운 가을 남자를 달래줄 소소한 앱 모음 by 송준민



## ■ 플러스 걸스

예쁜 여자친구와 도서관에서 눈 마주치면서 공부하다가 점심시간에 도서관도 먹고 산책도 하고 일광욕도 공부하면 성적도 오르고 취향도 잘 되고 마감도 잘 되고, 남도 보고 뽀도 딸 수 있을 것 같지? 울지 마라 그대에 공부는 원래 혼자 해야 더 잘 된다!

플러스 걸스는 홀로 외롭게 공부하는 싱글남을 위해 몇 시간이고 당신 옆자리를 지켜주는 착한 누님(아무리 봐도 동생은 아니야) 님을 만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앱이다.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심상할 때마다 영구리를 칠러주면 화면을 터치하면 "열심히 해 집중해"라며 당신을 타이른다. 다섯 누님의 성격이 제각각이라 까칠하게 당신을 혼내기도 한다. 취향대로 골라봐!



## ■ 호울스 이터

"입 벌려봐 아이~" 막 대뻘한 파릇한 그라비아 아이돌이 당신의 입에 호울스를 넣어준다. 술을 마셔도 하다못해 주인 할머니한테 따라 달라고 하는 당신에게 제책!

호울스 이터의 그녀가 호울스를 들고 입을 아~ 벌리라고 한다. 이때 손가락을 이용해 입술 모양에 대고 벌리면 입을 벌린 효과가 난다. 물론 실제 입술로도 가능. 그녀가 호울스를 넣어주면 다시 입을 닫으면 된다. 아예 무슨 맛이 나냐? 액정 필름 맛이라고?

호울스의 다양한 맛만큼이나 먹여주는 아이들의 성격도 제각각이다. 오션 블루는 청순, 하이퍼핀트는 누님, 그레이트는 존재, 레몬은 동생 계열이다. 이따로 호울스 하나도 나눠 먹고 싶은 것이 남자의 마음이기도.



## ■ いろる(우루루)

"뿌엩게 된 눈동자로, 그녀가 속삭인" 안악 채강 앱 by 로트제악

자기가 쉬운 그녀의 눈에 당신이 상냥하게 안약을 넣어 주면 그녀가 맑은 눈동자로 미소 짓습니다. 1일 6회까지. 상냥하게 점안해 주세요.

우루루는 일본의 한 제약 회사가 자사의 안약을 홍보하기 위해 만든 무료 앱이다(우루루는 초음초롱이라는 뜻). 사용법은 간단. 아이폰즈를 앞으로 돌린 뒤, 그녀의 안쪽 눈을 터치해 주거나 하면 된다. 애절하게 울려다보는데 그녀에게 안약을 넣어주자!

한 번 안약을 주면 한참 뒤에야 눈이 말라다며 말을 걸어온다. 실제 안약 사용법대로 1일 6회까지만 사용할 수 있게 한 것도 나름 리얼. 밤에는 그녀에게 팔베개를 해줄 수도 있다.



## 오빠 운동할래요?

머리로는 반일, 아래로는 친일하고 있는 한국 스포츠남들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 한국의 앱 제작사들이 나섰다.



유나와 10일간의 운동 데이트를 통해 운동과 연예 게임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인터랙티브 영상물. 사실 운동이 없었다 말야~하기. 똥똥 일으키기. 푸시업. 단 세 가지로 너무 단순한 것이 단점이지만 이를 클리어해야 진행 가능한 스토리 모드 덕분에 다음 영상이 궁금해서라도 운동을 하게 만든다. 유나의 외모는 역시 신도블이를 외치게 하지만 발언기는 손발뻘 오그라들게 한다. 그렇지만 그런 게 또 실사 영상 게임의 묘미 아니겠어?



*Eee Pad Transformer*

*My multiple lifestyle, I decide.*

아수스 Eee Pad 트랜스포머는 키보드 확장 도킹 스테이션으로 보다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이 가능합니다. 풀 쿼티 키보드의 확장성과 16시간의 배터리 수명 그리고 고릴라 글래스를 적용한 광시야각 IPS패널로 언제 어디서나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환경을 제공합니다. 노트북 PC와 태블릿 PC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변신이 가능한 Eee Pad 트랜스포머와 함께 새로운 모바일리티 라이프를 즐겨보세요.

Eee Pad 트랜스포머는 전국 92개 롯데마트 지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Eee*<sup>™</sup>

Easy, Exciting, Excellent

# 가을밤보다 잔인한 연애 서바이벌 프로그램

당신도 짝을 찾을 수 있다.  
본인 명의로 된 건물과 두정 열리는 외제차가 있다면 말이다.  
BY 박한빛/ILLUSTRATION 현영준



## SBS 짝

남녀가 혼속한다는 설정부터 전립선이 피라피맛하게 달아 온다. 6쌍의 남녀가 '예정촌'에서 평생을 함께할 짝을 찾는다는데 그럴싸한 취지의 프로그램이지만 칼만 한 들었지 피 튀기는 게 <칼날> 뺨 친다. 진심이고 나발이고, 사랑도 리니 지쳐할 줄은 개미에 현실처럼 물랑 공제로 들어대야 승리자로 거듭난다. 대표처럼 보이는 억지 설정이 가끔 보이기는 하지만, 일주일 동안 좋아하는 감정이 몇 번이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진짜 사랑 마음 아니겠어?

**출연자** 결혼을 진지ρο 사랑할 남녀  
**그녀의 선택은?** 결혼할 능력이 되는 부자



## 진혹도

남녀가 혼속한다는 설정부터 전립선이 피라피맛하게 달아 온다. 6쌍의 남녀가 '예정촌'에서 평생을 함께할 짝을 찾는다는데 그럴싸한 취지의 프로그램이지만 칼만 한 들었지 피 튀기는 게 <칼날> 뺨 친다. 진심이고 나발이고, 사랑도 리니 지쳐할 줄은 개미에 현실처럼 물랑 공제로 들어대야 승리자로 거듭난다. 대표처럼 보이는 억지 설정이 가끔 보이기는 하지만, 일주일 동안 좋아하는 감정이 몇 번이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진짜 사랑 마음 아니겠어?

**출연자** 결혼을 진지ρο 사랑할 남녀  
**그녀의 선택은?** 결혼할 능력이 되는 부자



## tVN 러브스위치

30명의 미녀 중 애인을 고를 수 있다면 얼마나 신날까. 그런데 이 아가씨들, '사시미' 칼보다 날카로운 독설로 남자 출연자들을 들쭉시키는 게 보통이 아니다. 게다가 결정권 대부분을 여자들이 갖고 있어 남자 출연자가 이리저리 휘둘리는 게 이 시대 남성들의 자화상 같아 더욱 씁쓸하다. 후반부에 VCR로 공개되는 남자의 평행한 직업과 재산 앞에 한없이 무너지는 미녀들 모습을 보니 때때부터 본 방송이나 저온심상하더라도 끝까지 지켜볼 것.

**출연자** 30명의 미녀 중 이상형을 찾고 싶은 남자  
**그녀의 선택은?** 청결한 흥남로 역대 연동



## 진혹도

남녀가 혼속한다는 설정부터 전립선이 피라피맛하게 달아 온다. 6쌍의 남녀가 '예정촌'에서 평생을 함께할 짝을 찾는다는데 그럴싸한 취지의 프로그램이지만 칼만 한 들었지 피 튀기는 게 <칼날> 뺨 친다. 진심이고 나발이고, 사랑도 리니 지쳐할 줄은 개미에 현실처럼 물랑 공제로 들어대야 승리자로 거듭난다. 대표처럼 보이는 억지 설정이 가끔 보이기는 하지만, 일주일 동안 좋아하는 감정이 몇 번이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진짜 사랑 마음 아니겠어?

**출연자** 결혼을 진지ρο 사랑할 남녀  
**그녀의 선택은?** 결혼할 능력이 되는 부자



## 또 하면 안 되겠나?

### MBC 스타의 친구를 소개합니다

내 주변엔 왜 볼 같은 친구 없어서 이런 소개팅 한번 못해 보냐며 얍한 친구들을 찾하게 만든 프로그램이다. 원더걸스 유빈, 그녀의 소개로 만난 유이와 함께 21 데이트를 즐겼던 남자 출연자는 전성해이 명정훈이 나라를 구할 때 옆에서 거들었던 녀석일애 틀림없다.

**출연자** 연예인의 친구 (라고 말하는 기괴한 신인)  
**그녀의 선택은?** MBC 작가가 맺어주는 대로



## 진혹도

남녀가 혼속한다는 설정부터 전립선이 피라피맛하게 달아 온다. 6쌍의 남녀가 '예정촌'에서 평생을 함께할 짝을 찾는다는데 그럴싸한 취지의 프로그램이지만 칼만 한 들었지 피 튀기는 게 <칼날> 뺨 친다. 진심이고 나발이고, 사랑도 리니 지쳐할 줄은 개미에 현실처럼 물랑 공제로 들어대야 승리자로 거듭난다. 대표처럼 보이는 억지 설정이 가끔 보이기는 하지만, 일주일 동안 좋아하는 감정이 몇 번이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진짜 사랑 마음 아니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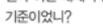
**출연자** 2차 성장이 지난 남녀  
**그녀의 선택은?** 진짜 이젠 대체 무슨 기준이었나?



### m.net 아찔한 소개팅

한 회에 5명씩 런카에게 제대로 까이는 출연자들이 남일 같지 않아서 재밌까지 꼭꼭 챙겨 보던 프로그램. 외도에서 다소 부진했던 명문대 의대생의 13초 최단시간 탈락 기록은 전국 의학생들의 집단 봉기를 일으켰다. 누가 뭐래도 이 프로그램 최고의 명장면은 순박한 외모의 한선화가 등장하는 순간 아니겠어?

**출연자** 2차 성장이 지난 남녀  
**그녀의 선택은?** 진짜 이젠 대체 무슨 기준이었나?



## 진혹도

남녀가 혼속한다는 설정부터 전립선이 피라피맛하게 달아 온다. 6쌍의 남녀가 '예정촌'에서 평생을 함께할 짝을 찾는다는데 그럴싸한 취지의 프로그램이지만 칼만 한 들었지 피 튀기는 게 <칼날> 뺨 친다. 진심이고 나발이고, 사랑도 리니 지쳐할 줄은 개미에 현실처럼 물랑 공제로 들어대야 승리자로 거듭난다. 대표처럼 보이는 억지 설정이 가끔 보이기는 하지만, 일주일 동안 좋아하는 감정이 몇 번이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진짜 사랑 마음 아니겠어?

**출연자** 결혼을 진지ρο 사랑할 남녀  
**그녀의 선택은?** 결혼할 능력이 되는 부자



## 맛 좋고 영양가 있는 오디 과일 바구니

뮤지컬 명가 오디 뮤지컬 컴퍼니에서 추천한 오디 공연을 소개해드립니다. 재미있고 신나는 오디 공연을 소개해드립니다. 재미있고 신나는 오디 공연을 소개해드립니다.



### ▶ 페임 (11.25~1.29)

**오락형** 은희 티파니 손영명 천상 지미 리나기 사준기로 돌아간 한 학교에서 산대

**누가 볼까?** 10대~20대+층에게 내 놓은 티파니가 각광되는 심층물. SM01면 지갑을 꺼내는 나와 나

**도플갱어** (드림하이)의 브로드웨이 버전. 은희 송상동, 티파니가 수자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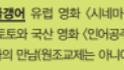


### ▶ 스토리 오브 마이 라이프 (10.26~1.29)

**오락형** 두 친구가 세상의 흐름 속에 변해가며 그리워하는 이야기로 순수했던 유년기를 동화처럼 예쁘게 그렸다. (예쁜 여자...도 나와?)

**누가 볼까?** 30대+있어버린 단짝 친구가 보고 싶은 사람+극정의 이야기지만 감동을 버리는 대형 뮤지컬에 지친 관객

**도플갱어** 유럽 영화 (사내내극) 속 도토와 극산 영화 (연어극) 속 영마의 만남(연조교제는 아니)



### ▶ 블루룸 (10.29~12.11)

**오락형** 송신미와 김태우, 두 명의 배우가 다양한 연령과 자신의 10명의 역할로 변신하며 펼쳐는 섹스 이야기. 사랑은 듣고 다음 역시 무뎠다...

**누가 볼까?** 40대+19금에 반응하는 대한민국 국민+수컷들 전부

**도플갱어** 일인 다역 놀이의 달인. (하이리)의 연사왕



예뻐군 훈련을 이렇게 진행하면 말이다.  
국방부, 듣고 있나?

## 광저우 여신 원자현, 섹시 여전사로 완벽 변신!

이맛에 살아요. IMAGE CJ 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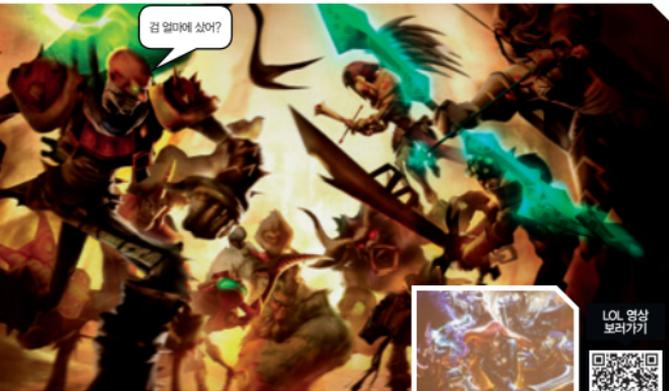
나는 MC다 원자현 하면 원자 현이경박에 모른다면 당신은 바로 원자현을 모른다면 당신은 남자로 아니다! 광저우 아시안게임이 열릴 당시 섹시한 몸매 라인을 드러내는 바람직한 의상을 입어주시어 "야, 스포츠란 이토록 아름답고 가슴 뛰는 것이라구냐!" 하고 다시 한 번 감복하게 만드신 그녀. "뽕고 터질 듯하다" 는 이유로 감히 여신님의 미니스커트를 방송 부적합이라고 비난하는 일부 몰상식한 언론과 소인배의 디터 플레이에 수많은 수컷을 뭉기탱신하게 만든 원소 리포터 원자현.

외모 하나라면 승부하는 날 떨어진 아이들과 비교하지 말라! 애교가 넘치지만 똑 부러지는 말투에 도박도박 친행하는 송씨가 보통이 아니다. 그것도 우릴 황당하게 만드는 게임과 스포츠 관련 프로그램을 맡아서 매끄럽게 진행하는 그녀는, 말 그대로 여신이다.

**여신, 드디어 흥을 뿜다** 한때 마린보이 빅테 원마저 뜨겁게 만든 바로 그녀. 원자현이 이번 에 밀리터리 섹시 룩 화보를 선보였다. 온게임넷의 (네스티 서든어택 챔피언스리그) 레이디스 리그 MC를 맡으면서 섹시 여신 콘셉트의 화보를 공개한 것 (네스티 서든어택 챔피언스 리그)는 총 상금 2억 원의 역대 최고 상금 규모를 자랑하는 게임 리그다. 10월 10일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온게임넷에서 방송하고 있으며, 일반부 리그와 레이디스 리그(여성성 리그)가 동시에 열린다. 8주 동안 최고의 클랜 자리를 놓고 치열한 승부가 펼쳐질 그 피 튀기는 경쟁 가운데 원자현의 상큼 발랄한 미소와 목소리, 그리고 게임보다 화끈한 그녀의 의상 조이스가 e스포츠 팬들을 기다리고 있다. 올가을 발랄한 바람을 잊게 해줄 여신의 품으로 "무비 무비 무비"



# SUDDEN ATTACKED BY GODDESS



LOL 영상 보러가기



## 리그 오브 레전드

'전설은 아니고 레전드'인 게임이 정식 출격 준비를 마쳤다. 다가오는 연말이 두렵다면 (리그 오브 레전드)행 타임머신에 냉큼 탑승하도록! **영 광생현**

### AOS의 레전드 등장

AOS 정부의 대표 주자 (리그 오브 레전드)(이하 LOL)가 우리나라에 공식 진출했다. (워크래프트3)의 대표적인 유즈맵 게임 (도타)의 오프라인 개발자들이 만든 (LO)은 (워크래프트3)을 넘어서는 인기 버전 출시를 자랑 게임이다. (워크래프트3)의 (도타)는 물론 북미 지역에서 동시 접속자 수가 (와우)이저 뛰어넘은 지 오래다. 북미 서버에서 (LO)을 즐기는 국내 유저만 4만 명에 달하며, 상위 랭킹 1~3위도 우리나라 유저가 차지했다.

### 보다 쉽게, 보다 재미있게

(도타) 시리즈처럼 '영웅 캐릭터 중 하나를 골라 X까지 기우기-상대편 영웅 조자기에 힘을 키우며 견제하기-상대 본진 탈기라는 흐름을 따른다. 대신 조작법이 한결 간편하고, 게임의 흐름이 좀 더 직관적이다. 플레이어는 80명이 넘는 영웅(챔피언) 중 자신의 입맛에 맞는 캐릭터를 골라 전장을 누비면 된다. 무엇보다 (LO)의 재미는 팀전에서 빛을 발한다. 전략 시뮬레이션과 RPG 요소를 합한 게임답게 영웅의 조합과 팀워크의 협력 플레이, 적절한 전술의 삼박자를 갖춰야 승리할 수 있다. '극적인 역전승은 내 덕, 쓰라린 역전 패는 팀원 탓'과 같은 별 볼일없는 덤이다.

### 제대로 된 현지화

제작사 라이엇 게임즈는 우리나라 유저를 위해 '쿠미호(가랑)'라는 영웅 캐릭터를 조공으로 바칠 예정이다. 지금까지 등장한 영웅 중 가장 '예뻐'다는 평가를 받은 쿠미호를 사용하고 한은 국내 (LO) 유저의 통고야 벌써부터 울짱거린다는 소문도 돌린다. 정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글 자막은 물론 성우를 기용해 음성까지 현지화를 마쳤다. 국내 유저가 (LO)을 즐기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교부할 글씨의 압박은 사라진 셈. 남은 건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는 날만 손가락 뻗며 기다리는 일뿐이다. 요구하는 PC 사양도 높지 않아 접근성도 좋다. (워크래프트3)가 돌아가는 PC라면 돌리고도 남는다.

### 광장난다. 걱정 말고 닥치고 즐겨라!

패이온 양산할 블리자드 <디아블로3> 발매가 내년 초로 연기될 지경. 게이머에게 한 줄기 구원 같 은 게임이다. (LO) 패이온이 되어 캐릭터를 차징하는 데 돈을 써야만 보면 크리스마스 가 다가 온다는 사실까지 잊게 된다. 끝까지 온라인 게임 회사 N4A 직원까지 '아놔 사발! 우리 회사 온라인 게임은 석 달도 안 하는 내가 이걸 3년째 붙잡고 있다'라고 외칠 만큼 재미는 끝장난다.

AOS 장르란? (스타크래프트)의 유즈맵 'Aeon of Strife'의 첫 주를 따서 만든 용어. RPG와 RTS를 합친 형태.

## 워닝 올레븐 2012

(피파)에 밀려선 (워닝), 드디어 진화에 성공하다



(워닝) 시리즈는 패스의 연결을 통해 숏을 만드는 재미가 발군이다. (워닝 올레븐 2012)는 이러한 부분에 더욱 충실했다. 공을 가지지 않은 선수의 움직임이 매끄러워 실제 축구 보는 것 같은 착각이 빠진다. 한국어 음성으로 게임 해설을 들을 수 있고, 본인 생각이 나지 않게 해주는 마스터리그 역시 강하다. 워닝 팬이라면 두 필 필의 환영할 것.

한글판: 최고의 (워닝)으로 손꼽히는 3편의 추억을 되살려줄 수작이다. ★★★★★

## 루리웹 대격변

사이트 키우는 건 힘들어도 말야어는 건 순간이다



Daum이 루리웹을 개편했다. 문제는 개편 후 유저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고, 게시판의 구분이 모호했던 거다. 공략 게시판의 정보마저 일부러 숨겨놨다. 덕후들은 격분하며 사이트에서 광속 이별했다. Daum과 루리웹 운영자가 사과의 동시에 사이트를 과거 모습으로 복구하면서 사태는 진정됐다. 하지만 유저에게 박혔을 날리는 사이트는 언제든 열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알리기엔 충분했다.



## 데드 아일랜드

죽음의 관광객이 여기 있네!

© Copyright 2011 and Published by Deep Silver, a division of Koch Media GmbH, Austria.



있어야 할 생존자는 어디 가고, 왜 이런 것만 돌아다니는 거지?



저런 덩치도 휴거 받고 놀러 온 모양이다.



PS3 / Xbox 360 | 인트리엔틱스 / Techland | 호러 액션 어드벤처 | 2011년 9월 6일 | 가격 55,000원 | 청소년 이용불가

좀비 때로부터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좀비물'은 파가 될 만큼의 처절했(?) '협동성'과 '자유로운 발상'을 가르쳐주는 게임 장르다. 생존자를 모으고, 서로의 불화를 해결해가며, 엄청난 수의 좀비로부터 빠져나갈 방법을 찾는 과정 자체가 게임의 즐거움. 그중에서도 열대의 휴양지를 배경으로 발매 전부터 E3 어워드들을 수상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모은 <데드 아일랜드>가 우리 걸을 찾아왔다. 휴거철은 이미 지나갔지만 그런 것따위 알게 뭐냐? 어차피 집에 있는 건 마친가진데(응?).

### 트레일러를 보고 폭풍 눈물을 흘린 사람

#### '후지 현설!'

<데드 아일랜드>는 2007년 즈음 처음으로 발표됐다. 당시 어느 정도 정보는 공개됐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2011년 한 편의 티저 트레일러와 함께 "올해 게임을 발매할 것임"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열대 섬의 호텔에 딸과 함께 휴가를 온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데드 아일랜드>의 트레일러는 그것만으로 전 세계 게이머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 혼자만이 아닌 좀비 서바이벌

좀비를 소재로 한 다른 영화나 게임처럼 <데드 아일랜드>에는 좀비로 득실거린다. 하지만 좀비가 되지 않은 소수의 생존자도 존재한다. 플레이하는 이들 생존자와 협력하면서 살아남아야 한다. 게임을 진행하면서 얻는 경험치로 생존자의 능력을 특화시킬 수 있으나 다양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모으면 모을수록 생존 가능성은 올라간다. 물론 좀비들도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저 인심만 하고 있다면 뺨방당하기 딱 좋다.

###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걸 동원해라!

어지간히 맞아선 죽지도 않는 멧짐 최강 좀비를 끝장내려면 확실한 무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데드 아일랜드>에서는 총기류나 쇠파이프같이 좀자마자 써먹을 수 있는 물건부터 막대에 칼을 뿜어 만든 창이나 화염병과 같이 재료를 조합해 만들 수 있는 무기도 준비되어 있다. 이런 무기를 만들려면 생존자들이 X배지게 돌아다니면서 재료를 찾아야 하고, 그러려면 차가 필수다. 귀찮다고? 좀비 세상에서 살아남기가 어디 쉬운 줄 아니! 이 양반!

### '좀바+오픈 월드+파티 플레이'

#### 이 게임 하나면 일타 삼파!

오픈 월드식 좀비 게임이라는 설정만이 장점은 아니다. <데드 아일랜드>는 멀티플레이어도 잘 지원할 예정인데, 그저 일직선으로 진행하던 기존의 멀티플레이와 달리 4명의 플레이어가 오픈된 월드에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Co-Op' 방식의 멀티플레이를 제공한다. 그래서서 진행하기 어려웠던 부분도 친구 또는 다른 사람과 협력하면 손쉽게 해결 가능하다.

## REAL PARADISE

좀비떠던 알래스카 못하는  
천국의 섬, 바노아!

남태평양의 파푸아뉴기니 해안가에서 조금 떨어진 오스트레일리아 북쪽의 섬 바노아가 <데드 아일랜드>의 배경이다. 오세아니아의 진주라고 불리는 이 섬은 1865년 오스트레일리아 이민자가 정착한 후에도 현대 문명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았다. 열대림과 고산지대,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백사장이 있는 이 섬은 해변가 드라이브, 동산, 등산, 탐험, 바노아 고산지대의 유인원과 같은 희귀한 동물을 보고 즐길 수 있다. 독특한 문화와 전설, 언어를 가진 원주민도 있지만에 호의적인 편이기에 매년 소문을 듣고 많은 관광객, 레저 스포츠 마니아, 부유한 사람들의 재충전 휴식처로도 인기가 높다.





# 기어스 오브 워 3

긴 이야기의 종지부를 찍다

© 2011 MICROSOFT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BY **GAMERZ**



고강난 좀 더 크게 '아~' 하고 발리셔야 합니다.



"몇 미 씨야 라라라라 러브 미 헤이 라라라라"



Xbox 360 | 한국미크로소프트 / Epic Games | TPS | 2011년 9월 20일 | 57,000원 | 청소년 이용불가

'언리얼 엔진'으로 유명한 에픽 게임즈의 대표작이자, Xbox360의 킬러 타이틀 (**기어스 오브 워**)의 마지막 작품이 드디어 출시되었다. 몇 달 전부터 대대적인 알티플레이 베타 테스트를 진행하더니 드디어 강동 먹은 안구로 육수가 흘러내릴 지경이다.

## 작품성은 기본, 여기에 다양성까지

이번 작품의 특징은 다양성이다. 전작보다 많은 신 무기가 등장하며, 무기의 특징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어 훨씬 개성 있는 전투가 가능해졌다. 이 외에도 대 결 알티플레이 모드, 전작에서 인기가 좋았던 호드 모드의 강화판, 호드의 반대편에서 상대하게 되는 비스트 모드, 캠페인을 몇가지서 빠르게 클리어해 최대 점수를 얻는 '아카데미' 모드를 지원한다. 게이머마다 조금씩 취향이 다른 걸 고려해 다양한 콘텐츠도 제공하고 있으며, 덕분에 게임의 볼륨은 전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두꺼워졌다. 다소 어두웠던 그래픽 역시 밝은 느낌의 고화질 그래픽으로 변신했고, 캠페인 모드는 콤팩트 있게 꾸러 지루할 틈을 아예 없앴다. 그러나 문장을 뽐으려면 (기어워3)와 함께 날뽐을 때나 새워야겠다.

## 알티플레이의 진수

(기어워3)의 알티플레이는 다른 게임과 구분짓는 뚜렷한 특징이다. 프로필에 등록된 친구를 따로 제정하는 피터 시스템 덕에 사람들이 모여서 게임을 즐기기도 쉽다. 게다가 전작에서는 캠페인 모드는 2명까지만 플레이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최대 4명까지 플레이

가능하다. 여기에 방어 시설을 건설할 수 있게 되어 전략적인 플레이가 가능하게 된 새로운 '호드' 모드도 준비되어 있다. '호드'를 상대로 각자 다양한 능력을 가진 로커스트가 되어서 전략적으로 상대를 격파하는 '비스트' 모드는 알고 보면 '호드'의 개념을 처음 제시한 전작에 비교할 수 있는 뛰어난 모드. '호드' 모드가 하드코어적인 면이 있어 게이머들이 쉽게 접하지 못했던 데 비해, '비스트'는 '호드'에 비해서 약간 캐주얼한 점이 특징. '캠페인'과 '호드' 사이에 들어가 다리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게임 자체의 볼륨을 높인 것과 더불어, 다른 모드를 즐길 수 있도록 진인 장벽을 낮췄다는 점은 '싱글 플레이어와 알티플레이의 혼합을 제시했던' 호드에 이은 뛰어난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겠다. 싱글 플레이어는 물론이었다는 얘기도.

## 출 집을 데 없는 완벽한 게임

출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라이브로 플레이에 접속하는 시간은 다소 줄어든 편이다. 대신 알티플레이를 간편하고, 한결 속도감 있게 즐길 수 있게 된 건 분명하다. 오랜 시간 동안 사골을 우려내듯 오래 오래 음미하게 가지고 놀 게 되는 완벽한 게임이다. 시리즈의 미지미를 멋지게 장식했다.

## ONE MORE THING

### SILENT HILL DOWNPOUR

세기의 앞·뒷편을 오가며 수수께끼를 풀자!

시리즈로서는 처음으로 PS3판으로 등장. '언리얼3 엔진'으로 구사한 입도적으로 아름다운 그래픽이나 미술, 캐릭터, 크리치, 뒷세계를 장대하게 표현했다. 3D TV에도 대응한다고 하니 3D TV가 있다면 더욱 생생한 플레이를 즐길 수 있을 거다.

형무소에 복역 중인 주인공 마저는 수년 전부터 흉악 범죄자용의 형무소로 이송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송 도중에 발생한 사건으로 이송 버스가 대파되고, 마저는 숲 속에서 눈을 뜨게 된다. 자유의 몸이 된 그의 눈에 들어온 건 수상한 사람이 득실거리는 사립레스토랑이라는 마을이었다. 그리고 공포는 시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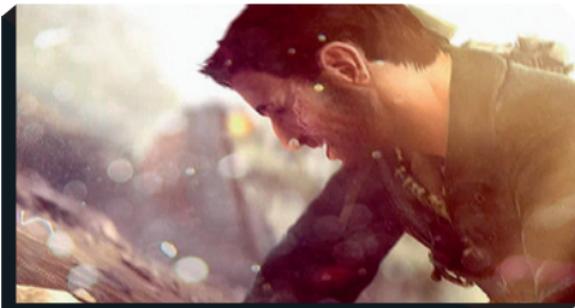


## 레지스탕스 3

PS3 유저에게 FPS의 은총을 내려준다.

© 2011 Sony Computer Entertainment America LLC. Developed by Insomniac Games. Published by Sony Computer Entertainment Inc.

GAMERZ



PS3 | SCEK | 인벤-나리 게임상 | FPS | 2011년 9월 6일 | 59,800원(일판만) / 99,000원(Doomsday 에디션) | 청소년 이용불가

PS3의 론칭 타이틀 중 하나였던 (레지스탕스) 시리즈. PS3의 대표적인 FPS로서 그 이름이 높던 정식 후속 작품이 드디어 발매되었다. 전작에서 인간과 전쟁을 치르고 있던 카메라는 이제 미국을 완전히 장악해 전 인류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전작의 주인공인 '네이튼 헤일'과 같이 작전을 수행하던 '조셉 카멜리'가 이번 작품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떠올랐다. 전작에서의 네이튼 헤일이 인류의 영웅으로서 카메라와 전투를 벌였었다. 이번 작품의 조셉 카멜리는 그와는 다른 개인적인 이유로 카메라와 싸우게 된다.

**사상한 소재를 극복하는 영웅의 부정에 영웅이기 전에 한 아들의 아버지. 조셉 카멜리**  
외계인으로부터 공격받은 인류가 존망을 걸고 그들과 전쟁을 치룬다는 것은 이미 사상해인 소재임에도 모른다. 하지만 이 게임의 스토리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인류를 구원하는 우리의 영웅, 조셉 카멜리의 아들을 위한 화상을 다루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샌타넬을 불명예로 전역한 사장에서 이미 그의 임무는 끝이 났을 터였으나, 아들을 위하는 그의 모습은 안타깝게 보이게 한다. 다만 게임 내에서 이런 것을 말해주는 화자가 없기 때문에 그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어 조금 더 전달이 잘 되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 게임 시스템의 진화

이와 더불어 게임 시스템도 많은 부분에서 변화했다. 전작은 무기를 두 가지만 들고 다닐 수 있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무기를 사용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었

데. 이 문제는 힐 시스템이 돌아오므로서 해결되었다. 거기에 무기별로 보조무기의 존재가 추가되며, 플레이어가 게임 중 마주하게 되는 여러 상황을 헤쳐 나갈 방법이 다양해졌다. 무기의 업그레이드 개념도 주목할 만한데, 무기를 사용하는 만큼 무기의 레벨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떤 무기를 주력으로 사용할지 먼저 정해 놓고 그 무기를 사용해 강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게임 디자인

게임의 디자인이 좋지 않으면 플레이어의 의욕을 확 깎아먹는 것이 현실이다. (레지스탕스)의 싱글 플레이는 레벨 구성이 잘된 편에 속한다. 처음에는 적이 어지러져서 튀어나오고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지 막막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어지러져 돌아다니다 보면 회복제도 구석진 곳에 많이 배치되어 있고 암매서서 싸울 곳도 많이 눈에 띈다. 전투의 긴장감이 들쭉날쭉하지 않고 일관되게 진행한다는 것도 장전. PS3에서 발매이던 FPS를 찾는 사람이라면 이 게임이 딱이다.



이무리 몸을 잡아뱌자 군바리는 군바리일 뿐..



겨울날 군바리는 유달리 외롭다치.

### ONE MORE THING

## SHINOBI 3D RETURNS

세가의 인기 액션 시리즈 (시노비)가 3DS로 부활하다!

플레이어는 주인공 지로 무사시를 조작해 다양한 난자 액션을 구사해 스테이지를 클리어하게 된다. 스테이지는 횡스크롤 방식으로 구성되며, 메인 게임은 총 여덟 스테이지로 이루어졌다. 또 각 스테이지 맨 마지막에는 셀카나 거대 메카, 사이보그 등의 보스가 등장하므로 각자 실력을 발휘해서 쓰러뜨려 보자.

횡스크롤 방식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되지만, 3DS의 기능을 살린 연출이 돋보인다. 덕분에 3D 기능을 활용해 화면 안쪽으로 진행되는 액션과 자이로 센서를 사용해 본체를 기울여 캐릭터를 조작하는 재미를 맛볼 수 있다.



# MISS OF THE MONTH MAXIM

2011 MISS MAXIM CONTEST  
THE 7TH  
SEMIFINALIST

김지은

인터뷰는 역대 MISS MAXIM 도전자 중  
가장 강전(?)했지만, 그녀는 화끈해야 할  
때는 화끈한 훌륭한 여자였다.

BY 김희성 PHOTOGRAPHS ARC STUDIO  
WORDS&FILM 송종민 HAIR&MAKEUP 세빈  
COOPERATIONS 탑걸(02-546-7764)  
포스트프로덕션이내에(02-3444-7712)



**김지은** | 생년월일: 1989년 2월 26일생  
직업: 모델

**주요 서식지** 견대 입구, 입구정

**별명** 도지

**집착하는 것**

계획 세우는 걸 좋아하는데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불만하다!

**나의 매력**

동양적인 마스크에 서양적인 몸매? 한 군데도 안 고친 자연미인이다.

**내 얼굴에서 마음에 안 드는 곳**

디크서클, 화장해서 안 보이지?(웃음) 내 외모에 만족하는 편이다. 성형수술은 꿈도 못 꾸다.

귀 뚫었을 때도 얼마나 혼났는지..

**혼자 집에 있을 때**

책을 읽는다. 최근에 읽은 책은 베르나르 베르의 <산> 5권과 <도가니>.

**몰래 관리**

동네 뽀샵을 헬스장 상아 산중턱에 있는 운동기구들을 애용한다(웃음).

**이상형**

자상하고 가정적인 선. 여자한테 너무 잘하는 플레이보이는 질색이다!

**남자를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곳**

웃는 모습과 눈빛. 때 묻지 않고 여자 경험도 많지 않은 종각이 좋다(웃음).

**관심남을 유혹하는 나만의 비법**

애교로 녹여버릴 거다.

**내 남자의 필수 조건**

술, 담배, 육과는 거리가 먼 바른 생활 사나이. 너무 완벽한 사람을 원한다고? 내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줄테니 부담 갖지 말고 일단 만나 봐라(웃음).

아빠였던  
형영 한장



# 2012 MISS MAXIM CONTEST

MAXIM 회원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여러분! 여성 독자들이여 2012 MISS MAXIM CONTEST에 도전하라. 방법은 간단하다!

**참가 신청 방법**

1. [www.maximkorea.net](http://www.maximkorea.net)에 접속한다.
2. 우측에 MISS MAXIM 참가 신청하기를 클릭한다.
3. 독자들에게 오분할 예쁜 사진 20장을 업로드한다.

자세한 내용은 MAXIM 홈페이지를 참조하라!  
문의 02-323-1182  
alice@maximkorea.net



핫핑크 언더웨어  
코디조합바인어너웨어

## 2011 K리그 기록 大잔치

이 정도는 해야 아시아에서  
뽐 좀 친다는 소릴 듣는 거다.

당신이 야구에 흠뻑 빠져 지낼 때도 K리그 선수는 X하지게 공을 찼고, 기록들은 쌓여갔다. 그중에서 깨알 같은 기록만 MAXIM이 모았다. 야구도 끝났으니 이제 봐줄 때도 되지 않았어? by 김성현 ILLUSTRATION 권영준

### ALL ABOUT K-LEAGUE

#### K리그 축빠 테스트

당신이 축빠라면 이 정도쯤은 알고 있겠지?

#### 올 시즌 K리그의 애니콜은?

노병준

→ 27경기 중 24경기를 출전했다. 한 마디로 경기가 있는 날은 일단 축구화 끈을 메고 있었던 얘기까지

#### 올 시즌 1대0 경기 횟수는?

38회

→ 야구에서 에이스끼리 맞붙을 뜬 경기가 아닌 이상 1대0 스코어 게임은 무조건 재미있다.

#### '덕(치고)공(격)'의 대명사 전북이 올 시즌 기록한 총 득점은?

67득점

→ 29경기 기준 게임당 약 2.31골을 기록했다. 전복 팬이라면 1경기를 직관하면 적어도 2골 정도는 건진다.

#### 박기동은 올 시즌 매 경기에서 ○○○○를 했다.

오프사이드

→ 그는 25경기에 출전해 32개 경기당 최소 1개씩 오프사이드 반칙을 꼬박꼬박 적발했다.

#### 올해 은퇴하는 ○○○은 싸가지 없는 반칙을 일삼던 핑개 선수들 등장한 ○○타로 유명하다.

이을용, 윤용

→ 내년부터 터키의 프로팀 트라브존 스포르에서 지도자 수업을 받을 예정이다. 이곳에는 한술밥을 먹던 세늘 귀네슈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있다.

### MAXIMIZED SOCCER

#### 최대 기록 깎 다 모여

'최대' 타이틀만 바라보고 달려온 기록들을 공개한다. 총 대단한데?

#### 최대 골 경기

8월 27일 펼쳐진 서울과 강원원의 경기. 스코어가 무려 6 대 3이다. 이걸 뭐 야구도 아니고...

#### 최대 골 기록

7월 9일 펼쳐진 포항과 대전의 경기. 포항이 대전을 무려 7 대 0으로 학살 해버렸다.

#### 최대 연속

서울이 7월 9일~8월 27일까지 기록한 7경기 가 최대 연속이다.

#### 최대 관중 기록

K리그의 명문 구단 FC 서울과 수원 삼성 블루윙즈가 맞붙은 3월 6일 경기. 관중 수는 51,606명.

#### 최대 무승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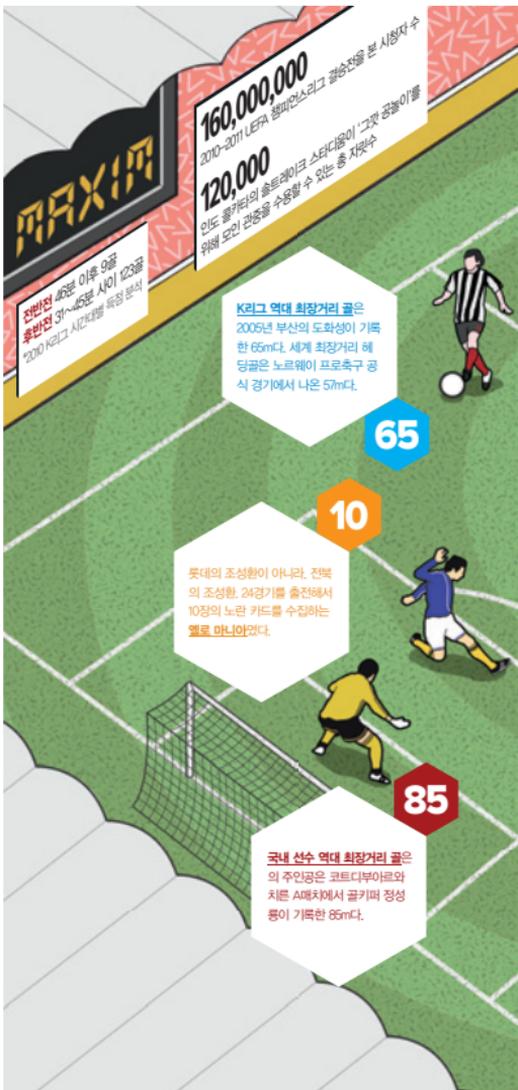
무재배의 달인 현정무의 소속팀 인천 유나이티드. 33경기를 치러 7승 15무 11패라는 위업을 달성했다.

#### 최대 파울

대전의 박성호는 26경기에 출전해 65개의 파울을 기록했다. 경기당 2.5개 골. 일단 나가자만 하면 파울 2개는 짤아놓고 시작한 셈.

#### 최대 실점

대전의 최은성은 26경기에 출전해서 53점을 내주는 경기당 최소 2골을 내주는 대인배다운 풍모를 보였다.



**골대를 가장 많이 맞힌 선수는**  
전북 이대국 3경기 6회팀은 3  
승 1무, 부산 이상협 6경기 6  
회팀은 3승 1무 2패다.

6



200

2005년 FC 서울에서 은퇴한  
**골키퍼 신의순**의 K리그 무실  
점 기록. 노장 김영지 역시 최  
근 부산전까지 192경기 무실  
점 기록을 이어나가고 있다.

15도움으로 **이대국**은 K리그  
최대 도움 기록을 경신했다.  
그가 도움왕을 차지한다면 개  
인상 4개 MVP, 득점상, 도움  
상, 신인상 타이틀을 모두 가  
져가는 첫 번째 선수가 된다.

15



107

이대국은 22경기에 **107개의  
슈팅**을 날렸다. 경기당 3.96  
개의 슈팅을 날린 셈. 경기당  
0.59골을 기록하며 추지산 대  
폭발 슛을 날렸던 녀석과는 차  
원이 다름을 증명했다.



100

**전통의 최강희 감독**이 2005년  
시즌에 감독으로 취임한 후 7  
시즌 만에 100승을 달성했다.  
남은 건 울산의 김정남 감독이  
갖고 있는 9시즌 연임 기록을  
넘어서는 거다.



## 골대 징크스의 진실

2007년 이후 5년간 기록을 뒤졌다. 결론은?  
K리그에 골대 징크스 따윈 없다.

**골대를 (한 번이라도) 맞힌 팀의 승률 : 0.52**

**올 시즌도 마찬가지 : 0.57**

**골대를 가장 많이 때린 팀 : 경남(14경기 15회)**

**한마디로?** 골대를 맞히는 팀의 승률이 더 높다. 골대를 맞히다 보면 골을 넣  
게 마련이고, 골을 넣은 팀은 이길 확률이 높아지게 마련이다. 골대 맞혔다고  
진다는 징크스 따윈 개나 주란 소리지.

STUFF

# 3D TV FANTASTIC 4

이 멋진 놈들과 함께하려면 당신이 있는 곳이 곧 '젓과 꿀이 눈앞에서 흐르는' 3D 영화관이다. BY 김상현 ILLUSTRATION 원영준

3D TV를 지를 적절한 타이밍이다. 올해 출시된 각 브랜드의 3D TV는 '최초'라는 타이틀을 떼고 상식적인 가격대로 접어들었다. 3D TV 특유의 '고스트'라고 불리는 잔상을 대폭 줄이는 데 성공했다. 2D 영상→3D 영상'으로 변환하는 기술은 만족스러운 수준에 도달했다. 특히 게임과 촬영공감이다. (스타크래프트2)를 한 번 돌려보면 그날로 지름신이 강림할 것이다. 당신이 즐길 만한 3D 아동 타이틀이 적잖이 쌓였다는 것도 충분한 이유가 되겠다. 그래서 MAXIM이 올해 제일 잘나가는 3D TV를 골라봤다. 고민은 MAXIM이 마르고 달도록 했으니, 당신은 이중에 마음에 드는 걸 골라 잡으면 된다. 오케이?

4등



## SONY BRAVIA XBR-52HX909

디자인	■■■■■■■■■■■■■■■■■■■■	10
성능	■■■■■■■■■■■■■■■■■■■	7
만족도	■■■■■■■■■■■■■■■■■	6

**MAXIM SAYS**  
괜찮은 제품이지만 이 돈을 내고 지르는 건 무리수. 소니 빼놓아지면 몰라도.

### BONUS POINT

'SONY BRAVIA' 로고는 불꽃 간지를 선물해주겠다.

**삼**성 LG에 발리는 게 일상이니 소니지만 이 녀석은 꽤나 잘 빠진 3D TV다. 비교적 정확한 색감을 보여주는 데다 검정과 회색 계열의 깊도가 좋아서 동영상을 볼 때 화면이 선명하다. 3D 효과는 보통 정도 수준이지만 2D에서 3D로의 화면 전환은 무척 매끄러운 편. 두꺼운 2.2인치 의 베젤도 거슬리지 않을 만큼 제품의 마감도 좋다. 블랙 외의 색상이 다소 번지는 점과 화면 가장자리에 남는 잔상은 다소 아쉽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녀석의 가장 큰 문제는 '소니 스타일'로 대표되는 정산줄 높은 가격이다. 가격 250만 원대 | 문의 [www.sony.co.kr](http://www.sony.co.kr) 1588-0911

## SAMSUNG MIRROR POP MV800



3D 카메라

삼성 똑딱이 카메라 중 처음으로 3D 촬영을 지원하는 이 녀석은 한순간의 긴박을 받았다. 이유 하나만으로 낱개 뚫힌 듯 팔리고 있다. 카메라에 달린 3인치 터치스크린이 접히는 건 물론 180도 회전하니 셀카를 3D로 촬영하는 신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 가격 399만 9천 원 | 문의 1588-3366



3등



## PANASONIC VIERA TC-P50ST30

디자인	■ ■ ■ ■ ■ ■ ■ ■ ■ ■
성능	■ ■ ■ ■ ■ ■ ■ ■ ■ ■
민족도	■ ■ ■ ■ ■ ■ ■ ■ ■ ■

**MAXIM SAYS**  
흔스러운 디자인에 놀라지 마라.  
성능은 정확히 반대니까

**BONUS POINT**  
당신이 예전부터 집에 가지고 있었던  
TV처럼 편안하게 느껴질 거다.

**인**정할 건 인정해라. 이놈의 디자인은 참으로 촌스럽다. 하지만 3D TV로서의 성능은拔群이다. 색깔이 좋고, 색감도 원색 그대로 뽑아낸다. 3D 화면의 영상 처리도 만족스럽고, 다른 기기와의 공황이 잘 맞는다. 굳이 흠을 잡자면 화면의 밝기가 조금 떨어지는 편이라 조명이 강한 곳에서는 다소 어둡게 느껴진다는 점과 색 분리가 조금 떨어진다. 일반 노트북을 사용하는 이가 많다는 걸 감안하면 VGA 포트가 없다는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가격 110만 원대 | 문의 [www.panasonic.co.kr](http://www.panasonic.co.kr) 1588-8452

## SONY DEV-5



3D 촬영용

생안경 주체에 캠코더처럼 촬영이 가능하다. 그것도 3D 풀 HD 영상으로 말이다. 광학 10배 줌과 디지털 10배 줌에, 기존 생안경과 달리 자동으로 초점이 잡힌다. 이놈만 있으면 공공장소에서 금수처럼 찍을 처던 몰상식한 커플들을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입체감 넘치는 3D 영상으로 촬영할 수 있다. 가격 200만 원대

문의 [www.sony.co.kr](http://www.sony.co.kr) 1588-0911



2등



## SAMSUNG PN51D8000

디자인	■ ■ ■ ■ ■ ■ ■ ■ ■ ■	□
성능	■ ■ ■ ■ ■ ■ ■ ■ ■ ■	□
만족도	■ ■ ■ ■ ■ ■ ■ ■ ■ ■	□

### MAXIM SAYS

디자인, 성능만 두고 본다면 이 녀석보다 나은 3D TV는 찾기 힘들다.

### BONUS POINT

1.18인치 얇은 베젤은 TV의 화면을 더욱 광활하게 느껴지게 만들 거다.

**삼**성 TV답지 않은 피격적인 스탠드가 먼저 눈에 들어왔다. 3D TV에 서도 아울레드 빠풀이답게 진짜 블랙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준다. 야간에 촬영한 이미지나 영상을 3D 화면으로 감상할 때면 몰입도가 급 상승하니 특히 게임과 공합이 제대로다. 액정이 밝아 조도가 높은 곳에서 사용해도 전혀 무리가 없고, 와이파이를 TV에 박아줘서 귀찮게 USB 동글을 연결하지 않아도 편하게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TV의 인터페이스가 다소 지랄 맞고, 제대로 된 음영을 표현하지 못하는 점은 아쉽다. 가격 210만 원대 | 문의 [www.samsung.com](http://www.samsung.com) 1588-3366

## NINTENDO 3DS



3D 게임기

"안경 따위 게나 줘라. 우리는 안경 따위 없어도 3D 화면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다"던 3DS였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3D 심도 조절이 쉽지 않았고, 시야각의 편차가 심해 3D 모드에서 멀미하는 유저가 속출했기 때문. 하지만 최근 가격이 폭풍 하락했으니 휴대용 3D 게임이 궁금하다면 질러볼 만하다. 가격 20만 원대  
문의 [www.nintendo.co.kr](http://www.nintendo.co.kr) 080-070-9900



### 3D TV 구현 방식

#### 패시브 vs. 액티브 방식의 차이는?

패시브 방식은 한 화면에 좌우 영상을 동시에 보여준다. 대신 화면에 편광 필터를 붙인 후 편광 안경을 쓰면 좌측 영상은 좌측 눈에, 우측 화면은 우측 눈에 각각 전달된다. 비교적 구현하기가 쉬운 3D 구현 방식이다.

액티브 방식은 화면에 좌우에 해당하는 영상을 빠른 속도로 교대로 보여준다. 이것을 입체 안경을 통해서 좌측 영상이 나올 때는 안경 좌측만, 우측 영상이 나올 때는 안경 우측만 열리게 만든다. TV와 안경을 동시에 컨트롤해야 하기 때문에 까다로운 방식이다.

1등



## LG 50PZ550

디자인	100
성능	90
만족도	90

**MAXIM SAYS**  
솔직히 홈 잡을 데가 별로 없다.

#### BONUS POINT

LG의 디스플레이가 당신을 실망시킨 적이 있었는가?

3D TV 판매서 LG는 No.1이다. 올해 초만 해도 삼성이랑 티격태격했  
지만 TV에 유난히 까다로운 미국 시장에서 삼성을 깨끗이 발라  
주며 대장 자리를 차지했다. 진짜배기 1080p 풀 HD 3D TV가 보여주는 깊  
이가 다른 화면과 자연색을 그대로 출력한 생생한 화질은 견줄 상대가 없  
다. 이 녀석은 3D 이미지를 2D 이미지보다 또렷하게 느껴지게 만들어버릴  
정도다. 와이파이가 탑재는 물론이고, HDMI 포트도 4개로 넉넉하다.  
가격 140만 원대 | 문의 [www.lge.co.kr](http://www.lge.co.kr) 1544-7777

### LG OPTIMUS 3D



3D 스마트폰

스마트폰으로 3D로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기기 스펙(XG-C CPU와 운영체제안드로이드 2.2 프로요)을 극복하지 못하고 말았다. 그 덕분에 지금은 기기 가격이 폭등 하락했으나 재미있는 장난감이 필요한 이라면 지만 만한 제품이다. 가격 80만 원대(출고가 기준)  
문의 [www.lge.co.kr](http://www.lge.co.kr) 1544-7777



STUFF

HIGH  
ROLLER'S  
TIME

기다리는 자, 버티는 자, 그리고 시간의 흐름이 주는 압박에 휘둘리지 않는 대담한 자가 승리한다. 도박판의 승리 전략은 인생에서도 마찬가지. 시간을 정복하는 사람 앞에는 달콤한 성공이 대기 중이다.

PHOTOGRAPHS ARC STUDIO  
COOPERATION 세이코코리아(www.seikokorea.com) 임베리얼 위스키(www.wenevergetalone.com) 스와로브스키, J.PRESS(02-543-7685)



재치 838,000원 J.PRESS  
 카트리스스가 각 1만 원치, 14만 5천 원(월) 스와로브스키  
 위스키 59,400원(500ml, 출고기 기준) 임페리얼 램블 19

## TIME OF ADDICTION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 때 한 때 맹목하게 집중하는 도박사의 집념은 사실 위험하다. 한 패를 뒤집는 순간 모 아니면 도의 승부가 결정된다. 도박 중독. 마지막 순간의 짜릿함에 우리 중독된 듯하다. 하지 만 사실 우리 그 짜릿함 결말까지 가는 1분 1초의 긴

장감 자체에 중독된 것이다. 과정이 결과를 압도하는 카트리스스가 운물에 퍼지는 순간 당신은 이 도박판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 카드 패를 다 뒤집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패가 드러나기 직전까지의 긴장된 시간을 즐기며 우리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기꺼이 그 피곤함을 감수한다. 모두 알고 있다. 그레 아만. 테이블을 골라지 지키고 앉아 있어야만. 언젠 가 이 판을 리드할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을.

## GLORIOUS TIME

남자는 한 방이다. 흔하들 그렇게 말한다. 성공한 사 람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저 사람. 정 말 운 좋게 대박이 터졌다"고. 사실 그 한 방을 위 해 그들은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공력을 투자하고 노 려했는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걸고 그 판에 덤 벌었을 때 비로소 대박이라는 놀이 고개를 내민다. 남 보다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무언가를 걸고 침착하 게 기다리는 하이 롤러의 테이블. 한 방은 바로 그 곳에서 터진다.

## TIME OF HONOR

젊은 당신은 지금 갖 도박사의 테이블에 자리를 잡 고 앉았다. 그리고 그 과정이 주는 긴장과 기대감 에 들떠 있다. 승리의 순간을 계속해서 머릿속에 그 리면서 말이다. 이제 판을 읽는 눈과 노련한 포커 페이스를 익혔다면, 당신은 자신이 원하는 그 무언 가에 곧 올인할 준비가 다 되었다. 대답한 하이 롤 러가 되어 인생이라는 도박판 위에 흐르는 시간 을 정복한. 그리고 끝내 승리하겠다는 의지가 남치 는 젊은 남자를 위한 시계가 바로 SEIKO PREMIER SRX003이다.

## SEIKO PREMIER SRX003J

2009 바젤 월드에서 소개되어 큰 관심을 모 았던 세이코 프리미어 카네틱 다이렉트 드라이브 문페이즈(PREMIER Kinetic Direct Drive Moonphase) 모델. 세이코 프리미어 모델 중 남 성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제품으로 손꼽힌다. 이 름처럼 별도의 전자 교환이 필요 없는 친환경적 에너지원인 카네틱 방식을 쓰고 있다. 물론 용두 를 돌려 충전도 가능하다(다이렉트 드라이브). 세 이코의 로고와 함께 있는 부채꼴의 검은 하늘에 는 달이 움직이고 있다. 영속적인 달의 움직임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 이 카네틱 드라이브 문 페이즈는, 기능적으로는 시계 동력의 잔량을 보 여주는 장치다.

시계 알을 감싼 스테인리스스틸 케이스의 부드러운 은빛 곡선에서는 은근한 끈기와 우아함이 느껴진다. 세련된 디자인과 베젤, 고급스러운 광택 을 띤 검은 가죽 밴드가 젊고 진취적인 남성에게 잘 어울린다. 메탈 줄로 교체해서 착용하면 또 다 른 느낌을 줄 수 있다.

합리적인 가격대에서 기능과 디자인 모두 빠지지 않는 시계를 찾는 사회 초년층에게 추천한다.

가격 1,650,000원  
 문의 02-511-3182

# WATCH OF THE MONTH

MAXIMI 선정된 이달의 베스트 신상 시계 뉴스



## ALBA, 남성적인 매력의 스포츠 시계 출시

알바에서 오버사이즈 케이스가 돋보이는 스포츠 워치 'AF8P67X'를 새롭게 선보인다. 알바의 AF8P67X는 헬리콥터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되었으며 오버사이즈 케이스에 밀리터리 감성이 더해져 남성적인 매력과 트렌디함이 돋보인다. 크라운 가드를 사용해 내구성을 한층 높였으며 1/20초 단위 크로노그래프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 다가오는 겨울, AF8P67X는 모든 남성들을 위한 필수 아이템이 될 것이다.

가격 27만 원 문의 02-511-3182 [www.albawatch.co.kr](http://www.albawatch.co.kr)



## 스와치,

### 신제품 터치스크린 시계 Touch 출시

스와치 Touch 콜렉션은 클럽 뮤직과 서핑, 스노보딩 같은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된 것으로 용두나 푸쉬 버튼 없이 터치 스크린만으로 작동되는 시계이다. 다이얼의 하단에 있는 터치 스크린 존에서 모든 기능을 조정할 수 있으며 평면이 아닌 유선형의 LCD로 제작되어 손목 위에서의 착용감을 더욱 높였다. 67가지 컬러로 선보이는 스와치의 Touch는 남녀 모두의 손목 위에 감각적인 스타일을 선사할 것이다.

가격 167,000원 문의 02-3149-9549 [www.swatch.kr](http://www.swatch.kr)



## 티소 트레이드선 크로노그래프와 함께 클래식한 가을을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운 클래식 워치 라인 티소 트레이드선 크로노그래프는 티소의 오랜 전통을 바탕으로 한 최고의 퀄리티를 선사한다. 알고 우아한 곡선으로 부드럽게 다듬어진 케이스와 빈티지한 다이얼 인덱스, 모던하고 깔끔한 크로노그래프 등은 캐주얼이나 포멀한 차림에 두루 어울리며, 가격대 또한 매우 합리적이다. 실버 다이얼에 브라운 가죽 밴드, 블랙 다이얼에 블랙 가죽 밴드, 그리고 엔트리 사이트(anthracite) 진회색 다이얼에 스틸 밴드의 세 가지 레퍼런스도 출시된다.

가격 47~52만 원



## 스카겐의 멀티 핑션 워치, 331XLSL1

전세계 80여 개국에서 사랑 받는 합리적인 가격의 덴마크 디자인 워치 스카겐에서 2011 F/W 시즌을 맞아 새로운 버전의 멀티 핑션 '331XLSL1'을 선보인다. 모던한 디자인의 울트라 슬림 바디 웨이프와 실용적인 멀티 핑션(day, date, 24h) 무브먼트가 탑재되어 있는 이 제품은 기존의 스트랩에서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천연 가죽 스트랩을 사용하였다. 북유럽 디자인의 특징인 심플함과 디테일을 선호하는 남자에게 추천한다.

문의 02-6207-9924



## 극한 도전을 위한 루미녹스 다이버 워치

2011년 가을 새롭게 선보인 루미녹스 3964 Colormark Special Scott Cassel Dive Watch는 해저 탐험가이며 전투 다이버인 Scott Cassel이 미국 캘리포니아 카탈리나섬에서 로앤젤레스 하버까지 30마일을 잠수해 건너 세계 기록을 달성하는데 사용된 제품이다. 강화 유리 섬유와 탄소 처리된 케이스(44mm)를 사용하였고 200m 방수기능은 물론 별도의 동력 없이 밝은 빛을 25년간 유지한다. 또한 교체가 가능한 나일론 벨크로 밴드로, 폴리우레탄 밴드와 밴드 교체 장치가 잠수 마스크 저장 케이스에 포장되어 판매된다.

문의 02-757-9866(미명시계)  
[www.luminowatch.co.kr](http://www.luminowatch.co.kr)



## 우리는 지금

1. 대전엑스포 93 개막
2. 금융실명제 출범
3. 김호동 데뷔
4. 서해 해저호 침몰사고 202명 사망
5. 아시아항공 폭포 야산에 추락 66명 사망

## 세계는 지금

1. 세계무인선 폭탄 테러 7명 사망
2. 북한 핵실험 금지 조약 탈퇴
3. <유라시 공판> 개봉
4. 넬슨 만델라 노벨평화상 수상
5. 두카티 모터쇼 출시

## 엄마를 빼앗아 간 동화 테이프

할머니 무릎을 베고 들은 옛날이야기가 요즘 어린 조그 교육의 열거로 된 카세트테이프로 바뀌고 있다. (중략) 편다렉이 미혼인 어린이들에게 있어 테이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내용. 일부 동화 테이프는 자녀에게 내용물을 회화화하여 곱지 못한 언어로 녹음해놓아 부작용이 심하다. 세 살난 딸에게 동화 테이프를 사주었다는 김지수 씨(30) 서울 성북구 정동동은 한창 말을 배우는 어린이가 "야 엄마, 엄마" 해서 짹짹 놀랐는데 알고 보니 동화 테이프 중간 중간에 코미디언들이 집어넣은 대화에서 배운 것이라고 했다. (중략) 한편 영양대 이병선 교수는 아무리 좋은 테이프나 시청각 교재라도 영양대 교사가 다니는 교사는 될 수 없다고 교육이란 인간과 인간의 만남에서 꽃피워지는 것이라며 기계에만 자녀 교육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이다.

1986년 9월 20일자 동아일보 김지수 기자

내가 만드는 편집 음반:  
카세트테이프(1993년)

팝송 하나 녹음해보겠다고 공테이프 넣어 놓고 무한 대기 탔던 시절. 근대 디지털이음, 노래 들 때 좀 하지 마. by 송준민

어릴 적 우리 집에 있던 빨간색 카세트 플레이어는 마미로 내장형이었다. 라디오를 듣다가 좋은 노래가 나오면 녹음할 수 있고 내 목소리를 녹음할 수도 있었다. 맛벌이를 하였던 엄마는 집에 혼자 있을 우리를 위해 당시 유행했던 우뢰매 스토리북을 실감나게 녹음해주곤 했다. 엄마는 다른 소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아무말도 하지 말고 문도 여닫지 말라고 신신 당부를 하신 다음, 재생 버튼과 녹음 버튼을 동시에 눌러 녹음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포맷이들이 고수 협성마냥 가만히 있는 것도 참 어색한 일. 동생과 나는 괜히 입을 벌려놓고 허허덕거리거나 까지발을 하고 삼삼삼삼 입마 주위를 돌아다녔다. 이렇게 일반 가정집에서도 손쉽게 레코딩이 가능했던 것이 카세트테이프였다. 카세트테이프는 자성체를 이용한 381mm 두께의 자기 테이프와 두 개의 릴을 하나의 카드지에 넣은 것으로, 네덜란드의 필립스가 개발한 이후 세계적인 통일 규격으로 자리 잡은 저장 매체다. 카세트 플레이어에 내장된 녹음 헤드를 이용해 자성을 띤 테이프의 베일을 벗긴 후 이 반경시할 수 있을 때에 기록과 재기록이 자유로웠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음악은 물론, 데이터, 영상 저장 매체로 역시 각광받았다. 당시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라디오가 유

일했기에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녹음하는 일이 일상이었다. 방송국에는 녹음하려고 하나씩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달라는 사연이 단골이었다. 하지만 언제 무슨 노래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 그때 발매되었던 것이 바로 더블 데크 플레이어였다. 더블 데크는 한쪽에는 재생 헤드, 반대편에는 녹음 헤드를 채용한 두 개의 데크로 다른 테이프의 음원 복사가 가능했다. 다른 테이프에서 '카피' 한 노래는 수시로 지지지거리는 라디오보다 음질이 좋았던 것은 물론, 더 이상 녹음할 때 조종해 해야 할 필요도 없었다.

카세트테이프는 음질이 월등한 콤팩트디스크(CD)의 등장으로 급격히 대체되기 시작한다. 하지만 녹음 기능은 여전히 유용했고 이어야 할 공부에 꼭 필요한 구간 반복이 훨씬 편리해 한동안 공생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반도체 메모리를 사용하는 MP3 플레이어의 등장으로 최근에는 거의 생산이 중단된 상태. 디지털 미디어의 등장으로 아날로그 미디어들이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고 테이프 역시 그 흐름을 피할 수 없었지만 테이프릴 구멍에 연필을 넣고 두드려들었다던 그날의 촉각조차 추억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날로그 미디어들이만 일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분명하다.

購 讀 申 請  
02-323-1182

강원도오대산세계  
백년묵은山蔘  
2뿌리

※ 판매처  
(02) 539-5284 새마을  
무한(03-433) 54-55 새마을  
※ 강원도 오대산 연세대학교 앞

## 커다란 반향! 스마트 SD의 세계.



본지와 오디오 편들은 항상 새로운 음향세계를 추구합니다. 스테레오 카세트 테이프 또한 당신의 음향세계를 위한 원동력 창조제입니다. 코디의 코딩기술로서 저주파에서 고주파까지 폭넓은 음을 충실히 녹음, 재생하는 스테레오 카세트 테이프... 스테레오 카세트테이프야말로 본지와 오디오 편들이 고대했던 최고의 카세트 테이프로서 새로운 음향세계를 펼쳐 보일 것입니다.



음향세계를 창조하는 스마트

SMAT

# DIGITAL



구름 너머의 세상에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분명한 건 클라우드 서비스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드웨어는 소프트웨어의 후구 노릇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서영환**

## 클라우드 시장의 출시표를 던진 HP

하드웨어 업체의 대표 주자 HP가 클라우드 시장에 출시표를 던졌다. 전체 매출의 30%를 차지하는 PC 사업 부서, 웹OS 하드웨어 제조 포기라는 강도 높은 카드를 꺼냈다. 이 때문에 HP는 CEO가 바뀌었고, 웹OS의 지원을 받은 개발자의 신뢰는 증빙했고, 회사 주식은 37%나 폭락했지만 주지힘은 없다. 하드웨어 업체에서 본격적인 소프트웨어 업체로 변신하겠다는 HP의 확고한 의지가 엿보인다. 컴퓨터만 추구 장창 만들다 IT 서비스 업체로 멋지게 변신한 IBM의 뒤를 따르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다.

## 그들은 왜 클라우드 서비스에 주목하는가?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로 미국 인터넷 트래픽의 30% 이상을 잡아먹는 넷플릭스 역시 자사의 데이터를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맡겼다. 늘어나는 트래픽을 버겁게 감당하면서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킬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보다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저렴했기 때문이다.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서버를 비롯한 인프라를 직접 소유, 관리할 필요가 없다. 전문 회사의 인프라를 빌려 데

이터 센터에 필요한 정보를 저장하고, 필요한 때 편리하게 꺼내 쓰고, 사용량만큼 비용을 지불하면 그만이다. 편리한 데다 가격까지 저렴하니 제대로 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데이터 관리를 통으로 맡기고 싶은 기업의 수요를 고스란히 자신의 호주머니로 쓸어 담을 수 있다

## 클라우드 서비스로 뭘 어떻게 돈을 벌까?

클라우드 서비스는 보통 퍼블릭, 프라이빗 클라우드 서비스로 나뉜다.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대중적 영역의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한다면, 프라이빗 클라우드드는 개별 기업이나 특정 기간에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중요한 수익 모델로 생각하는 업체들이 주목하는 건 역시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이다. 자신들이 구축한 고성능 인프라를 고객들에게 빌려줌으로써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형태다. 개발 및 운영 관리에 돈이 들지

만 규모의 경제를 기반으로 소유 비용을 낮춰서 동친다. 그럼 HP처럼 데이터 관련 장비를 팔아먹는 업체는 손해가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다. 오히려

HP는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경험을 토대로 기업 내에서만 사용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서비스 구축 노하우를 판매함으로써 이를 메울 생각이자. 실제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넷플릭스도 과금 및 장산 등 매출과 직결되는 중요한 서비스에 한해서는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대신 프라이빗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축할 것을 고려 중이다.

## HP가 버린 WEB OS의 미래는?

또 다른 야심가 아마존이 웹 OS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아마존의 태블릿킨들 파이 어온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반인데, 웹OS를 인수하면 다른 안드로이드 태블릿과 차별화할 수 있다. 팀의 CEO였던 존 루빈스타인이 지난 해 말 아마존의 이사회에 합류한 것도 이를 무어에 힘을 실어준다.

## 애플, 개인용 클라우드 시장에 주목하다

대부분의 기업이 클라우드 서비스의 대상을 기업에 한정했을 때 때 플랫폼의 아이클라우드드는 개인용 클라우드 시장에 주목했다. iOS6의 주력 서비스 중 하나인 아이클라우드는 애플 기기를 사용하는 이들의 콘텐츠 저장소 역



이것이 클라우드 서비스



할을 한다. 아이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해놓은 콘텐츠는 아이폰, 애플 TV, 맥북, 아이맥을 통해 언제든 즐길 수 있다. 집에 있는 PC에 데이터를 저장했다면 짐작없이 PC 앞에 가버린 콘텐츠는 사라진다. PC 종속 체제에 종지부를 찍은 셈이다. 아이클라우드도 자료를 저장하면 백업할 필요가 사라지며, 애플 기기만 사용한다면 언제든 콘텐츠와 자료를 편하게 입출력하는 편리함을 얻을 수 있다. 동시에 애플의 노예로 전락한다. 애플은 클라우드 서비스에 기반을 둔 플랫폼을 제공하는 대가로 유저를 노예로 만들고, 돈까지 챙긴다. 오웬

### 구글이하고 놀자는 것

구글도 손가락만 뻗고 있던 않았다. 총행에는 말리했지만 클라우드 서비스에 기반을 둔 크롬북이 대표적이다. 크롬 OS를 사용한 크롬북은 구글 서버에 접속해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는 본격적인 클라우드 PC였다.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만 연결하면 사용 가능한 구글 독스(Docs), 캘린더, 지메일, 뮤직 역시 대표적인 구글의 클라우드 서비스다. 최근 한 달에 5,000만 명의 가입자를 기록할 만큼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구글 플러스 역시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촬영한 사진을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업로드할 수 있다. 무엇보다 구글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는 이유는 안드로이드도 기반의 스마트폰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구글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는 사실 때문이다. 애플과 달리 자신의 제품이 아니라도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제품을 사용하는 유저를 구글의 노예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 진정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끝판왕 아마존

자, 여기서 클라우드 서비스계의 제왕 자리를 노리는 아마존에 주목하자. 아마존을 인터넷에서 물건 파는 업체쯤으로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클라우드 시장에서 아마존은 2개월로 꼽힌다. 클라우드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아마존의 최대 강점은 저렴한 가격이다. 여기에 압도적인 API(소프트웨어 제작 도구, 레고블럭처럼 사용해서 다른 프로그램 제작 가능) 선행, 2002년부터 다져온 노하우가 더해진다. 답이 없다. 얼마나 싸냐고? 가장 마신 1대로 웹사이트를 운영한다면 1시간에 100원 정도만 지불하면 된다(1시간당 10Mbps 사용료는 30센트, 10Mbps 초과는 2.25달러, 괴물 같은 아마존의 데이터 센터는 햄버거, 비디오 스트리밍넷플릭스, 게임장 등도 다양한 앱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돌리는데 쓰고 있다. 나름 데이터 센터에는 자신 있는 구글도 천문 불어난 검색에

최적화된 것과 비교하면 놀랄 노 자다. 더 무서운 건 아마존은 이런 강력 클라우드 서비스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콘텐츠 역시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종이 시창을 뛰어난 음질로 제공하는 아이튠즈를 능가할 만큼 풍부한 음원 콘텐츠가 대표적이다. 여기에 아마존은 자신의 태블릿 킨들 피어어를 내놓으면서 자신의 콘텐츠를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용할 하드웨어까지 갖추는 데 성공했다. 기기 대가 말릴 때 50달러의 손해를 감수한다는 건 아마존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자신의 콘텐츠를 그 만큼 벌이 먹을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의 반영이다.

### 국내의 클라우드 서비스, 눈물이 주르륵

NHN도 다음 등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저 웹툰에도 불과한 수준이다. HPA 아마존처럼 클라우드 서비스로 수익을 거두겠다는 건 언감생심이고, 아이클라우드와 같은 제대로 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도 없다. 그동안 하드웨어의 성능을 높이는 데에만 급급해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던 결과, 제대로 된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를 뒷받침하는 소프트웨어가 핵심이다. 2000년대 당시의 벤처 열풍이 꺼지면서 소프트웨어 업체를 사기꾼으로 매도하고, 실패는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바람에 우리나라는 페이스북, 구글 같은 유망한 소프트웨어 업체가 탄생할 길이 막혀왔다. 그나마 애플의 대항미를 자처하고 나서는 삼성이 '애플클라우드'가칭을 준비 중이라는 결과물은 나오지 않은 상태. 아이폰이 국내 시장에 들어오자 부랴부랴 국내 업체들이 자체 OS가 없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를 몸소 깨달고, 뒤늦게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인식했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후다.

###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압도하는 시대

클라우드 서비스가 주목받는 건 단순히 값싸고 편리하기 때문만이 아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업체는 제공하는 업체에 철저히 종속된 형태가 된다



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최적화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해당 업체의 인프라를 백분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가입이 아닌 일반 사용자일수록 이런 제약은 더 강력하게 적용된다. 가령 애플의 아이클라우드를 활용하는 사용자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하드웨어가 아무리 성능이 뛰어나더라도 이를 선택할 수 없다.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에서 하드웨어는 정보를 입출력할 뿐이다. "콘텐츠

를 저장해둔 곳 또는 내가 원하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곳이 어디인가? 그곳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용할 수 있는가?"가 선택의 최우선 순위가 된다. 이는 더 이상 하드웨어의 성능이 소비자의 선택에 유일한 요소가 될 수 없음을, 그리고 비싸후로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지배하는 시대가 왔음을 의미한다.

### 빛나는 창의력은 언어의 순간에 잉태된다

하드웨어의 진보 역시 끊임없는 고민, 기술의 발전, 치열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 차이가 있다면 소프트웨어는 아무리 용을 써도 만족할 결과가 나오지는 보장이 없다. 철저한 창의력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인정하고, 자신의 일을 온전히 즐길 줄도 아는 사람이 지금 시대의 승자라고 규정한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 페이스북의 마크 Zuckerb가처면 말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좋아하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조차 불만이 해 한다. 끊임없이 일을 하지 않으면 도태된다고 철칙같이 믿는다.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정령한 세상에서 우리나라가 꼬봉 신세를 벗어 나려면 어떤 생각부터 품어야 한다. 하드웨어를 만들 때처럼 기술사에 연구원을 검증해놓고 값고다 고 잘 빠진 소프트웨어가 똑똑 하고 뛰어오지 않는 다. 언어로움을 인정해야 한다. 빛나는 창의력은 잉여로운 순간, 자신이 진정 원하는 일을 하는 철나의 순간 잉태된다는 사실을 잊 말자. 세상을 놀라게 할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싶어? 그렇다면 지금 당장 MAXIM을 즐겁게 읽는 일부터 시작하도록! 그 시간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라. 거다.

## IBM IBM의 극적인 체질 개선 HP가 원하는 게 바로 이거?

IBM은 얼마나 컴퓨터를 만들어 팔았지만 해가 갈수록 마진은 점점 줄어들었다. 이걸로 밥벌이하기가 힘들다고 느낀 IBM은 2000년대에 접어들어 돈이 되는 SW와 IT 컨설팅 등으로 주력 사업을 바꿨다. IBM의 신스피드와 레노버의 판매 대가 된 것도 이 즈음이다. 이제 IBM은 세사 소프트웨어 매출의 60%에 육박할 정도로 IT 서비스 기업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데 성공했다. HP 역시 돈도 안 남고, 스텝만 더 PC 시장 때유 후회 필고 싶은 거지.



## MONSTER HISTORY

몬스터의 시작은 1983년 두카티의 디자이너 미구엘 갈루치(Miguel Angel Galluzzi)의 미니멀한 아이디어에서 비롯되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안정, 연료탱크와 엔진, 두 개의 바퀴, 그리고 핸들 뿐이다



1993

최초의 몬스터 900



1993년 최초로 모습을 드러낸 몬스터 900은 혁신적인 디자인과 미니멀한 구성으로 디자인과 운동 성능, 구조적인 효율성을 모두 갖춘 혁명적인 스트리트 모터사이클이었다. 두카티의 골수 팬들은 "이것은 진정한 두카티가 아니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타본 사람들은 모두 엄지손가락을 들 수밖에 없었다.

1995

엔트리 넘버 몬스터 600



# MONSTER,

## 길들일 것인가, 굴복할 것인가!

두카티의 엔트리급이라 무시하기엔 몬스터의 포텐셜은 무궁무진하다. BY 488P



그런데~ 잔뜩 흥분한 맹수가 이빨을 드러내고 꿈틀거리며 공격 자세를 취하듯 몬스터의 삼상이 투동 투동 불규칙한 고동소리와 함께 꿈틀거리며 깨어난다. 이 작은 맹수는 도로의 모두를 놀라게 할 690cc 2기통 데스모도르믹 엔진을 감추고 있다. 밑에 박차를 가하듯 꾸욱 1단 기어를 밟아 넣으면 녀석은 튀어오를 준비를 마친 것이다. 이제 스로틀을 움켜쥐기만 하면 과몰은 강렬한 토크를 포악스럽게 도로에 토해 낼 것이다. 2단과 3단 기어는 과몰이 가진 흥폭한 가속감을 채명하기에 좋은 구간이다. 고양이과 맹수가 급속스럽게 높이 도약하듯 낮은 속도로 달리다가도 스로틀을 비트는 즉시 앞바퀴가 들쭉거리릴 정도로 강렬하게 가속해 나간다. 녀석은 클러치가 미드되자마자 체인을 뱅뱅하게 당기며 타이어를 찢어발길 듯이 아스팔트 위에 회전시킨다. 눈 깜짝할 사이다. 뒤에 따라오는 차가 벌써 저만치 뒤로 밀려졌지만 한 번 더 스로틀을 당기면 두 손 가득 두들긴 진동과 함께 주변 모든 사물이 순식간에 흐려지며 맹렬하게 속도를 올려간다. 공공도로에서 이 이상의 가속력이 필요할까 싶을 정도다. 아직 MAX 토크를 발휘하는 7750RPM이 되려면 한참이나 여유가 있는 데도 말이다. 인상적인 3단까지의 경형을 마치면 그 이상은 고속 주행 모드로서 꾸준한 가속과 힘을 보여주지만 초반에 비해서는 조금 심심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기어비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손을 간질이는 기분 좋은 진동을 느끼며 슈퍼 스포츠 바이크를 타듯이 고개를 숙여본다. 몬스터는 네이키드임에도 불구하고 두카티의 레이스 DNA를 이어받아 상체를 좀 더 수직에 곧 공격적인 포지션을 요구한다. 스트리트에서 편하게 타다라는 네이키드의 목적에는 어긋나지만 두카티의 고집이 느껴지는 부분이다. 두카티는 트랙에서 건 공도에서 건 가발 발라야 한다는 것이다.

### 1998

몬스터 600 듀카티, 몬스터 900 크롬

몬스터 600은 두카티가 좀 더 대중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구상형이었다. 가볍고 다재다능한 미들급 몬스터는 친근하지만 강력한 몬스터의 아이코닉한 이미지를 확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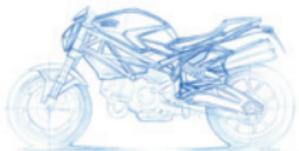
검은 두카티는 유저 커스터마이징에 보다 더 적합한 블랙 캔버스가 되어주었다. 요즘 유행하는 매트 블랙(Matt Black) 컬러도 이 당시 두카티가 먼저 선보인 스타일이다.

### 2004

울퉁한 몬스터 S4R 등장



S4R는 슈퍼 바이크에 쓰이던 테스트 스프래터 996cc 수평식 엔진을 채택해 기존의 몬스터 라인업을 뒤를 밀어준 파격적인 모델이다. 공격적 엔진이 아닌 점이 논란이 되었지만 퍼포먼스만은 역대 최고였다.



**하**지만 두카티 위에서 가장 빠른 라이더가 되기 위해서는 숙련된 라이딩 스킬이 요구된다. 일체의 전자 장비의 도움 없이 나와 몬스터 단 둘의 호흡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몬스터는 아주 정직하다. 미처 코너에 진입하기 전에 충분히 속도를 줄이지 못했다거나 두려움에 브레이크를 움켜쥐었다면 여지없이 코너 바깥으로 라이더를 던져 버리려고 한다. 포용력을 발휘하기 보다는 라이더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아주 정확하게 반응한다. 실력이 모자라면 당신은 여지없이 비틀거릴 것이다. 두카티는 BMW가 아니다. 누구나 편하고 재미있게 탈 수 있는 녀석은 아니란 뜻이다. 입문용이라는 타이틀은 부담 없는 최저 배기량이라는 뜻이 아니라 당신의 라이딩 스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점검하기 좋은 기본기 중시형이라는 의미에 가깝다. 몬스터 위에서 당신은 시션의 중요성, 브레이크 타이밍처럼 당신에 의해 변화하

는 바이크의 세세한 반응을 배울 수 있지만 미처 실력을 키워보지도 못하고 그 기회를 날릴 수도 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ABS 버전 몬스터다.

좀 더 달리라고 외치는 몬스터의 유혹은 자칫 당신을 위험한 순간으로 내몰다. 차고로 모터스포츠에서는 달리는 것보다 서는 게 더 중요한 법. 브렘보 4 피스톤 캘리퍼와 320mm 플로팅 디스크 시스템은 레버를 움켜쥐자마자 마치 벽에 부딪힌 것 같은 아찔한 감속을 선사한다. 멋모르고 브레이크를 끌자마자 움켜쥐었다가는 라이더가 봉 댄을 겪을 뻔 할 테다. 때문에 초보 라이더가 안심하고 브레이크를 마음껏 잡기 위해서 ABS 시스템을 꼭 필요하다. 휠 락을 감지해 브레이크를 전자적으로 컨트롤해 조향성을 잃지 않게 해주는 ABS가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의 목숨을 구해 줄지도 모른다. 좀 더 비싸지만 ABS 모델을 선택해야 할 이유다. 이외에도 아무리 단산 라이더더라도 양발 착지를 가능하게 하는 770mm의 낮은 시트고, 161kg의 가벼운 무게 모두 두카티 입문자로서 몬스터를 선택해야 할 이유가 된다. 물론 단지 울라타기에만만하다는 것이다. 이 녀석을 마음껏 다룰 수 있게 된다면 그 어떤 바이크도 두렵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결국 당신이 두카티를 타게 된 이유는 다른 어떤 세상에서 가장 색다른 모터사이클링기 때문일 것이다. 이보다 성능이 더 좋은 바이크는 있을 수 있지만 이보다 더 색다른 바이크는 있을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이탈리아인 레드의 힘, 두카티의 힘이다. 



## 2005

동생 S2R 동생



S4R의 강렬한 퍼포먼스를 유지하면서 공력맨지의 감성을 되살린 동생 모델 S2R이 데뷔한다. 보다 저렴한 가격에 감동할 레이스를 경험한다는 몬스터의 컨셉에 더욱 부합하는 인기 모델이 되었다.

## 2008

울 뉴 몬스터



최초의 몬스터가 등장한 지 15년 만에 완벽한 리디자인된 몬스터가 등장한다. 이 역시 최고의 모터 사이클을 디자인으로 칭송 받으며 몬스터의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S4R, S2R 라인업은 현재의 스트리트 파이터 라인업으로 대체되며 단종되고 현재 686, 796, 1100 세가지 라인업이 당신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 glade 센세이션을 니 차 품안에!

요아~ 땀!



이번 호를 읽고 있는 당신. 만약 이번 호를 YES24 / 인터파크 도서 / 알라딘 / 인터넷 교보문고 중 한 곳에서 온라인으로 구매했다면 그레이드의 자동차 방향제 '센세이션'을 무료로 받았을 것이다. (혹시 저 4개의 온라인 서점에서 샀는데도 '센세이션'을 받지 못했다면 당장 인터넷 서점으로 전화해서 '센세이션'을 내놓으라고 따짜라. 아, 물론 한 정수량이기 때문에 부록이 포함될 수는 있다.)

오오, 다른 독자들의 분노가 느껴진다. 하지만 YES24 / 인터파크 도서 / 알라딘 / 인터넷 교보문고와의 특별 이벤트를 오픈니 너그러움 마음으로 이해하길. 이해 못하겠다고? 그럼 아쩔수 없지. 위의 QR 코드를 스캔하고 댓글 달기로 "그레이드 자동차 방향제를 내놔라 이 OO농사!" 라고 시원하게 적어라. 선착순 10명에게 즉시 조공을 배치 해줄 것이다. 착불로 보냈다가 무슨 화를 당할지 모르니 무료 배송으로 보내겠다.

## Glade SENSATION

한국존슨의 향 전문 브랜드 그레이드가 자동차 실내 전문 방향제인 '센세이션'의 후속작을 내놓았다. 향 종류가 다양하고, 리필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적이다. 보통의 차량용 방향제들이 처음엔 머리가 아플 정도로 향이 강하고, 지속력이 약해 조금만 차-낸 무용지물이 되기 일쑤인데, '센세이션'은 향기 강도를 당신이 직접 조절할 수 있어 편리하다. 가격은 5,900원. 궁금한 건 여기로 080-022-2701



## 제7회 MAXIM 무료 티팅 당첨 독자는?



제4회 당첨자 KS\_JUNG의 슬라기드 티팅 후기



## MAXIM MOTOR 독자를 위한 SPECIAL EVENT

날이 춥다. 창문을 거의 닫고 있어야 하니 더더욱 고품질 티팅이 필요한 시기기도 하다. 아무래도 여름에 열 차단 티팅의 인기와 하늘을 찌르다 보니 당첨될 확률은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것이다. 하지만 겨울을 향해서는 이 마땅한 응모했을 때 당시만 당첨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 차 실 때 받은 기빙 티팅에는 보통 차량 중요한 알유리 티팅이 빠져 있다. 오늘을 위해 비워둔 알유리에 슬라기드를 끼었자. 매달이 다르다니까?

▶ 응모 기간 : 2011. 10. 22 ~ 2011. 11. 18

▶ 상품 : 22만 원 상당의 열 차단 티팅 시동 (전면 시동, 즉 후면 제외)

▶ 응모 방법

1. 예마와 함께 찍은 사진을 MAXIM으로 보내라.
2. 사진 속에 MAXIM 이번 호가 나오면 더 좋다.
3. 재미있고 뜻깊은 사진을 곁들인다면 훨씬 좋다!

▶ 보낼 곳

- event@maximkorea.net으로 사진과 시연, 연락처를 보내라.  
- 010-5199-1182(반민부 전화로 사진들 첨부한 문자를 보내도 좋다.)



이보게 맥심 친구 -- 내 뒤 좀 물어보세. 자네, 경차에 대한 기사는 몇 달이나 주구장창 쓰면서, 경차는 왜 티팅 이벤트에 안 뽑아주냐? 내 매일 25일만 되면 서점 가서 직접 맥심을 사고 그 자리에서 뜯어 보내면 볼 때 마다 드럽게(?) 섭섭하네. 거두질미 하고 날 뽐으시게나! 왜냐고? 저 뽐호 판 보이냐? 마초의 냄새가 뎀스 밀 우랄 알타이어만큼 스멜이 올라오지 않는가! (안 느껴지면 강 공병 밑에 손하고 반성해!) 싸씨빨라(4482)의 기운을 받아 지금 3년간의 독수 공병을 깨고 내년 런던올림픽 양궁 대표로 나갈지도 모르는 미모의 공사 아가씨랑 열애 중이래! 이 기회를 놓치면 말안가? 영? 차 알유리가 흰색서 진도개? 안 나가고 있소. 이게 말이 되오? 명필은 북을 탓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일단 역사는 차에서 좀 이루어져가 이달의 슬라기드 티팅 당첨 독자가 뽑아주시고 날 보고 '우리하지 않고 형만에 맞게 아담하고 겸손한 차 가지고 다니냐'고 물어라 하는 이 래의 금메달리스트에게 잘 하라고 으웃한 짓 좀 하게 MAXIM도 힘 써 주시란 말이오. 만약 여자친구가 런던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 인터뷰하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뽑아주세요 TT..TT 흥... - Alina19



### 슬라기드 열 차단 필름은.

최강단 필름 제조 신기술인 '스퍼트링' 공법을 개발해, 세계 최초로 미 항공우주국(NASA)의 우주 개발에 참여했다. NASA의 우주선에서 태양열을 차단하는 용도로 사용된 바보 그 100% 전통의 명품, 슬라기드 열 차단 필름이네!

# LOVE



## 1

### 초콜릿을 바쳐라

초콜릿 전문가 빌 세페에 따르면 초콜릿에는 성욕을 자극하는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또 다른 의학 연구에 따르면 특히 다크 초콜릿에 그 성분이 많이 포함돼 있다고 하니 이제부터 초콜릿은 무조건 다크 초콜릿만 먹거나 먹이는 거다. 참고로 섹스할 때 나오는 화학물질은 초콜릿을 먹을 때도 분비되기 때문에 여자들은 섹스보다 초콜릿을 더 좋아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그녀가 명목 백 다음으로 가장 좋아하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해줄 수 있는 멋진 남자가 있기 때문에



## 2

### 페이스북에 가입하라

미크 주커버그가 섹스 파트너를 물어다 준다. 집지(세이프)와 (멘즈 피트니스)가 공개한 3차 섹스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의 80%가 "소셜 미디어가 처음 만난 사람과의 섹스를 더 앞당기도록 유도한다"고 응답했다. 여성의 70%가 "새로운 상대를 찾기 위해 온라인 도구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그중 49%가 "페이스북 메시지로 데이팅 신청을 받았다"고, 굳이 페이스북이 어렵고 귀찮다면 트위터, 싸이월드 미니홈페이지 꾸준히 해봐라. 뭐 하나라도 걸리겠지



## 3

### 메시지를 보내라

위의 섹스 보고서를 통해 중요한 사실을 하나 더 알 수 있었다. 여자 남자보다 150% 이상이나 문자를 더 많이 보낸다는 것이다. 또 소셜 데이팅 업체 '이슈'에서 '키오톡과 연애의 상관관계'에 대해 설문 조사를 했는데, 66.7%의 여성이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이성이 커피이디드를 물어보면 "조금 더 친해지고 나면 알려주겠다"고 답했다. 일단 기다리든 주긴 한다는 거지?



## 4

### 주거적으로 바쁜 책을 하라

(노는 0.1초 만에 사랑에 빠진다)라는 아주 자극적인 제목의 책 저자 모기 겐이치로에 따르면 "노는 공백이 있으면 그것을 메우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 공백을 통해 내부 자극이 발생해 창조성이 발휘된다"고 한다. 사람에서는 부재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러니 일이 없으면 출장을 간다는 뺑을 쳐서라도 그녀의 뇌에 공백을 주자. 그녀는 결에 없는 당신을 떠올리며 사랑이 깊어질 거다. 당신은 그동안 다른 여자와 신나게 섹스를 즐기면 된다.

# 섹스 많이 하는 법 20

미리 준비하는 자가 섹스도 더 많이 할 수 있다. 12월 24일이 돼서여 여기저기 연락 들리느라 힘 빠지 말고 지금부터 섹스할 취미를 최대한 끌어올려보자. BY 김희성 ILLUSTRATIONS 장영훈

##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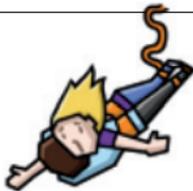
### 성리 시작 3일 전을 노려라

에스트로겐도 가장 왕성하지만 오르가슴을 느끼게 해주는 엔도르핀의 분비도 가장 왕성한 시기다. 이때의 그녀는 당신의 사소한 터치에도 쉽게 온몸이 뜨거워지고 오르가슴에도 빨리 도달한다. 게다가 성적 자극에 의해 분비되는 엔도르핀의 양이 평소보다 무려 10배나 증가한다. 노력 대비 효율이 가장 높은 때라는 거다. 그녀는 당신의 테크닉 때문인 줄 알아... 후후.



**6****소개팅녀와는  
일주일 안에 다시 만나라**

그렇다고 해서 너무 오래도록  
바랜 책을 하다가 큰 코 다친다.  
의학박사 스키타 도시로는 “뇌는  
하루가 지나면 전날 경험한 것  
중 절반을 까먹는다”고 말했다  
(당신의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었어). 일주일만 지나면 기억  
속에 남아 있는 내용은 10%도  
채 안 된다. 마음에 드는 그녀와  
잘해보고 싶다면 첫 만남 이후  
1주일일 지나기 전에 반드시  
다시 만나라. 첫 만남에서  
똥방귀를 끼는 실수를 했다면 1  
주일 후에 만나는 게 득일지도...

**7****첫 데이트에서는  
남을 하는 것만 하라**

첫 데이트에는 밥 먹고 차  
마시고 영화를 보거나 술을  
마시면 된다. 굳이 뭔가  
특별한 걸 해야 할 필요는  
없다. 첫 데이트에서는  
당신과 마찬가지로 그녀도  
간절한다. 당신이 뭔가  
스펙샐한 걸 하면 그녀는  
계속 긴장 상태겠지?  
평소에 늘 하는 것을 하면서  
그녀의 긴장을 풀어줘야  
당신을 편안하고 좋은  
사람으로 기억하게 될 거다.  
귀찮았는데 잘했지?

뒤져서 나오면  
10원에 한 대다.**11****자녀 7시 이후에 만나라**

연애는 과학이다라는  
책에서는 호르몬 분비에  
균형이 깨지는 시간에  
데이트를 하면 쉽게 짜증이  
나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다투게 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오후 5~7시,  
밤 11~12시, 새벽 5~6시  
사이는 피하는 것이 좋다.  
특히 오후 5~7시는 해가  
넘어가는 시간대기 때문에  
사람의 몸 상태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므로 무조건 피하는  
게 좋다. 퇴근 시간이 6시인  
이유가 이거였나?

**8****학벌 좋은 여자를 공략하라**

미국 작가 제니 블록은 자신의  
책 <Open: Love, Sex, Life  
in an Open Marriage>에서  
색스에 대해 알려지지 않은  
11가지 사실을 공개했는데,  
그중 하나는 ‘박사 학위를  
가진 여자가 회사 학위를  
가진 여자보다 원 나이트에  
더 관대하다’는 거다. 학력이  
높을수록 자신을 난잡한  
여자로 인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9****참을성을 길러라**

참정감이 느껴져도 사정하지  
말고 참아라. 할 때마다 사정을  
두세 번 정도 참는 훈련을  
일주일 정도 하면 당신은  
지금보다 더 오래할 수 있게  
된다. 성전문가 레베카  
로리에 따르면 이 훈련(?)  
은 머리와 몸의 신경 회로를  
예나체택하게 재설정해 당신을  
좀 더 오래가는 견견지로  
만들어준다고. 참는 자에게  
마라톤의 기적이 내릴지나!

**10****청정 패션을 시도하라**

onlinedatingclinic.com  
에 따르면 올 봄부로 옷을  
꼭 새 입은 데이트를  
하게 될 확률이 30%나 더  
커진다. 여자들은 파란색에서  
당신이 안정적이고 믿음  
만한 사람이라는 걸 연상하기  
때문이다. 공포의 청정패션이  
시도해야할 기세. 그녀지나  
자기 짝을 찾는데 고작 파란  
옷 따위를 그 근거로 삼는  
여자도 있나?

# LOVE

## 12

### 서로의 콧등을 쳐다보라

대뇌생리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대와 연애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상대가 자신을 신뢰하도록 만드는 기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좌우의 뇌를 동시에 사용하게 해야 하는데, 상대방의 콧등을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양쪽 눈을 동시에 사용하게 돼 양쪽 두뇌가 활발하게 움직인다. 당신은 그녀의 콧등을 보면 된다. 차고, 그녀에게는 어떻게 당신의 콧등을 쳐다보게 하지? 코에 장동간 시진이라도 붙여?



타는 냄새 안나요?

### 그녀를 가장 흥분되게 하는 것

한 상황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어떤 냄새인지 알려주지 않고 여러 가지 냄새를 맡게 했는데, 맑은 여성이 남자의 소변 냄새에 성적 흥분이 고조되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니까 향수고 뭐고 다 됐고, 그녀를 진짜 달아오르게 하는 건 당신의 오줌 냄새라는 거다. 필름필름 싸면서 다녀야 하나?



## 15

### 그녀 말에 무조건 공감하라

한 임상 심리학자에 따르면 여자가 말할 때 진짜로 원하는 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동조해주는 것이지,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게 아니라고 한다. 그녀가 당신한테 징징거리면 괜히 나서서 이런저런 조언을 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고 맞장구를 쳐라. 착하고 믿음직한 남자가 되는 길은 이렇게도 쉽다

## 13

### 옛 여친은 빨리 잊어라

일본의 한 연구소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실연 후 50%에 가까운 남자들이 헤어진 연인을 잊지 못했지만 그런 여자는 고작 30%에 불과했다. 이별을 후회하거나 옛 연인에게 미련을 갖는 비율도 남자가 여자보다 두 배나 많았다. 여자가 남자보다 실연의 상처를 빨리 극복하는 이유가, 가능한 한 빨리 배우자를 찾아 이이를 놓아야 하는 생물학적 이유 때문이라는 설도 있다. 어쨌거나 찌질대지 말고 새 여자를 찾는 게 섹스 확률을 더 높이는 길이란 거다.

## 14

### 그녀의 눈을 쳐다봐라

우리를 기쁘게 하는 연구가 있다. 뉴욕대 교수이자 심리학자인 아서 아론이 낯선 남녀를 1시간 반 동안 이야기를 나누게 한 후 4분 동안 말이 서로 눈을 바라보게 했다. 많은 남녀가 서로에게 끌렸다고 고백했고, 심지어 결혼한 커플도 있었다. 사람은 좋아하는 상대의 눈을 맞추면 뇌 속 신경물질인 도파민이 나와 기쁨이 고조된다. "내 눈을 바라봐. 나는 행복해지고~"

## 16

### 첫 만남은 빨리 끝내라

마음에 들면 들수록 집어는 일찍 보내라. <뇌는 0.1초 만에 사랑에 빠진다고> 따르면 만남의 시간과 상대에 대한 호감도가 반비례한다. 즉 만남의 시간이 짧수록 상대에게 품고 있는 좋은 감정은 더 오래 지속된다는 말이다. "술 한잔 더하자"며 2차, 3차까지 끌었다 그녀가 당신에게 품고 있던 호감마저 안드로메다로 길지도 모른다.

## 17

### 데이트 사이트는

### 일요일에 가입하라

loveyouraccnt.com의 통계에 따르면 독신자들은 토요일 밤을 특히 더 외롭게 느끼기 때문에 일요일에 데이트 사이트에 많이 가입한다. 참고로 MAXM 홈페이지 이용자도 토요일 밤~새벽에 폭주한다. 그래, 우리들 정신적 사망이라도 나누어오.



### 18

#### 25~30세의 여자를

#### 집중 공략하라

이때가 성장호르몬과 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다. 20~25세의 여자는 남자의 자극이 있을 때만 성욕을 느끼지만 25~30세는 성욕을 느끼는 빈도가 높고 스스로 섹스를 원하기 시작한다. 30대가 되면 다시 20~25세와 비슷한 상태로 돌아간다. 그러니 서둘러

### 20

#### MAXIM을 정기구독하라

02-323-11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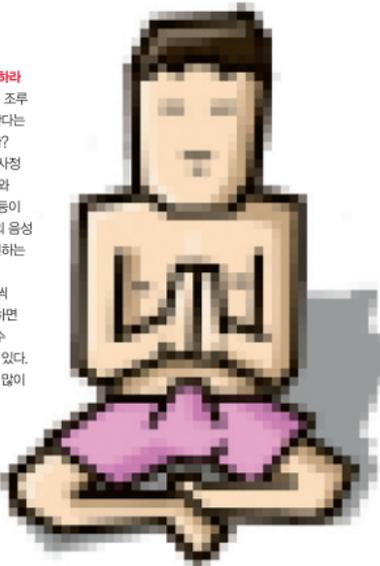
www.maximkorea.net  
최고의 교본이지,  
(20)번째 재우려!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좀 봐주세요. 영영.)

거시기가 하늘까지 닿겠네

### 19

#### 스마트폰을 이용하라

'조루마스터'라는 조루 치료 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 조루 자가 진단, 사정 지연시키는 처방, 애무 팁, 운동법 등이 담겨 있다. 성우의 음성 안내를 듣고 훈련하는 '조루 트레이닝'으로 매일 2시간씩 한 달 동안 훈련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오래하는 남자가 많으 할 수도 있는 법.



## 나는 독자다



100호 특집 방송캠퍼드 받기 정답자로 선정된 최고의 독자 BEST 10은 바로 이들이다. 정말 다 맞출 줄은 몰랐다. 무서운 인간들이.



지 난달 100호 특집호를 내면서, 최고의 MAXIM 독자를 가리는 초대 이벤트를 걸었다. 표지에 그림으로 나온 사람들의 특징만 보고도 누군지 맞추어야 하고, 게다가 그 사람이 언제 MAXIM에 나왔는지까지 모조리 맞추어야하는 극강의 난이도! 이런 거 이벤트라기 보단 사비를 가는 것에 가까웠다. 하지만 극강의 난이도에 걸맞게 우리는 Panasonic 하이브리드 방송캠퍼드 FX-WA10 10대를 역발모로 내 걸었다.

"매...맥심을 외우면서 읽는 게 틀림없어!"

MAXIM 사무실로 날아드는 정답자들 보여 우린 시은 맘을 훔칠 수 밖에 없었다. 총 7명의 만점자와 3명의 차점자에게 Panasonic 최신행 캠퍼더를 전달했다.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다. 당선들은 진정한 최고의 MAXIM 독자이다. 간벌의 차이로 상품을 놓친 응모자들에게도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 당선들... 차라리 그냥 MAXIM 에디터가 되는 게 어떤지?



#### 만점자

김원\* (경북 포항시 북구) 김재\* (서울 은평구) 김\* (경북 영주시)  
박광\* (서울 중랑구) 박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이보) (울산 중구)

#### 차점자

서은\* (부산 북상진구) 이장\* (서울 강남구)  
한규\* (경기 수원시 장안구)

# A SWEET KISS

가요계 정상을 향해 거침없이 시동을 걸고 달리던 신인 그룹 에이프릴키스를 겨우 정차시켰다.  
그녀들의 솔직하고 털털한 모습은 가을 밤바람보다 시원했다.

BY 박한빛누리 PHOTOGRAPH ARC STUDIO FILM 김진옥 STYLING 김예슬 HAIR 김자경, 이상애 MAKEUP 장진아 ASSISTANT 조다현 COOPERATION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km.co.kr)



영상은  
확대하세요!



# FROM APRIL KISS



## Question

1. 이름의 의미?
2. 펠레로 데이관?
3. 'Hello Bus'에 태우고 싶은 연예인은?
4. 요즘 빠져 있는 것?



OOO.G

1. 끝난 지선(본명)을 들었다.
2. 아몬드 펠레로를 먹는 날
3. 배우 이선균
4. 커피. 안 마시면 잠이 안 온다. 쿠지



SUMIN

1. '재주가 뛰어나고 민첩하다'는 뜻의 순 우리말
2. 그냥 11월 11일일 뿐
3. 2PM
4. 뜨개질, 목도리를 뜨고 있다.

수민



SARAH

1. 본명이예요.
2. 네? 그게 뭔가요?
3. 2NE1
4. 미드 <그레이아나토미> 사라



XIHO

1. "SAY HOI"처럼 같이 놀자는 의미
2. 추억, 과거의 이야기일 뿐.
3. 비
4. 먹는 것. 가을이라 입맛이 당긴다. 말인가?

시호

1. 본명 주희와 비슷한 발음의 영어 이름
2. 외로운 날
3. 영화배우 김윤석
4. 잠, 얘기하기도 잠든다.

줄리



HAEZN

1. 강원도 사투리로 해 질 녘을 의미
2. 상처, 직접 뼈때로 만들다 오븐에 손을 덴 적 있다.
3. 무한도전팀
4. 패션, 악세사리.

해즌



완전 다 예뻐!



에이프릴키스라니 이름이 모뭇하다.

따뜻한 봄날의 키스는 따뜻한, 달콤한, 짜릿함, 상큼함, 신선함 등 가지각색의 매력 이 있다고 하더라. 정작 우리는 기원이 가을가을해서 어떤 느낌인지 몰라 그러려니 하고 있다.

'갈 때까지 가니, 밤새 때까지 가니.' 라는 가사처럼 밤을 불태우는 편인가?  
클럽 가면 지도 백만 년이다. 이제는 체력이 받쳐주지 않아 그렇게 늘 수 있을지 모르겠다. 연식이 끝나면 피곤해서 자기 바쁘다.

촬영 내내 손에서 간식을 놓지 않는 모습이 걸 그룹답지 않다. 에이프릴키스에 다이어트란 없는 것 같다.

우리에게 다이어트는 '뽕' 이다. 멤버 모두가 먹는 양에 비하면 살이 안 찰 체질이지만, 안티가 생길까 봐 인터넷에서는 흑흑한 다이어트를 한다고 얘기하곤 한다. 아. 남은 거 가져가도 되나?

줄리는 간호학과 출신이다. 노래를 부르는 색시한 간호사라니, 갑자기 열이 나는 것 같다. (줄리) 어퍼지. 지금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한때는 아픈 사람을 돌보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했지만, 지금은 그 꿈을 잠시 접고 에이프릴키스 활동에만 집중하고 있다.

시호는 교사를 했던 특별한 이력이 있다. 시호가 담임 선생님이었다면 나는 서울대를 갔을 지도 모르겠다.

(시호) 요즘 애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몰라서 하는 소리다. 한번은 보충수업 시간에 출석을 못 했는데 뭔가 허전하더라. 알고 보니 학생 17명이 옥상에 책상을 빼놓고 도망가 갔다.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아서 학생부장 선생님께 명단을 적어서 넘겼지. 다음 날 아침, 교무실 복도에 17명이 열드려 있었다.

시호와 해즌의 랩이 범상치 않다. 호랑이한테서 강아지 나지 않는 법, 스승이 누구인가?

(시호, 해즌) 래퍼 수호 꽤 오랜 시간 그의 밑에서 실력을 길고 닦았다. 음악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사부님이다. 요즘도 연락을 자주 주고 받으며 조언을 듣는 편이다.

멤버 모두가 엄청난 연습벌레라고 들었다. 하루 휴가를 준다면 싫고 싶나?  
(시호, 해즌) 연습실 밖을 나올 수 있다면, 커피숍에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행복할 것 같다. (줄리) 가로수 길에서 쇼핑하고 싶다. 쓸쓸한 가을을 따뜻하게 위로해줄 가족 재킷 한 벌. (수민) 더 추워지기 전에 야외에서 삼겹살 파티를 열고 싶다. 우리 회사 식구들이랑 같이.

넘쳐나는 걸그룹 홍수 속에서 에이프릴키스의 생존법은?

6명 모두가 가지고 있는 매력 이 코브라 독처럼 치명적이다. '6명 중에 하나만 걸러라' 하는 심산이다. 일단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으니 천천히 지켜봐달라. 우리는 다가가는 걸 그룹이다.

MAXIM에 항상 열려 있으니 놀러오라. 목에 기름 치오물 때까지 삼겹살 한 번 구워보자. 

거침없이 매력을 펼치는 신인 그룹 에이프릴키스는 현재 'Hello Bus'라는 힙합 댄스 곡으로 활동 중이다.

EV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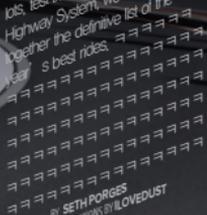
버스에서 겪은 황당했던 사건을 보내라!  
reader@maximkorea.net  
가장 짜릿한(?) 경험의 독자에게 에이프릴키스의 친밀 사인이 담긴 앨범 CD를 보내

THE 2011

# RPA

AWARDS

▶ Our knuckles: white. Our insurance company: trying to track us down. Our warrants: active in at least 13 states. After an adrenaline-fueled trek across car lots, test tracks, and the Interstate Highway System, we've pulled together the definitive list of the year's best rides.



▶ BY SETH PORGES  
ILLUSTRATIONS BY ILOVEDUST



## THE DREAM CAR

### 2012 LAMBORGHINI AVENTADOR LP 700-4

최고다. 어떤 차도 이 녀석을 따라올 수 없다. 마치 플라방 두껍을 떠버릴 듯한 기세의 700마력, 6.5-liter V-12 엔진 소리를 알아듣는 사람이라면 MAX.MO이 녀석을 선택한 것에 대해 100% 공감할 거다. 이 녀석의 연식은 2012년이지만 정작 내년이 되면 로또가 터져도 이 녀석을 살 수 없을 거다. 이미 절판되고 없을 테니까. 남자라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부동산에 내 놓는 한이 있더라도 이 차의 구입 대기명단에 한 번 이름을 올려 보는 거다. LP 700-4는 차를 속까지 봐다 뜯어고친 첫 번째 람보르기니이자 8년 만에 출시된 레알 신상이다. 탄소 섬유로 만들어진 경질 덕분에 차체는 미칠 듯이 가벼우면서도, 장난 아니게 견고하다. 세상 어떤 차의 어떤 부분도 이 람보르기니 아벤티도르를 능가할 것은 없다. 장담한다.

#### SPEC CHECK

**PRICE**  
\$387,000

**ENGINE**  
48-valve V-12

**HORSEPOWER**  
700 at 8,250 rpm

**TORQUE**  
509 lb.-ft.

**TRANSMISSION**  
Seven-speed  
ISR single-clutch  
automatic

**0.60 MPH**  
2.8 seconds

**TOP SPEED**  
218 mph

**FUEL ECONOMY**  
11 mpg city,  
17 mpg highway

||| BEST SPORTS COMPACT |||

2012 HYUNDAI VELOSTER

오오, 현대네! 드디어 현대도 켰다. 어떻게든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어 보겠다고 이동비동해대던 허위 브랜드 현대가 이전 제법 골지의 자동차 메이커로 거듭났다. 2012년형 벨로스터를 한 번 타 보라. 저렴한 녀석임에도 불구하고 꽤 알맞은 운전의 재미는 물론, 뛰어난 기술력으로 당상을 연인이 있는 곳까지 바람처럼 데려다 줄 거다. 7인치 크기의 터치 스크린은 그 곳까지 가는 경로를 시원하게 알려준다. 그게 다가 아니다. 벨로스터의 기술력 엔진은 성능 대비 거의 하이브리드에 가까운 연비를 선사한다. 1갤런의 연료로 거의 65km를 달릴 수 있는데 이걸 거의 마법이라고 박엔 설명할 수 없다. 실용성도 꽤 좋다. 당나귀처럼 생긴 이 녀석은 문짝이 3개라서 한결 가볍고, 4개의 문짝을 쓰는 것 만 큼이나 드나들기 편리하다. 한 쪽에서는 4도여 해치백으로, 한 쪽에서는 2도여 쿠퍼로 보인다.



SPEC CHECK

<b>PRICE</b>	\$357,000
<b>ENGINE</b>	48-valve V-12
<b>HORSEPOWER</b>	700 at 8,250 rpm
<b>TORQUE</b>	509 lb.-ft.
<b>TRANSMISSION</b>	Seven-speed ISR single-clutch automatic
<b>0.60 MPH</b>	2.8 seconds
<b>TOP SPEED</b>	218 mph
<b>FUEL ECONOMY</b>	11 mpg city, 17 mpg highway

The **TOP FOUR POSTAPOCALYPTIC MOVIE CARS**

이제 곧 세계가 멸망한다면 2012년에도 2012년형 자동차들은 아마 폐허가 된 황량한 지구를 뱅뱅 돌리게 되었지? 불을 뿜는 괴물차가 등장하는 영화 《Bellow》로 스타덤에 오른 Evan Glodell에게 지구 멸망 영화에 등장한 차 중 제일 멋진 놈들을 골라달라고 부탁했다.



**1. THE LAST V-8 INTERCEPTOR**  
영화 《매드 맥스》

석유 가득한 드림틀을 메고 다이아몬드 부트비트랩으로 황야의 연료 도둑떼들을 날려버린다. 시원하게.



**2. DIMENSION - JUMPER JET CAR**  
(카우보이 벤자민의 모험)

영화 《점퍼》의 주인공처럼 이 차도 차원을 건너다닌다. (하지만 네 여권으로는 불가능할지도...)



**3. LORD HUMBUG'S RIDE**  
(로드 워리어)

개조된 포드 F-100 UTE는 청당지기 기능이 장착되어 있고, 질소 부스터를 사용해서 거의 날아다닌다.



**4. DEATHCOASTER**  
(암흑의 군단)

구식 스티밍으로 움직이는 이녀석의 최전 날개는 좀비떼 따위는 갈아버리면서 전진할 수 있지.



### 2012 VW PASSAT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죽었다는 얘긴 대체 어떤 놈이 하고 다니는 건가? 2012년형 파사트는 자동차공업 밀집지역인 테네시 주의 새 폭스바겐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여기에 있는 직원들만 해도 무려 12,000명에 이른다. 독일의 품공한 엔지니어와 공학이 까다로운 미국 운전자들의 저소를 자동차 시장에 뛰어들었다. 이 차의 넓은 공간, 안전한 제이, 괜찮은 가격은 미국 세단 시장에 자력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경쟁기 극복을 위한 최고의 차상



### 2012 PORSCHE CAYENNE S HYBRID

잠깐만, 포르세 하이브리드 SUV라고? 포르세까지 하이브리드에 뛰어왔었으니 이젠 더 이상 포르세를 기를 남비들로 애도할 수도 없게 되어버렸다. 이 녀석의 뛰어난 파워와 성능 만으로도 사람들의 눈을 깜빡놀을 지경이지만, 사실 이 녀석의 진가를 느끼려면 완전 전기 모드에서의 주행이다.

가장 값싸고 속이 다른 스포츠차상



### 2012 BMW M5

참하고, 남자는 안 사귀어 봤더니 그녀를 늙혔더니 실은 그녀가 엄청난 섹스 테크니션이라면 기분이 어떨겠나? M5의 가속 페달을 밟아보면 비슷한 기분일 거다. M5가 세단같은 걸모습을 갖고 있다고 속지마라. 이 녀석의 정체는 560마력의 괴물 스포츠 카니카. 듀얼 클러치 방식의 7단 자동변속기가 그 증거다.



## BEST WAY ← to → WIN A DRAG RACE



### 2012 NISSAN GT-R BLACK EDITION

R마크가 보이나? 최고의 드래그 머신 챔피언으로는 올해도 또 다시 닛산의 괴물 머신 GT-R이 선정되었다. 유두브 영상에서 이 녀석이 포르세와 벤츠를 저 멀리 따돌리는 장면을 봤다면 아마 이의를 달 수 없을 거다. 2.9초만에 100km/h의 속력을 내는 슈퍼 비아그라에게 무슨 수로 대적하겠어?

경차지만 사랑할 수 밖에 없다



### 2012 TOYOTA IQ

10피트, 토요타 사이언IQ의 길이다. 예이 스마트 포투가 더 작네라고 한 놈들 다 얼더라 뻘쳐, 사이언IQ는 4인승이다. 이 니플레옹같은 녀석은 미국내 공인연비는 무려 25.07km/l에 육박한다. 이런 제길, 비싸겠는걸. 얼마죠? 15,985달러? 뭐야, 가격도 싸잖아!



### TOMTOM GO 2535 M LIVE GPS

2배 가격으로 얽에이트로는 TomTom의 HD 교통 서비스를 이용한 GPS다. 성능은 미국의 티맵을 판다고나 할까? 300\$



### GOPOINT TECHNOLOGY

의사같은 녀석이다. 이놈을 차의 진단포인트에 삽입하면 무선으로 아이폰, 아이패드 화면에 문제 정보를 나타내준다. 120\$



### IONROAD APP

주행시 스마트폰으로 이 앱을 실행시키면 매 순간 어떤 코스로 사고가 날 지 계속 보여준다. 위치와 가까워지면 섬뜩한 예니메이션으로 충돌상황을 보여준다. 무료



### ONSTAR FMV

이 뻘까봐편한 거울은 GM자동차에 주로 많이 탑재되어 있다. 차를 잃어버렸고 추적 가능한 장치가 달려있다. 300\$



## BEST MUSCLE CAR



### 2012 FORD MUSTANG BOSS 302

속도만 가지고 차의 우열을 정하던 시대는 지났다. 속도도 이제 기본이다. 이제는 마치 어떤 스피카 가장 쉬기에 편안한가를 가리는 것 만큼이나 자동차도 뒀을때 얼마나 편안한가 하는 문제는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자리잡았다. 새 머스트앵 역시 최고의 승차감을 제공하는 고급스런 시트와 기본 옵션들이 당신을 인락하게 해 줄거다. 마치 여자의 무릎으로 당신의 몸을 꼭 감싸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여전히 아스팔트를 박차고 나가며 타이어 자국을 선명하게 남기는 파워는 여전히 있다. 444마력(숫자도 참 무시무시하지 않나)에 5리터 V8 엔진이 7,500rpm을 찍으면 당신의 심장이 열마나 풀깃풀깃한지 테스트해볼 수 있을 거다. 역시 미국의 클래식한 구성능 미숩기는 우랄 실랑시(키) 않는다니깐!

#### SPEC CHECK

**PRICE**  
\$357,000

**ENGINE**  
48-valve V-12

**HORSEPOWER**  
700 at 8,250 rpm

**TORQUE**  
509 lb.-ft.

**TRANSMISSION**  
Seven-speed  
ISR single-clutch  
automatic

**0.60 MPH**  
2.8 seconds

**TOP SPEED**  
218 mph

**FUEL ECONOMY**  
11 mpg city,  
17 mpg highway



← **BEST CAR** →  
**TO HELP YOU PAY OFF**  
→ **STUDENT LOANS** →

#### 2012 CHEVY SONIC

최근에 고효율을 자랑하는 소형차가 참 많이 나왔다. 그중에서도 세비 소닉은 조금 특이하다. 첫째는 바로 이차가 미국산이라는 거다. 둘째는 최저가 답지않은 고급스러움이다. GM이 자사의 스포츠카 기술을 군데군데 적용시켰기 때문에 콜벡의DNA가 넘쳐는 소형차가 되었다. \$14,635

올해의 픽업 트럭



### 2012 FORD F-150 W/ECOBOOST

남의 차를 마구 끌고 가야하고, 더럽고 비포장인 X같은 길을 거침없이 달릴 수 있어야 하는 이런 마초의 픽업트럭은 무조건 기름을 마구 처먹는 8기통 정도의 엔진이 달려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이제 옛날 얘기다. 고객이 원하는 바가 뭔지 포드는 제대로 읽어냈다. 친환경 부스터를 장착한 F-150은 6기통 터보 엔진으로 기존 픽업트럭을 완전히 무인하게 만들어버렸다.

가격은 아직 미정이다. 미정아!

하이브리드 갖지 않은 하이브리드



### 2012 INFINITI M HYBRID

하이브리드가 CO2를 덜 배출하지만 절대 개슬린 자동차와 경주에서 이길 수 없다. 하지만 이 인피니티는 구식 니켈 배터리를 버리고 차세대 리튬 전지를 사용해서 파워를 잔뜩 몰았다. 드래그 레이스를 해 보면 420마력의 M56과 비슷한 성능을 낸다면 믿겠나?

(이 녀석을 타고 우린 번번이 속도위반 딱지를 떼야 했다.)

가격 53,700 \$

최고 판매량



### 2012 MERCEDES-BENZ CLS550

맙사새이 색시한 귀족층 보게 가슴이 콩콩대지 않나? 낮은 차체와 섀루프 또한 압권이다. 4.6리터의 V8 트윈 터보 엔진이 선사하는 420마력의 엄청난 스피드를 느껴보래! 그나저나 시범과 자동차의 결혼을 합법화하는 수가 있었단가? 가격 71,300 \$



## BEST CAR

← for the ←

# ENVIRONMENTALLY CONSCIOUS NBA PLAYER



### 2012 TOYOTA PRIUS V

NBA 선수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차 부문에서 토요타 프리우스를 선정했다. 프리우스에 사람들이 지지하지는 건 이제 뭐 놀랄 일도 아니다. 무려 29.2km/L의 괴물같은 연비를 자랑하는 이 녀석은 38인치 휠라디오 다리를 쪽 뿔 수 있을만큼 공간이 넉넉하다. 게다가 443L의 광활한 적재함을 보낸 새 프리우스가 얼만큼 SUV에 근접한 차인지 알 수 있다. 가격 미정.

가장 활발한 SUV



### 2012 JEEP GRAND CHEROKEE SRT8

재작년까지만 해도 즐라 혼터 날리던 SUV였는데 3년 만에 모던한 느낌을 물씬 풍기는 가 싶더니 올해 완벽한 변신에 성공했다. 하지만 모던한 외모와는 반대로 465마력의 6.4리터 V8 엔진은 왜 지프가 탱크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를 제대로 보여준다. 역사상 가장 파워풀한 지프를 번갈아 줄 비가 되어 있나? 가격 55,295 \$

YOUR RETIREMENT PLAN



아무리 차가 좋아도 타이어가 구르면 밀물 행! 코너에서 죽고 싶지 않다면 이 타이어로 갈아 끼울 것

### COOPER Zeon RS3-A

The treads on these tires get longer and more zigzagged when worn, increasing each tire's traction-y bite. Mmm, tarmac.

### BRIDGESTONE Ecopia EP422

탄소 분자가 나노 크기로 고르게 흩어지기 때문에 마찰열을 획기적으로 줄여준다.

### CONTINENTAL

### EXTREMECONTACT

### DWS

Slightly reduce your guzzler's footprint. These race-ready tires ditch Earth-sweating petro for natural rubber fortified with orange.



## BEST DIRT MACHINE



### 2012 JEEP WRANGLER

Oh, Hyundai: In just a few short years you've leaped from punch line to powerhouse. Take the 2012 Veloster: It's cheap, fun as hell to drive, loaded to the gills with tech (a seven-inch touchscreen console lets you beam your location to your buddies), and

it delivers hybrid mileage from

an all-gas engine (call an exorcist this car's ability to wring 40 miles out of a gallon of gas can only be explained by witchcraft). And how's this for a lead diet: Its odd-ass design has three doors, giving you a four-door's ease of entry without the added weight. Here's to back-door entry!

#### SPEC CHECK

##### PRICE

\$387,000

##### ENGINE

48-valve V-12

##### HORSEPOWER

700 at 8,250 rpm

##### TORQUE

509 lb.-ft.

##### TRANSMISSION

Seven-speed  
 ISR single-clutch  
 automatic

##### 0.60 MPH

2.8 seconds

##### TOP SPEED

218 mph

##### FUEL ECONOMY

11 mpg city,  
 17 mpg highway



## MOST IMPRACTICAL ← HATCHBACK →

### 2012 FERRARI FF

Who says American manufacturing is dead? VW may hail from Deutschland, but the 2012 Passat is rolling off the assembly line at a brand-spankin' -new factory

in good ol' Tennessee, which now employs 12,000 local roughnecks. Fortunately, this car is more than just a feel-good news story—it's also a great ride. Think: Germany's meticulous engineering, tossed into a horseless carriage



### 2012 AUDI A7

Who says American manufacturing is dead? VW may hail from Deutschland, but the 2012 Passat is rolling off the assembly line at a brand-spankin' -new factory in good ol' Tennessee, which now employs 12,000 local roughnecks. Fortunately, this car is more than just a feel-good news story! It's also a great ride. Think: Germany's famously meticulous engineering, tossed into a horseless carriage.



### 2012 FORD FOCUS ALL-ELECTRIC

Who says American manufacturing is dead? VW may hail from Deutschland, but the 2012 Passat is rolling off the assembly line at a brand-spankin' -new factory in good ol' Tennessee, which now employs 12,000 local roughnecks. Fortunately, this car is more than just a feel-good news story! It's also a great ride. Think: Germany's famously



## BEST REASON to LOOK FORWARD to FAST & FURIOUS 6



### 2012 HONDA CIVIC SI

Who says American manufacturing is dead? VW may hail from Deutschland, but the 2012 Passat is rolling off the assembly line at a brand-spankin' -new factory in good ol' Tennessee, which now employs 12,000 local roughnecks. Fortunately, this car is more than just a feel-good news story! It's also a great ride. Think: Germany's famously

## STRANGEST CAR MONEY CAN BUY

We dropped by New York's 212 Motoring shop to see some of the wacky add-ons concocted for its celebrity clientele.



FERRARI FISH TANK

A freshwater fish tank under the hood of this Ferrari Spider reveals a floating



TAILGATE TRUCK

The back of this Dodge pickup transforms into the ultimate party machine, complete with a plasma TV and dual



WATT-A-PARTY

This is what a Ford Expedition with a 10,000-watt sound system looks like. Sorry, it belongs to hit



BASS FISHING

Time to call PETA: This Escalade's water pole fish tank stands directly in front of a custom Rockler



"죽음은 삶이 만든 최대의 발명품이다.  
죽음은 삶에 변화를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 스티브 잡스 -

# STEVE | ICON JOBS

역전이 가능한 세상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BY 유승민



**매킨토시** 본격 개인용 컴퓨터의 등장  
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던 매킨토시. 지금  
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바탕화  
면 아이콘, 마우스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  
도 바로 이 매킨토시부터다. 지금의 아이  
폰이 그렇듯 매킨토시는 컴퓨터라는 어  
려운 기계를 어린아이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생활의 도구로 만들었다. 맥이 없었  
다면 아마 아직도 많은 사람이 컴퓨터  
엔지니어로 근무하던 고교 친구 스티브  
워즈니악이다.



**아이맥** 애플의 최고경영자로 복귀한 후  
2년 만에 아이맥을 내놓았다. 본체-모니  
터 일체형, 사각진 플로피디스크, 지저분  
한 케이بل로부터의 해방 위해 혁신적인  
디자인을 가미한 아이맥은 단박에 적자  
에 시달리던 애플을 흑자 기업으로 돌려놓  
았다. 하지만 이걸 잡스의 복귀로 시작될 애플  
전성 시대의 시작에 불과했다.



**아이폰스** 혼하들 스티브 잡스를 두고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 개발에 뛰  
어난 기획자로 평가한다. 하지만 MG가 PC  
속의 소프트웨어를 변화하는 데 그친  
것에 반해, 잡스의 아이폰스는 '사람의 마음'  
이라는 가장 원고한 소프트웨어를 뒤바꿔  
놓았다. 합법적으로 지적재산권을 사그라  
뜨는 시스템을 최초로 안착시켰기 때문이다.  
아이폰스 안에서 사람들은 돈을 내고 음  
악을 받는 법을 배웠다. 아이폰스는 앱스  
스토어로 발전하면서 콘텐츠 생산자가 장  
대한 보호를 받는 이상적인 인터넷 생태계  
의 꽃을 피우게 된다.



**아이패드** 아이패드가 나왔을 때 그날 4  
백 크기가 아이폰이라고 반경쟁던 이들이  
있었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었다. 하지만  
순수하다 한 틀에 갇혀 있던 아이폰의 기  
능이 4백 크기의 화면으로 뛰쳐나온 것  
만으로도 아이폰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  
어 보이던 수많은 산업이 패러다임의 전  
환을 맞이하여 요동치기 시작했다. 아이  
폰 OS가 대화면에서 돌아간다는 것만으  
로도 아이패드는 신분이 되고, 악기가 되  
었으며, 집사가 되고, TV가 되고, 데스크탑  
컴퓨터가 되고, 필기 노트가 되고, 스케치  
북이 되어버린 거다. 출시 1년 만에 2천만  
명이 가까운 사람이 아이폰패드를 손에  
들고 다녔다.



**토이스토리** 애플에서 부진의 책임을 지고 밀려난 후 픽  
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를 인수해 (토이스토리), (백스라  
이프), (몬스터 주식회사), (인크레더블) 등으로 세계 애  
니메이션 시장을 장악했다. 픽사를 월트디즈니에 매각하  
면서 월트디즈니의 최대 주주로 부상한다. 애플을 떠난  
잡시 동안 그는 3D 애니메이션 세상을 정복하고 돌아왔  
다. 이제 내레이터 (토이스토리3)가 찾아온다. 스티브 잡  
스는 아직 죽지 않았다.



**아이팟** MP3 플레이어는 아이팟과 아이팟이 아닌 MP3  
로 구분할 정도로 MP3 플레이어 시장에서 아이팟의 돌  
풍은 거셌다. 동그라이 모양의 클릭휠은 단순하면서도  
혁신적이었다. 그의 혁신적 발상은 언제나 철저시 사용  
자 관점에 입각해 있다. 아이맥의 후속작으로 아이팟이  
출시되면서 애플 제품군 모델링 입자리의 는 혁신의 보  
충수주가 되었다. 이제 사람들은 자가 쓰는 제품이 나올  
때마다 열광하게 된다.



**아이폰** 휴대용 시장에서 이동통신사는 영항한 갑으로  
군림할 것만 같았다. 하지만 이동사의 입장을 배제한 진  
짜 스마트폰 또한 그의 손끝에서 탄생했다. 이동사가 일  
방적으로 만들어낸 콘텐츠와 곳곳에 숨은 폭탄 데이타  
요금의 덩이 아이폰엔 존재하지 않는다. 파격적 디자인과  
갓난아이도 가지고 놀게 만드는 직관적 인터페이스는 스  
마트폰의 표준이 되어버렸다. 아이폰보다 뛰어나다고 자  
랑하는 스마트폰은 많다. 하지만 압도적으로 많은 사용자  
가 아이폰을 쓴다는 것, 그 자체가 아이폰만의 막강한 네  
트워킹이며, 온갖 애플리케이션이 탄생할 수 있는 인프라  
가 되었다. 이제 어느 스마트폰도 아이폰이 가진 네트워크  
의 아성을 위협하지 못한다.



**1 스티브 잡스의 연봉: 1달러** 그의 연봉은 고작 1달러다. 그렇게 그는 1996년 애플 복귀 후 4년간 총 4달러를 받았다.  
소득 증세도 받지 않았다.

**2 애플 로고의 비밀** 잡스는 유가증 시과 과수원에서 일한 적이 있다. 그는 사과야말로 영장기는 물론 포장하기도 좋  
고, 쉬이 손상되지 않는 완벽한 과일로 여겼다. 그래서 '애플'이란 이름을 좋아했고, 자신의 회사가 완벽하게 바라는  
마음에 '애플'이란 이름을 붙였다. 그리고 애플의 로고는 자금처럼 '사과' 모양이 된 거다.

# 애플

의 CEO 자리에서 물러난 지 채 두 달이 되지도 않은 2011년 10월 5일, 스티브 잡스는 영형히 잠들었다. 영형릭 있는 인물의 임종을 종종 지켜보지만 잡스만큼 우리 모두에게 많은 흔적을 남기고 떠난 이도 없을 거다. 당상의 손 안에 세상을 조종할 수 있는 초능력 상자를 쥐여주었고, 셀 수 없이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냈으며, 앞으로 우리에게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음 세대의 길을 열어줄 젊은이

고, 속도를 올리고 발악을 해도 흥내 낼 수 없는 것이다. 앱스토어에 있는 콘텐츠들은 기존 인터넷에서처럼 무질서하고 방대한 쓰레기더미도 아니며,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의 질서 속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 날이 갈수록 콘텐츠가 애플 앱스토어로 몰려드는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 애플이 정해놓은 간단한 표준과 통과 조건도 이 물결에 걸림돌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앱스토어에 들어오고 싶어서 스스로 콘텐츠를 정제하고, 애플 표준에 맞추기 위해 인간 힘을 쓰는 형국이다. 대체 그 이유가 뭐냐?

받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광고 수입만이 문화 산업의 유일한 법률이 되었다. 이슈를 찾아 발매처럼 몰려다니는 인터넷의 바다 속에서 광고 수익을 건질 수 있으려면 남들보다 더 적극적인 정보를 생산해야 했다. 문화의 다양성은 빠르게 위축되었다. 살아남은 문화 콘텐츠는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가 아니라 돈을 준 소비자만 '전하'고자 하는 정보를 담아야 하는 구조로 변질되었다. 심지어 물주의 입맛에 맞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서슴지 않아야 했다. 살아남으려면 말이다.

## 앱스토어에서 모든 생산자는 절대 평등하다. 당신이 만든 APP도, 재벌 기업 APP도 네모난 아이콘을 가진 동등한 하나의 APP일 뿐이다.

들, 그의 일생을 지켜보며 어디선가 꿈을 키우고 있을 수많은 제2, 제3의 스티브 잡스를 남기고 떠났다. 짧은 시간, 우리는 한 명의 천재가 세상을 얼마나 큰 변화하게 할 수 있는지를 보았고, 그 해박을 똑똑히 누리고 있다. 오늘 아침 출근하는 지하철에서도 여전히 사람들이 저마다 손에 그의 유물을 들고 있었다.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성공 원인은 깔끔한 인터페이스와 디자인, 사용자 환경에 최적화된 기능 때문만은 아니다. 기기 자체의 특성보다 훨씬 더 중요한 원인은 세상 모든 콘텐츠를 받아들이는 앱스토어에 있다. 이전 경쟁사 제품들이 아무리 듀얼 코어를 깔

아니즘스와 앱스토어가 나타나기 전 15년 동안의 (Internet Explorer) 속 정보 세상은 심리한 병폐를 아꼈다. 인터넷에서는 모든 정보가 공짜여야 하며, 무단 복제는 당연하다는 신기루 속에서 지적 재산권이라는 개념은 동내북이 되었고, 무통제의 카오스가 되어버린 인터넷이 쏟아내는 정보는 쓰레기로 넘쳐나게 되었다.

인터넷의 파급력이 강해질수록 콘텐츠 산업은 급격히 위축되었다. 음악, 영화, 만화, 소프트웨어, 게임, 소셜, 잡지 모두 인터넷이라는 강력한 유포 수단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광범위한 저작권 침해 행위 때문에 유료 콘텐츠를 생산하고도, 그 대가를

그렇게 무한한 자유와 미디어의 다양성을 표방했던 인터넷은 '역설적으로' 소수 미디어로의 통합 재편을 초래했다. 그것은 물주에게 충성하는 미디어들로만 말이다. 거대 자본과 대기업은 이제 정보도 훨씬 더 쉽게 대중을 세뇌할 수단을 확보했으며, 자신들에게 대항할 대안 문화는 대중에게 전해지지도 않게끔 차단할 힘을 갖게 됐다. 적어도 잡스의 앱스토어가 등장하기 전까진 그랬다.

우리가 지금껏 살아온 세상에서 개미는 공룡을 절대 이길 수 없었다. 수억도 동량의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아무리 기발하다 한들, 시장 지배력을 가진 재

IMAGES 연합뉴스, GETTY IMAGES





벌 기업을 이길 수 있을까? 초기 손실을 감수할 자본도, 소비자에게 도달할 유통로도 없는 개미들은 자신들의 창의성을 세상에 펼쳐보지도 못한 채 망해버리는 수순을 밟게 된다. 이들이 말라 죽을 때까지 기다린 대가없이 험값이라도 그 아이디어를 사주면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앱스토어에서 모든 생산자는 절대 평등하다. 앱스토어에서는 당신이 만든 APP도, 재벌 기업이 만든 APP도 네모난 아이폰을 가진 동등한 하나의 APP일 뿐이다. 재벌 기업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당신이 만든 APP이 앱스토어에서 팔리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광고만큼 같은 것도 없기 때문에 돈으로 자사 APP을 억지로 소비자 눈에 띄일 수도, 순위를 조작해서 상위권에 자신들의 APP을 올려놓을 수도 없다. 앱스토어는 누구에게도, 어떠한 특혜도 주지 않는다. 다운로드 순위만이 나열된 리스트와 검색창이 전부인 앱스토어에는 철저히 소비자들이 더 많이 선택한 상품이 상위에 노출될 뿐이다. 그런 환경 속에서 '앵그리 버드' 같은 저예산 게임도 세계적인 게임 회사로 발돋움할 기회를 얻었다. 돈처럼로 돈을 번다는 논리는 여기에선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기존의 인터넷이 신자유주의적이었던, 애플이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애플의 모바일 플랫폼은 훨씬 더 수정자본주의의 모습에 가깝다.

## 번뜩이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강원도 두메산골에서도 프랑스 파리에 있는 사람에게 콘텐츠를 판매할 수 있다는 말이다.

실례로 우리나라의 한 거대 통신사가 아이폰을 들여오면서 자사 콘텐츠 APP을 아이폰용 기본 APP으로 깔아보려는 시도가 있었다. 막강한 이동통신사였지만 그들은 아마도 아이폰용 기본화면에 자사 APP을 심어서 파는 것이 가능하리라 생각했던 모양이다. 심지어 자사 콘텐츠 사용료를 데이터 요금에 얹어서 부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마치 피쳐폰 시절에 모바일 화보를 보게 만들고, 깜빡 놀랄 요금을 청구하던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애플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이러한 대기업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게(거의) 없자면 몇 가지 있다. 그리고 잡스가

떠나면서 하나 더 생겼다.

세상에 돈으로도 어찌지 못하는 것.  
'생명', '사람의 진실한 마음' 그리고 '앱스토어'

'완전히 공평한 상태에서 승부는 철저히 소비자들의 선택에 맡긴다.'

애플이 만든 생태계의 금과옥조다. 누구든 도전할 수 있고, 누구와도 경쟁할 수 있는 유투파이적인 시장을 그는 만들어놓았다. 그것도 전 지구인을 상대로 장사를 할 수 있는 거대한 시장을 말이다.



**3** 이메일 주소 스티브 잡스의 이메일은 sjobs@apple.com, steve@apple.com, sj@pixar.com이다. 하지만 이런 그에게 메일을 보내도 답이 오지 않을 거다.

**4** 워즈니악의 얼마 스티브 워즈니악의 모친은 잡스를 몹시 싫어했다고 한다. 그럴 수 밖에 H라는 건설 회사에 잘 다니고 있는 아들을 보내서 사표를 던지게 만들었으니 말이다. 사진 속 안쪽이 워즈니악의 모친이라는 건 아니다.

## 라이벌을 보내며

잡스와 치열하게 경쟁했던 라이벌도 그를 아파워했다.



스티브의 사망 소식을 듣고 매우 슬프다. 그는 놀라울 정도로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머릿속에서 회피하게 끄리며 바라는 것을 몇 단어만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던 몇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에 초점을 맞추는 그의 능력은 체계도 언제나 영감을 했습니다. 그는 제가 구글의 CEO가 됐을 때 친밀하게 연락해 주었고 자신의 건강이 전혀 좋지 않음에도 시간을 내어 제게 조언과 지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제와 구글은 스티브의 가족과 애플 전 사들에게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래리 페이지(구글 창업자)**



래리와 내가 구글을 설립할 무렵부터 우리는 스티브로부터 비전과 리더십을 배웠다. 애플 제품을 써 보던 누구나 완벽을 향한 그의 열정을 느낄 수 있을 거다. 지금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맥북 또한 마찬가지다. 우리 그를 잊지 못할 거다. **세르게이 브린(구글 창업자)**



저는 스티브 잡스의 사망 소식을 듣고 큰 비탄에 잠겼습니다. 앨런과 저는 스티브의 가족과 친구, 애플의 모든 복제 같은 조의를 표합니다. 스티브와는 30여 년 전에 처음 만나 서로의 인생 절반 이상을 동행시켜 경쟁자, 친구로서 지내왔습니다. 스티브처럼 세상을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 영혼은 이후 많은 세대에 미칠 것입니다. 스티브와 동시대해 경쟁할 수 있었던 건, 제게 엄청난 행운이고 영광이었습니다. 스티브가 매우 그리울 겁니다. **필 케이크이(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페이스북 창업자)**



우리는 다시 찾을 수 없는 무엇인가를 잃었다. 스티브 워츠니악(애플 공동 창업자)

또 이곳에선 누구나 막대한 자본력이 없어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유통망을 사용할 수 있다. 번득이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강일듯 두에삼골에서도 프랑스 파리에 있는 사람에게 콘텐츠를 판매할 수 있다는 말이다. '역전이 가능한 세상'은 그렇게 앱스토어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세상은 그에게 마케팅의 귀재, 프레젠테이션의 천재라는 수식어를 다는 데 그쳤지만,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는 강자의 권력을 빼앗아 모두에게 나눠주는 세상을 그린 이념가이자, 사상가였다.

스티브 잡스는 그렇게 시장의 강자들이 가진 힘을 희수했다. 시장의 강자가 사라지게 되면 그 힘은 모두 '통제권자'에게 집중된다. 앱스토어에서의 통제권자는 바로 애플이다. 하지만 스티브 잡스는 자신과 애플이 갖게 된 막대한 지배력을 모두에게 골고루 나눠주었다.

위약 힘을 독점한 시장 통제권자가 그 힘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면 막대한 부를 짚낼 수도 있다. 그렇기에 하나같이 대기업들은 스스로 시장을 만들어 그 시장의 통제권자가 되고자 한다. 이윤은 이전의 모

배호하는 생산자에게는 애플의 서버를 일만큼 사용하든 한 푼도 돈을 받지 않았다. 이러한 세상은 어디까지든 콘텐츠 생산자가 앱스토어로 몰려오는 건 어찌 보면 처음부터 당연한 결과였다. 잡지장이 같은 우리 야말로 그 콘텐츠 생산자들까지 앱스토어로 들어가기 위해 디지털화에 사활을 걸 정도였으니까. 애플 CEO인 자신의 연봉을 '달러로 정한 잡스는 이처럼 철저히 '방목'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 상적인 인터넷 생태계를 설계할 수 있었다.

"스티브 잡스는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병적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고자 한다. 자신이 만든 표준에 맞을 것을 강요하는 저 지독한 패쇄성으로 밀어붙여 애플은 스스로 망하고 말 것이다!"  
이러 잡스가 죽기 전 가장 많이 들었던 비판일 거다. 그가 왜 하드웨어, OS까지 직접 만들면서 애플만의 폐쇄적인 표준을 그토록 고집했는지는 거꾸로 안드로이드 콘텐츠 시장으로부터 해답을 구할 수 있다.

호환성과 가능성을 많이 열어둔 안드로이드 콘텐츠 시장은 아직도 콘텐츠의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뒤

## 세상은 그에게 마케팅의 귀재, 프레젠테이션의 천재라는 수식어를 다는 데 그쳤지만, 그는 강자의 권력을 빼앗아 모두에게 나눠주는 세상을 그린 이념가이자, 사상가였다.

비밀 콘텐츠 시장에서 통제권자로 군림했던 이동통신사는 소비자로부터 막대한 부를 뽑아내는 한편, 콘텐츠 생산자에게는 아까운 보상을 안겨줬다. 피쳐론 모바일 콘텐츠 시장에서 그것은 누구도 뒤집을 수 없는 본능 구조였다.

이동통신사의 패러다임이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면서 하드웨어 제조사와 거대 통신사들은 또다시 자신이 통제하는 콘텐츠 시장을 만들어 생산자와 소비자 양쪽으로부터 부를 뽑아내려 시도했다. 하지만 그들이 만든 시장은 파란만 날랐고 어느 것도 애플 앱스토어를 넘어설 수 없었다.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갖게 된 막대한 지배력을 자신의 부를 짚내는 데 사용하지 않았다. 지배자의 위치를 버리고 철저한 운영자로서 행동했고, 앱스토어 상에서 오가는 막대한 부를 욕심내지 않았다. 잡스가 욕심을 부릴 작정이었다면 애초에 고작 '달러'의 연봉을 받으면서 일하지도 않았을 거다.

잡스는 모바일 콘텐츠 시장이 향유하는 폭발적인 부가치(총 30%만을 애플의 몫으로 잡아 서버와 스토어 운영에 사용했고, 그 원천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30%의 운영비로 애플은 해석질이 불가능한 시장을 만들어 콘텐츠 생산자들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한편, 나머지 70%의 부가가치는 온전히 콘텐츠 생산자의 몫으로 돌렸다. 무료로 콘텐츠를

든 금방 복제해서 해석만으로 뿌려지는 안드로이드마켓에 쓸 만한 유료 콘텐츠가 굳이 들어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지적재산권 보호는 불가능에 가깝고, 음원과 곡과 목욕물을 통제할 사람은 아직도 없다. 유일하게 바랄 수 있는 광고 수익을 위해 적극적인 모습으로 사용자를 유도하는 모습은 예전 마이크로소프트가 주도했던 인터넷 세상과 꼭 닮아 있지 않나? 규칙이 없는 이곳에선 머지않아 또다시 다양성은 사라지고, 거대 자본의 입맛에 맞는 콘텐츠만이 살아남아 그들의 나팔수 역할을 할 거다.

잡스가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하드웨어에 그토록 집착했던 이유도 어쩌면 하나만 바꾸는 결과는 '형편'이 불가능하고 보았기 때문일 거다. 그도 머릿속에 그린 혁명을 위해서 모든 편을 새로 짜야만 했던 거다.

애플은 스스로의 폐쇄성으로 인해 자멸할 거라는 독설이 실현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만약 스티브 잡스가 완성시켜 놓은 이 생태계가 실제로 몰락하는 그날이 왔을 때, 우리 두 눈은 결코 뜨고 지켜봐야 한다. 앱스토어의 몰락이 과연 개방성을 원하는 대중의 요구에 의해 몰락하는 것인지, 아니면 게이머들과 정정당당하게 싸워야 하는 버거로움 때문인지 못한 거대자본의 탐욕에 의한 몰락인지도 몰라야 한다. ☹



## 스티브 잡스가 MAXIM에게 주고 간 것

인터넷과 IT 기술의 발달은 영원할 것만 같은 세계 굴지의 미디어를 급속히 침몰시켰다. 그중에서도 지난 10년 동안 출판 및 인쇄 미디어 산업은 마치 거대한 배가 침몰하듯 탈출구 없는 몰락 일로를 걷고 있었다. 거대한 인쇄 공정과 낡고 비효율적인 유통 구조는 혁신을 바라기엔 너무나 비대한고 둔한 몸통을 가졌기 때문이다.

세계 출판 산업이 붕괴하면서 우리나라 잡지 산업도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특히나 인터넷 보급률이 높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 의식이 회복했던 우리나라에서 그 속도는 훨씬 빨랐다. 실상기상으로 국제 원자재가 폭등으로 종이 원료인 펄프 가격과 이 펄프를 싣어 나르는 데 필요한 유가의 상승이 침체를 가속화했다. 하지만 근본 원인은 역시 미디어



**5점스의 아버지** 잡스는 미혼으로 아들로 태어나 그야말로 드라마처럼 살다 갔다. 최성 신문으로 잡스를 낳아 양친 보낸 생부 존 잔달리는 2005년에 애플의 거장 스티브 잡스가 자신의 아들임을 알고 충격에 빠졌다. 아들의 건강을 걱정하여 여러 번 데일을 보냈지만 '감사합니다'라는 짧은 답장만이 돌아왔다. 잔달리는 그 후, 인터넷으로 아들의 프라텐테이션을 보고, 애플의 신제품이 나오면 즉시 구입하는 알리아더터가 되었다. 하지만 만남은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는 아들을 두 번 보내려 했다. 잔달리는 정칙학교 교수였다가 현재 사기업에 활동 중이다.

형태의 진화였다. 불황이 찾아오자 기업들은 가장 원시적인 미디어인 신문과 잡지 광고부터 줄여 나가기 시작했다. 인쇄 미디어 산업의 주 수입원이던 광고 마니가 별물처럼 빠져나갔고, 독자들도 더 이상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종이매거지를 들고 다니길 원치 않았다. 종이에 활자를 인쇄해서 보는 세상이 역사의 뒤안길로 밀려나기 시작한 거다.

이름만 들어도 다 알 만한 굴적굴적한 잡지들이 쓰러지기 시작했다. '애플, 키노, 뉴메로, 필름20, 영캠프, 신디퍼카와 함께 몇 년 새 국내 잡지사의 절반이 문을 닫았다. 다행히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독자를 보유한 MAXIM은 살아남았다. 하지만 살아남은 이유 따윈 중요하지 않았다. 남았다 해도 '거주' 살아남은 것이었고, '아직' 살아 있는 것에 불과할 정도로 인쇄 산업의 대세는 붕괴를 향해 치달아가고 있었으니까.

신문 폐간, 출판사 부도... 붕괴를 눈 앞에 둔 세계 인쇄 미디어 산업의 구세주는 아이러니하게도 미디어계가 아닌 IT 업계에서 나타났다. 스티브 잡스가 들고 나타난 '아이패드'라는 이름의 납작한 기기는 인쇄 미디어가 가야 할 길을 너무도 명쾌하게 알려 주었다. 아이패드가 나타나면서 MAXIM이 가야 할 길은, 아니 세계의 인쇄미디어가 가야 할 길은 명확해졌다. 살아남은 매체들은 그간 존 찬스를 잡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잡지 산업을 구해낸 것 말고도 그가 MAXIM에 남긴 게 하나 더 있다. 아이패드가 잡지의 형태를 종이 덩어리에서 APP의 형식으로 변화시키기 전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잡지가 뭔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잡지가 뭔지, 사람들은 어떤 콘텐츠에 지갑을 여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모든 미디어가 자신이 1등이라고 우겼고, 모든 잡지가 "10만 부 발행에 국내 최대 독자"를 가진 '우매체'였다. 100개의 미디어가 있으면 100개의 1등이, 100개의 뺨이 존재할 뿐이었다. 잡지는 너도나도 관행적인 발행 부수 부풀리기에도 여념이 없었고, 신문사들은 무가치 실패와 공짜 자전거 떠 다니기기에 사활을 걸었다. 광고주는 어디에 광고를 해야 좋을지, 누구 밑에 광고를 할지 몰라 사실상 '아무 데나' 광고를 했다. 신뢰할 만한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는 인쇄 미디어 광고 사장이 촉성된 건 당연한 결과였다. 하지만 잡지가 디지털화하면서 이제 할 일은 앱스토어 순위가 실제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독자들이 선택하는 신문이, 잡지가 무엇인지 누구나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잡지 APP로 아이패드 앱스토어 매출 100위 안에 들어 있는 건 (씨네21), (GQ), 그리고 (MAXIM) 이 세 가지다. 그리고 그 중 59위를 차지하는 잡지는 고맙게도 MAXIM뿐이다. 말 나온 김에 아이패드 독자들에게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표한다. 무릎을 꿇고 보니 1등이 MAXIM이었을 줄은 우리도 몰랐다. 스티브 잡스가 MAXIM에게 주고 간 선물이다. 

REAL GUY'S  
TOY  
RC CAR



거친 외형부터 화려한 파워까지 MAXIM을 쏙 빼닮은 RC카가 MAXIM의 스피크를 매달고  
영종도를 휩지었다. 리모컨에서 손맛이 찌릿하게 느껴지는 게 완전 존슨 삼고 심은 녀석일세?

BY 박한빛누리

PHOTOGRAPH ARC STUDIO

COOPERATION 화버센터(02-337-1024 www.hobbycenter.co.kr)



거하게 질주하  
는 RC카  
모러 가기



## 남자의 장난감 RC카

처음 장난감에 환장했던 건 허키 채 들고 미니카 경주기를 쫓다나던 (달리라 부메랑)에 빠져 장난감 차에 돈을 탕진할 때부터였다. 슬쩍한 학원비로 연진의 끝판왕 '골드 블랙옥터'를 장착했을 때의 희열이란. (왕중대 19호)의 쾌감으로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감동이었다. 그리고 2002년, 왕 중의 왕 (스피드왕 벵게)가 장난감 자동차 2세대 RC카가 쓰나미를 몰고 왔다. 처음에 허락거리며 미니카를 쫓다나던 벵게가 내놓은 돌러 블랙에이드를 타고 공중으로 30m는 뛰어오르며 조종기로 차를 몰았다(심지어 RC카가 말을 할)고도 팔삼기까지 쓴다. 말도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어린 수컷들은 벵게의 몸짓에 넋을 놓고 침을 질질 흘렸다. 만화 같은 얘기였지만 시간이 흐르고 기술은 더욱 발전해 진짜 그런 성능을 가진 RC카가 나오고 있다. RC카는 첨단 기술을 넘어 남자의 추억을 머금은 그런 장난감이다.



나래 때문에 내가 학원비 뜯...

## RC카가 그렇게 왜 세?

수능에 치고, 학점에 치고, 여자에 차이면 서 정신 없이 살다 보니 왕년에 미니카 모터 좀 달랐던 에디티도 이젠 RC카에 대해서는 문의 한에 가까웠다. 마침 회사 근처에 RC카 전문 매장 하비센터가 있어 사장님과 약속을 잡고 물밀 작업에 들어갔다. RC카 기사를 위해 이것저것 얘기하던 중, 하비센터 사장님 조형준 씨가 특별한 제안을 했다.

**"예전에 제가 RC카로 마티즈를 끌었던 적이 있는데..."**  
**"우왓~! MAXIM에 스피크 회사 차량이 있습니다아아아!"**

두 수컷은 징그러움도 있고 서로 부둥켜안으며 고향을 질렀다. 그때부터 돌아가지도 않는 대가리를 끌러가며 머리를 짜냈다. 조형준 씨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MAXIM스러운, MAXIM을 위한, MAXIM의 영혼을 담은 힘 좋은 RC카를 만들고 MAXIM은 이를 영상과 사진으로 멋지게 기록하기로 했다.

## 하비센터가 알려주는 RC카 입문 TIP



간만에 신났다

- 1 가볍게 시작하자. 처음부터 고가 장비를 구입하면 얼마 즐기지 못하고 포기하게 된다. 첫 여자친구로 메건 폭스를 사기엔 오래 갈 것 같아?
- 2 자신과 맞는 차를 고르자. 먼저 취향에 따라 오프로드카를 오프로드카를 명확히 정해야 한다. 마누라 눈치 보며 근처 공원에서 지하 주차장에서 걸딱딱물 쭈껴가 하는 공차기러님 소음이 적은 충전식 전동모터카를, 교외로 나가 하루종일 RC카와 텅고고 심은 마초는 연료만 넣어주면 무한정 달릴 수 있는 엔진카를 구입하자.
- 3 꼭 직접 조립해서 자신만의 차를 만들자. 영법, 말, 커피, 술 사다가며 어렵게 작업한 마니를 내 품에 안았을 때의 그 희열 그 순간!
- 4 서보모터(RC카 방향을 진동해줌), 충전기, 조종기에는 돈을 쓰자. 한 번 구입하면 몇 년은 쓴다. 게다가 이 녀석들이 허접할수록 반응 속도가 영 시원찮아서 속도감이 떨어진다.



이대근처럼 강한 녀석로 태어나려.



이 녀석이 엔진 실재 차량 다르지 않아 보인다.



원하는 디자인을 정하고 킬로 올린다. 실수하면 다 못이다.



원하는 색 스프레이로 도색한다. 짹 짹...



**오프로드 RC카** 불규칙한 노면용. 무식한 파워, **온로드 RC카** 평탄한 도로용. 스피드가 장점.

RC카의 숨막히는 상방신 노출

## MAXIM RC카, 태어나다

"어디서 차를 구입 것인지에 따라 RC카 종류가 달라집니다" 며칠 내내 간지 나는 MAXIM RC카 디자인안 고민하고 있던 에디티에게 조형준 씨가 말했다. 촬영 콘셉트부터 정해야 했다. 헛, 촬영 스태프를 비롯해 에디티와 RC카 관계자의 생각은 모두 같았다. 아침마다 불끈본 텐트를 설치하는 활기왕성한 수컷들의 MAXIM에는 호도로 얼음 파운던 같은 파워로 훑을 갈기며 거칠게 질주하는 녀석이 잘 어울린다는 결론을 내렸다. "훑발에서 어디 한번 제대로 텅굴어봅시다. 이대근처럼!" 기억이 나진 않지만 누군가 그렇게 외쳤다. 영문도 모른 채 다들 "그래! 이대근처럼!" 하고 응수했다. 그렇게 MAXIM RC카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수발, 세븐처럼 훑발 찍는대.

내가 알동령  
RC카를 즐기는 연예인들



서태지

원두 펀치에 카운터 펀치까지 얻어 맞아 지금은 약간 그로기 상태에 있는 문화 대동령이자, 시크리 웨딩의 아이콘 서태지는 단연 독보적인 RC카 마니아다. 서태지는 자신의 RC카를 콘서트 영상에도 출연시키고, 한 토크쇼에서는 아들네이라고 소개하며 남다른 애정을 과시했다. 그럼 얼마나 이자인가? 심혼은 정수라...

김종서

한때 신비주의를 고집했던 로커 김종서도 외출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되자, RC카 조립에 푹 빠졌었다. 밤에 아무도 없는 공원에서 완성된 RC카를 몰며 외로움을 달랬다고. 가만, 잔치라도 집에서 RC카 조립하고 있는 거 아니야?



체크 잘 있나?

김건모, 장우혁

김건모가 장우혁에게 RC카를 선물 해주면서 열두살 차이의 벽을 허문 우정기 시작했다. 매일같이 김건모 집에서 RC카를 조립하며 우정을 쌓은 그들은 완성된 RC카로 경주 대회에 참가하기도 했다. 본격 RC 덕후가 되어버린 장우혁은 한술 더 떠 연예인 카레이싱 팀에 입단했다. 건모 형. 이리 우리, 우리가 높아줄게.



스파크 니오라고 해!

결전의 날

MAXIM RC가 제작 프로젝트 돌입 5일 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다가왔다. 촬영한다고 하고 근처 PC방에서 아동 보기에 완벽한 햇살이 쏟아지는 청명한 가을날이었다. MAXIM RC카를 꾸미느라 밤을 꼬박 새워 디스크를이 남심까지 내려온 허비센터 조형준 씨와 촬영 스태프가 모두 모여 서울을 벗어나 영종도로 향했다. 영종도는. 공사하다 중간에 부도가 났는지 어쨌는지 불규칙하게 깎다 만 민둥산이 많다. 사진 답사 때 미리 썰매 둔 배경 죽이는 곳에 차를 세웠다. RC가 녀석도 본 게임 전에 준비운동으로 그 넓은 벌판을 마구 휘젓고 다니며 몸을 풀었다. 스파크군 앞에서 거침없이 침프를 해대는 RC카를 보며 (파랑새는 있다)에서 본 이상인과 절망이 박남현의 대결이 생각났다.

왕뚜껑 나가 먹었나?



뒤를 이렇게 살살...

가자 키트!



특든한 끈으로 MAXIM 스파크 군과 MAXIM RC카를 연결했다. "이거 끝면 진짜 대박인데!" 모두가 기대하며 조형준 씨가 조종기에 손을 올렸다. MAXIM RC가 군은 거친 엔진 소리와 함께 사방으로 흩을 튀기며 촬영에 돌입했다. 스파크가 긴장이라도 하는 듯 흩먼지를 뒤집어쓰며 가만히 부동자세를 유지했다. 과연, MAXIM RC카는 스파크 군을 끝낼줄까? 결과는 MAXIM 홈페이지와 QR 코드 동영상에서 확인해보자.

GUY'S DREAM CAR



포마 자동차 붐뽕

친환경 고효율 1965년형 하이브리드 카



<전격 Z작전> 키트

하전한 인간 친구 따윈 필요 없어.



<이나셀D> 하치로쿠

씨발, 남자는 드리프트!



<PI> 라이트닝 매킨

귀여워서 여자들이 환장하...!!

**G**  
**O**  
**M**  
**E**  
**S**  
—  
**S**  
**W**  
**E**  
**E**  
**T**  
—  
**G**  
**O**  
**M**  
**E**  
**S**



대출은 솔로몽.  
비키니 화보는  
제시카 고메즈.  
드디어 그녀가 왔다.  
한국과 호주의 수교  
50주년을 기념하는  
최고의 이벤트 아닌가!

BY MARIA FONTOURA  
PHOTOGRAPH SASHA EISENMAN

읽어주는  
활영당  
스캐치





## 제시카 고메즈

고향: 말빈, 호주

생년월일: 1985년 9월 25일

### 꼭 가고 싶은 곳:

“포르투갈, 사랑이 넘치고  
문화가 아름다운 곳이다. 모든  
이것이 편안하고 여유가 넘친다.”

### 화끈한 기술:

“굽는 걸 잘한다. 채소나  
로즈메리 허브, 올리브 오일,  
마늘을 곁들인 치킨 요리.  
하어튼 워든 오븐에 집어넣고  
굽는다.”

### 싫어하는 것:

“정리 청돈을 해야 직성이  
풀린다. 결벽증이 좀 있다.  
운전을 할 땐 차에 절대  
쓰레기가 있으면 안 된다.  
스피커 불륨은 반드시 필수  
숫자에 놓아야 한다.  
안 그러면 운전을 못 한다.  
내가 생각해도 이상하다.”

### 숨은 재능:

“디제리두(호주 원주민의 전통  
목관악기)를 연주한다! 집에도  
한 개 있다. 악기 끝이 떨어져서  
불어본 지 꽤 오래됐다. 하지만  
연주하는 걸 무척 좋아한다.  
소리가 정말 아름답다.”



지금 당장 남쪽을 향해 절하라. 제시카 고메즈를 일태한 그곳. 호주를 향해 한국에서 <댄싱 위드 더 스타>로 더욱 유명해진 그녀가 명성에 걸맞은 아름다운 자태를 선보이며 전 세계 MAXIM 편집부 사무실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녀의 몸매는 아마 지구 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위험한 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 자, 세계 최고의 수영복 모델 제시카 고메즈의 사진을 보며 자물어가는 2011년을 보람차게 마무리하자. 정말 우리네 인생은, 하아... 아름답다.

**촬영을 즐거웠나요?**

진짜 재미있었어요. 한국에서 <댄싱 위드 더 스타> 탈락 직전에 매니저가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걱정하지 마. LA에서 MAXIM 커버 촬영을 하게 됐어" 그러고는 진짜 탈락했어요! 하지만 크게 낙담하지 않았어요. MAXIM 촬영에 대한 기대가 컸거든요.

**우리가 도움이 됐더니 다행이네요. 한국에서 인기가 그렇게 많나요?**

4년 전부터 한국에서 광고 촬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My Name Is Jessica Gomes>란 프로그램도 했구요. 제 커리어와 인생에 대한 짧은 다큐멘터리였어요. 촬영팀이 절 따라 뉴욕의 촬영장과 피자를 함께 나눠줬.

**춤을 잘 추나요?**

그 쇼에서 무려 3등을 차지했어요! 춤이 그렇게 즐거울 줄은 몰랐어요. 많은 걸 배웠죠. 특히 몸을 움직이는 다양한 방법을 배울 수 있었어요. 춤을 추면 평소 안 쓰던 근육을 움직이게 돼요. 내 인생 최고의 몸매를 갖게 해주었지요.

**더 좋아질 게 있었나요? 그나마 이 해변은 맘에 드나요?**

완전 좋아요. 시드니에 있을 때도 해변에서 자주 놀았어요. 여자인구들이랑 점심을 해변에서 먹기도 하고요. 물놀이를 하고선 하루종일 태닝하는 걸 좋아해요.

**10대 때 호주 TV 쇼 <Bush Patrol(직역: 수풀 수호대)>에 출연했죠. 뭔가 무성한 게 나오는 건가요? 프로그램 이름처럼...**

수풀에 사는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의 황금적인 세계와 황홀한 모험을 담은 어린이 프로그래밍.

**아, 우리가 상상하는 그림은 아니군요. 야생 숲 속에서 생존할 자신이 있나요?**

잘 몰라요! 학교에서 뱀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배웠어요. 땅에 발을 쿵쿵거리서 겁을 주어 쫓아내면 된대요. 고등학교 때는 야외 수업을 하면서 텐트 치고 바위를 오르고 노를 찢고 야생에서 요리를 하는 등등 온갖 것을 배웠지요.

**17세에 모델 일을 위해 독립했어요. 겁나지 않았나요? 그랬죠. 하지만 동시에 독립해도 걸렸죠.**

**당신은 전형적인 패션 모델 몸매는 아니지요.**

맞아요. 체제는 말했는데 가슴은 엄청나죠. 몸이 자랄 무렵, 좌절에 빠져선 제 소속사에 전화를 걸어 "가슴이 점점 자라요. 샘플 사이즈의 상의가 이제 안 맞는대요!" 하고 울상을 지었죠. (도망치려 소나 화보 촬영을 위해 있는 곳 은 보복 가장 작은 원 사이즈!) 하지만 난 운이 매우 좋았지요. 성숙한 여인이 되자 사람들이 가슴에 열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난 수영복 모델이 되었죠.

**아버지가 포르투갈 사람이고 어머니는 중국인이예요. 양 부모님으로부터 무엇을 물려받았나요?**

직업 유리는 어머니로부터. 제 몸매의 곡선은 아버지 쪽에서 물려받았지요. 그리고 아버지가 <댄싱 위드 더 스타>를 보시고는 저에게 "그 춤 습씨는 포르투갈에서 온 거야. 피는 못 속이지!" 라고 말씀하셨어요.

**미국에서 꽤 오래 살았어요. 미국 남자는 어때요?**

커리어 중심적이고 호전적이에요. 크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재전 새로운 경향이있죠.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열정이 넘치고 늘 '할 수 있다'고 말하죠.

**미국인들은 놀기도 잘 놀아요!**

맞아요! 합합을 좋아하는데. 호주에는 합합을 좋아하는 클럽이 없었어요. 하지만 뉴욕에서는 어디서든 들을 수 있어요. 친구들과 자주 춤을 추러 가는데, 가서 보면 모두가 즐기고 있어요. 제이시 콘서트에도 갔었는데 인기가 엄청났어요. 미국인은 기운이 넘치는 것 같아요.



"등에 벌레가 붙었어요!" 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속지 않았답니다.

피아노가 왜 싸익 웃고  
있는지 알겠네.







“ 직업 윤리는 중국인 어머니로부터  
제 몸매의 곡선은 포르투갈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어요. ”



A woman with long dark hair is posing on a beach. She is wearing a bright yellow bikini top and bottom. Over her bikini top, she wears a large, ornate necklace made of multiple strands of gold and red beads, with gold coins and charms hanging from it. Her hands are raised behind her head. The background shows the ocean and a sandy beach with some driftwood in the foreground.

“ 성숙한 여인이 되자 사람들이  
제 가슴에 열광하기 시작했죠. ”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GO TO  
MAXIM  
iPAD  
이공계 컷



# SELF DYING SERVICE GUIDE!

죽는 것도, 죽는 방법도 가지가지다.  
이왕 황천길 구경할 거라면 돌똥하고, 확실하고, 간편한 방법을 선택하  
자. 돌아오면 번거롭잖아? BY **박현빈**

## 몸뚱이를 없애라

일단 지상에서 당신 육신이 차지하는 부피를 제로로 만들어 보자.



특허 받은 10가지 성분이 하나로 합쳐지면 무서운 메칸티V는 되지 못해도, 무시무시한 다이어트 약으로 변신한다. 대륙이 만든 슬림 10 다이어트 약은 “효과가 없으면 환불하셈”이라는 캐드립을 치며 사람들을 꼬드겼고, 싱가포르의 안드레이 다 크루즈는 순진하게 딱밤을 물었다가 식물인간 신세가 되었다. 다이어트에 특효인 성분 10가지가 아니라, 죽기 좋은 성분 10가지를 하나로 모았다고 특허를 받은 건가! 그래도 미국산 다이어트 약은 정신줄을 놓을 정도는 아니고, 몸뚱이만 상하냐 다행인가?  
**복용법:** 지금이 1,400년대라 생각하고, 이 약이 <와우>의 주술사가 만든 묘약이라 믿자. 그리고 “MB 느낌이 다 해 주실거야”라는 맹목적인 신념을 갖고 복용하자.  
**효능:** 네 삶을 지워버리는 건 물론이고, 죽음에도 골인할 수 있다.

### HYDROXYCUT

양키가 만든 에너지 대폭발 음료라고 철썩 같이 믿었다간 후회만 대폭발 할 거다. 2009년 미국은 몸속 기름기를 활활 타오르게 해준다는 음료 중 14가지를 리콜했다. 이놈들이 사람 몸뚱이에 폐악질을 한다고 미국 FDA(미국식품의약청)가 인정했기 때문이다. 반쯤 크리 당한 업체들은 이에 질세라 “이젠 정말 몸에 짱 무해한 버전”이라고 주장하며 새로운 버전을 내놓았는데, 문제

는 이것도 카페인으로 배넌, 사실상 카페인 덩어리였다. 이것들 병신 같지만 좀 멋있는데?  
**복용법:** 우정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라도 친구와 함께 원샷!  
**효능:** 망가지고 있는 당신 장기의 확인 사살, 심장 발작, 그리고 죽음까지 이를 수 있다!



### ORLISTAT

이 멋진 약은 돼지 같은 미국 양키마저 날씬하게 만들어준다. 몸이 지방을 저장하는 걸 막아주고, 상당량의 칼로리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이 약을 복용하다간 너의 뺨쓰에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지방을 배출할 수가 있다.  
**복용법:** 기저귀를 치라. 싶으면 생리대 쓰던가!  
**효능:** 이걸 먹다가 몸이 망가지면 병원

에 신세를 지면서 간호사와 농담 따먹기를 즐길 수 있겠지.



**14.3** 유명 연예인이 자살한 후 언론이 떠들기 시작하면 자살률이 약 14.3배 증가한다. 언론에서 호들갑을 떨수록 저 세상 가는 사람이 후폭 늘단 거지.



## 공기 다이어트

공기를 밥 삼아 1달간 버티는 말도 안 되는 다이어트지만 실제로 이걸 하는 놈이 있다는 사실. 하긴 이 정도 강도가 있는 것이라 죽을 각오로 살을 뺄 수 있겠지. 이왕 시도할 거라면 영험 있는 무당의 통제 아래에서 본격적으로 하도록, 탈수는 기본이고, 음식으로 죽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도록!

## FINAL CHOICE

### 우리나라 NO.1 자살대교: 마포대교

여러모로 따져봐도 이만한 다리가 없잖아?

우리나라에서 투신 자살로 가장 잘 나가는 마포대교에는 2006년부터 2011년 8월까지 총 188명이 투신했다. 한강대교 155명, 원효대교 84명, 성산대교 81명이 뒤를 이었다. 대단한 건 이 순위가 몇 년째 변하지 않고 있던 사실이다. 심청이 빙해의 한강으로 뛰어드려는 사람이 마포대교를 선호하는 이유는 도심과 가깝고, 대교로 올라가기 쉽기 때문이다. 투신자살의 명성도 무시 못한 선택 기준. 그러나 이왕 투신을 결심했다면 돈보따리에서 뛰어내려 실족사로 처리되지 말고, 마포대교를 선택해 자살 대교의 명성에 한 톨을 보태도록.

## 정신적 사망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산다면 당신 뇌는 이미 죽어 있을 거다.

# \$11,000,000,000

매해 미국 양키들이 정신력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 세미나, 책, 워크숍 등으로 자신을 정비하는 데 쓰는 비용이다.

### 터닝 포인트

호주의 터닝 포인트 센터는 영혼의 본질을 여행한답시고 사람들의 정신을 유년기로 고고성하는 코스를 만들었다. 문제는 이 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 3명이 유년기본아니라 죽음의 본질을 찾아 떠났던 거다. 불과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서 자살을 하더니, 유년기에 도대체 무얼 했길래...



# 6.2%

사람은 왜 이렇게 자신의 정신줄을 돌보는데 환장하는 건가? 미국에 서만 셀프 케어 시장이 3년간 6.2%가 성장할 걸로 예상된다 감이 잘 안 오지? 계산기를 두드리면 대략 5,200,000조 달러 규모에 달하는 시장이다.



## WEB SUICIDE

당신의 SNS를 자살시켜 드립니다. 당신의 빔꽃 향기 넘치는 사생활의 흔적을 모두 지워버리고 싶다면 이놈을 이용해라. 네덜란드 출신 개발자가 만든 이름도 무시무시한 '웹2.0 자살기계'(www.suicidemachine.org)는 트위터, 페이스북, 마이스페이스 등 자신이 가입한 SNS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물론 글과 사진은 물론 계정까지 한큐에 없애주는 서비스다. 자살을 결심했다면 여기부터 먼저 방문하는 게 좋을 걸?

## 텐트를 뜨겁게 세우...

2006년 제임스 아서레이의 의식을 거행한 텐트 안은 열기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추종자들은 산채로 훈제가 되어 갈 때도 "남들 염려 놓으셈. 내가 텐트를 사막에 내버려둔 것도, 먹지 말라고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임. 잘 하고 있으니 걱정 마삼."이라는 그의 말만 철책 같이 믿었다. 그 결과 3명이 죽고 18명이 다쳤다.



# 130,000

아마존의 '자아 개발' 카테고리에서 판매되고 있는 책의 수. 이중 35,240권은 '자신의 변신'이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이중 어떤 것도 당신을 울터머스 프라이머처럼 변신하게 하지는 못한다.

## 사회적 죽음

숨만 쉬다고 사는 게 아니지.



### ONLINE SUICIDE 용개의 캐릭터 삭제 사건 "왜래 EE"

〈와우〉의 네이트 유저 용개는 오리지널 시절의 콘텐츠를 모두 섭렵한 후 "이제 명예노가다와 레이드에 자랐다"며 자신의 캐릭터를 스스로 삭제했다. 유저의 '플러그인 베이비'를 배경음악으로 언데드의 거점인 '언더시티' 워층의 옥좌에 앉아 자신의 아이템을 하나 둘씩 파괴하며 캐릭터를 삭제하는 용개의 모습은 와우 유저에게 충격과 공포를 선사했다. '가상세계의 자살'이라는 주제로 덕후끼리 토론을 벌일 만큼 골 때리는 사건이었다. 참고로 이 사건 이후 유저의 '플러그인 베이비'는 디스인사이드 와우 갤러리의 비공식 주제로 등극했다?

# 960

우리나라에서 매일 평균 960명이 자살을 시도한다. 자살 시도가 가장 많이 이뤄지는 계절은 봄이다. 어쩐지 봄바람 난 이가씨들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디나.

### 국적을 버려라

국적이 없다면 당신이 어디 있던 곳에 불법체류다. 원래 불법체류자는 본국으로 추방되지만 무국적자라면 추방될 곳도 없다. 국가라는 사회가 봤을 때 당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나라 국적을 획득하면 기존 국적 말소는 당연한 얘기겠지? 이외에도 우리나라는 국가안보,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 등에서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다면 법무부 장관이 청문회를 거쳐 "너님 우리나라 국적

우리나라 국적상실자는 지난해에만 4,000명이 넘었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당신이 꿈에서도 가고 싶어하지 않은 근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지. 알면서?

취소요!"라고 결정할 수 있다. 살인, 성폭력, 마약 등 죄질이 나쁜 걸 골라서 저지르면 국적이 날아갈 가능성은 대폭 상승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 DDR TO DEATH

테크노 브레이크  
달콤하게 죽고 싶나?



테크노 브레이크란 자위 도중 성호르몬의 과도한 분리로 저세상으로 떠나는 증상이다. 성전국 일본은 1년에 평균 400~600명이 테크노 브레이크로 사망하는데 놀랄게도 그 중 100여 명이 여성이다. 남성의 경우 사정할 때 격한 운동과 동등한 수준의 부당이 심맥에 적용한다. 당신이 죽을 각오로 DDR에 도전한다면 절정에 달하는 순간, 이 세상을 등지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 실제로 일본 미야기현에 사는 남고생은 수십 회 자위행위를 하다가 성호르몬 과다 분리로 상반신을 탈의한 부끄러운 모습을 한 채 급사했다. 몇 달 전에는 42년의 DDR로 사망한 브라질 소년도 화제였다(하지만 사실 어부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

### HOW TO KILL BILL

〈킬비〉에서 악당 빌 역으로 출연한 품은 다 잡은 데이비드 캐리던(DZ)이 태극 병곡의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람들은 다들 처음에는 다들 그가 자살한 줄 알았지만 부검 결과 자위 행위 도중 흥분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목을 매다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일흔 넘은 할아버지가 자위를 한 것도 놀라운데, 로프를 활용할 생각이 꺼지나!

우리나라는 1992년 12월에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 의정서에 가입, 1994년 출입국관리법에 난민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이후 2001년 2월에 최초로 에티오피아 국적인 대구 다다세 데레세세에 대해 난민지위를 인정했다.



## 난민이 되라

난민은 국적 밖에 존재하는 자다. 자국에 있으면 개피를 볼 확률이 높아 “빌어먹을 우리나라의 보호 따위는 필요 없어!”라고 외치며 다른 나라로 고고싱한 케이스. 발길이 멈추는 나라에서 “난민 인정할 꺼요!” 라는 말을 듣기 전에는 그저 부유하는 유령으로 취급된다. 우리나라에서 난민이 되는 건 간단하다. “감정일 흥남 완전 멋제!” 라고 외치고 북한을 방문해라. ‘빨갱이’란 닉네임이 붙는 순간 당신은 다른 나라 난민으로 살아갈 수 밖에 없을 거다.

## 자살에 대한 오해

무식은 죄가 아니지만, 무식하면 자살을 막을 수는 없다.

- Q: 자살자는 유서를 남기나?
- A: 개를.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 별로 없다. 20%도 안 된다.
- Q: 자살한다고 떠돌아다니는 놈은 관심병 환자인가?
- A: 아니, 원래 자살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한다. 너무 구박 마라.
- Q: 죽기로 결심한 사람을 밀릴 방법은 없었나?
- A: 적절한 타이밍에 감정적으로 밀려주면 실패할 수 있다.
- Q: 상태가 개선되면 안살 수도 되는 건가?
- A: 이때가 더 위험하다. 자살 충동을 실행에 옮길 힘이 생소스나기 말이지.
- Q: 자살을 한 번 시도한 사람은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적잖아?
- A: 자살자 중 80%는 자살을 시도했던 경험이 있다. 시도해야 죽을 수도 있는 거다.



## 백수가 되라

제일 간단한 방법. 대부분의 사람들은 ‘백수 = 사회적 사망상태’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회사에서 쫓아낸 직장인은 직장 동료, 가족과 단절되면서 ‘불안-공포-분노-배신-감-해방감-질망 및 자포자기’의 단계를 거쳐 영어 인간으로 거듭난다. 이때부터는 몸통이만 살아 있을 뿐 사회적으로는 사람 신고를 받은 상태다.



## 집심이 되라

우리나라도 성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가 있다. 사회적으로 영히의 말살 당하고 싶다면 이곳에서 명성을 떨쳐라. 당신의 악명을 사람들에게 10년 동안 열광할 수 있으며, 당신 주변에 19세 이하의 아동 및 청소년이 있는 곳이면 이름, 나이, 거주지, 키, 몸무게, 범죄 내용과, 죄명, 형량까지 모두 공개 될 거다. 감 감, 강제추행, 성매매, 알선영업행위, 음란물 제작 배포로 범법이 유효조 형에 공개될 수 신고를 받으면 신상이 공개되는데 징역 3년 초과와 범죄에 대하여서는 10년, 3년 이하의 범죄에 대하여서는 6년, 벌금형의 범죄에 대하여는 2년의 기간 동안 열광할 수 있다. 그리고 아무도 당신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지.

## 방송에 출연하라

어려울 것 없다. 방송에 나가서 그냥 끌리는 대로 말해라. <무한도전>에 출연해서 정형돈을 본의 아니게 디스한 여자는 개인 홈페이지 주소가 공개되면서 몇 시간 만에 수천 건의 욕을 섭취했다. <화성인 바이러스>에 출연해 부모님 돈으로 4억 정도 빌렸다고 밝힌 여자는 이름, 사진, 휴대번호, 심지어 주민등록번호까지 탈탈 털렸다. 이 정도면 얼굴이 팔려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다. 사실상 ‘사회에서의 사망 신고’를 받은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상을 톤 범인은 기소 유예나 약한 벌금형 정도만 구형될 뿐이니 당신을 사회생활에서 강퇴시켜줄 이들은 차고 넘칠 수 밖에.



## 저스트 멘 미닛

이효리의 노릇만처럼 개인의 신상을 타는 데는 10분이면 충분하다. 이때일 주소만 확보되면 구글과 코골 콤플렉스 이용해 3분 40초 정도면 미니홈피에서 이름과 전화번호까지 확인할 수 있다. 생년월일은 물론 과거 범죄까지 확인하는 것 역시 누워서 딱지치기만큼 쉽다.

# Most Wanted Sa Hee

《론티》 '홍대 정태' 에서 말팔랑이 여자 경찰로 열연을 펼치고 있는 여배우 사회가 털털한 성격 뒤에 감춰두었던 성숙미를 마음껏 발산했다. 이런 경찰이라면 평생 갇혀 살아도 좋다!

BY 김희성 PHOTOGRAPHS ARC STUDIO WORDS&FILM 송종민 HAIR 황성 MAKEUP 일소영(김현민유메네프 02-516-0331) ASSISTANTS 이보라, 박한빛누리  
COOPERATIONS 바다람, 에블린(080-045-0456) 에베(02-3444-7712) 탑걸(02-546-7764) 슈즈원(02-3443-1703) 글은보좌(www.gebh.co.kr)

촬영장  
김투 하기





웨스트에 에블린  
구도 스타일링

이번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생애 첫 레드 카펫을 밟았다.

처음이라 많이 떨리고 부담도 했지만 왜 여배우들이 레드 카펫에 열광하는지 알 것 같다. 내가 진짜 여배우라는 느낌이 들어서 행복하고 즐거웠다.

레드 카펫에서 찍힌 사진들이 인터넷을 가득 메운 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

표정 관리 좀 할걸 왜 이렇게 바보같이 웃었지 싶었다(웃음).

당신 같은 매력녀를 요즘 자주 볼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

고등학교 때 몇 번 잡지 모델을 했는데 이후 좋게 보신 담임 선생님께서 연기를 권해주셨다. 동네에서는 좀 먹여주는 아이였거든요(웃음). 그러다가 대학교 3학년 때 미팅 프로그램으로 데뷔하게 됐다.

무명 기간이 꽤 길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때가 아니었던 것 같다. 요즘이 오히려 어려웠을 때보다 성격도 마인드도 더 준비되었다고 느낀다.

유인나도 지금 당신과 같은 스타일러스에 얼굴을 알렸던 하지만 중간에 그만두고 싶은 적도 있었을 것 같다.

슬럼프가 좀 있었다. 오디션 유행종이 특히 심했다. 거의 뭘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최종에서 너무 미는 바람에 아이없게 떨어지는 일도 몇 번 있었다. 그래서 1년 동안 폭 안 쳐도 있다. 그때 연기를 그만둘 뻔했는데 어쨌든 함께하고 있는 소속사 식구들이 나를 붙잡아줬다. 그래서 그 은혜를 빨리 갚아야 한다. 돈 많이 벌어야 한다(웃음).

그리고 보니 스타일러스이면 결혼할 나이가 아닌가. 하나둘 결혼하는 친구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

결혼해서 벌써 애를 3명이나 낳은 친구도 있다. 하지만 예전부터 빨리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아직 낳지도 않고... 또 지금은 일하는 게 재미있다

어떤 남자를 만나고 싶나?

의외로 외모보다 잘 타고 소심한 편이라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남자가 좋다. 자상하고 나를 챙겨줄 남자 어디 없나? 연예인으로 치면 차태현 같은 남자. 난 유머러스한 스타일에 끌린다.

그런 남자가 당신 앞에 나타나면 어떻게 할 건가?

좋아하는 남자가 생기면 먼저 대시하는 편이다. 일단 친구처럼 편안하게 부담 없이 접근해서 사실 녹일 거다(웃음). 내 달달한 성격은 이럴 때 특히 더 유용하다.

예쁜데 달달하기까지 하다니... 당신의 대시에 알 넘어가는 남자도 없나? 그런데 만약 남자친구의 외도 현장을 포착하면 어떻게 할 건가? 영화 <불량남녀>에서는 바보같이 울기만 하더라.

평소에는 농담처럼 "바람 피우기만 해" 하고 험악하지만 진짜 그러면 울아서 눈물만 흘릴 것 같다. 큰소리 내며 싸우는 걸 잘 못해서... 영화 속 캐리티와 결국 비슷하겠네. 엉엉.

뉴스피어 예블린  
재킷 합금  
벨기 금은보화  
구두 슈즈원





스튜디오 브라슬립 배티탑  
퍼펙스트 에베



요즘에는 tvN <골러코스터: 흥대 정태>에서 경찰로 등장해 늘 오른 연기를 보여주고 있다. 당신의 코믹 연기에서 깊이가 느껴진다.

사실 이 연기가 쉽게 나오는 게 아니다. 특히 똥 장면들 유독 많이 찍었는데, 이 연기를 위해 평소에도 엄청 급란에도 억지로 참아가며 "지금 이 느낌을 기억해야 해"라며 내 표정과 행동들 꿈꿈이 기억하는 훈련을 한다. 다른 여배우들이 일상에서 눈물을 흘리다가 "지금 표정을 기억해야지" 하며 눈물샘카를 찍는 것과 비슷하다. 난 그게 단지 아래쪽일 뿐이다(웃음).

통이라는 단어가 따라다니는 게 어쩌면 여배우에게는 치명적일 수도 있는데, 부담스럽지는 않나?

처음에는 이런 캐릭터로 굳어질까 봐 조금 걱정했다. 그런데 다들 맡아지는 모습을 귀엽고 재미있게 봐주고 인지도도 높아져서 안심이다. 예쁜 척하는 것 보다 더 인간미 있고 친근하게 다가가기니까.

최근 가장 행복했을 때는 언제인가?

머칠 전 부산에서 세고시 먹었을 때, 드레스 입고라고 이데이 나 굴었었거든.

본명이 김영숙이다. 부모님을 원망한 적은 없나?

할머니가 산 너머에서 비싼 돈 주고 지은 이름이다. 우주와 영숙이 중에서 고른 거다. 하지만 집에서는 다들 날 공주라고 불렀다(웃음). 그러다가 초등학교 때 서체원 씨가 "영숙이 숙제 했어?" 라는 말을 유행시켜서 고생 좀 했다. 선생님들이 아침 조회 시간마다 영숙이 숙제 했냐고 물어봤거든. 또 <은실>이란 드라마에서 성동일 씨가 "영숙 씨"를 유행시키는 바람에 진지하게 이름을 바꿀까 고민한 적도 있다. 그래서 작정하고 적영소에 갔는데 영숙이가 제일 좋더라. 운명인가 했다.

그럼 사회라는 이름은 어떻게 지은 건가?

생각 사 기를 희 방송 활동을 시작하려고 얼마랑 작업소에 가서 지은 이름이다(웃음).

앞으로 어떤 역할에 도전해보고 싶나?

<연애시대>의 손예진같이 맹하면서도 귀엽고 사랑스러운 역할을 해보고 싶다. 액션 연기도 해보고 싶다. 하지만 아직 색시한 역할에는 자신이 없다.

지금 무슨 소리하는 건가? 오늘 얼마나 색시했는데!

사진에는 색시하게 나왔는지 몰라도 색시한 연기는 아직 어색할 거다.

죽기 전에 꼭 이뤄야 할 목표가 있다면?

연기자로서 상 한 번 받아보고 싶다. 어우주연상 말이다! 매너저 오빠들 이름 한 번씩 불러주고 싶다.

그 때 MAXIM도 한 번 외쳐달라, 아니 불러 주세요. ☺



“ 난 의외로  
외로움을 잘 타는  
소심한 여자다 ”





### 시희

생년월일: 1983년 6월 18일

트위터: @sahee0618

고향: 경북 용기

특이한 경력: 미스 준왕 신발대회

미 출신

몸매 관리: 운동을 좋아해서 쉬는 날이면 수영과 헬스를 빼놓지 않는다. 여름에는 웨이트부드, 겨울에는 스노부드를 타러 다닌다.

경험 재목: 트위터에 잘 어울린다는 칭찬이 많아 기분 좋다. 촬영 구경하면 분이 "이런 경칭이면 정말 기분 좋게 발금 날 수 있겠다" 고 하더라.

노래 실력: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 <위대한 캐츠>에 나왔었다. 가수도 해보고 싶지만 댄스를 하기에는 몸이 예전 같지 않다(웃음).

깊은 대화: 시종두 상에는 헤어졌지? 할 수 있을까? 응? 응?



# ALLAH'S MAGIC STICK RPG-7

알라신이 이슬람 땅개에게  
선물한 가격 대비 최강 로켓포!

한 세기에 나올까 말까 한 완벽한 로켓포가 이슬람 전사의 손에  
줘어지자 그 위력은 상상을 뛰어넘었다. RPG-7 때문에 박살 난  
적군들은 RPG-7을 '알라의 매직봉' 이라고 부르며 증오해 마지  
않았는지? BY 김대영



## RIVAL SHOOTING MACHINE -1-



### M72 LAW

미국 평가가 격하게  
아닌 전술용  
대전차 로켓포

미 육군이 1969년부터 사용한 초소형 대전차 무기 M72 LAW 역시 일화이다. 그럼에도 발사기의 무게가 노트북 수준인 2.5kg에 불과한 데다 300mm 정도는 가볍게 관통해버리는 무시무시한 위력 때문에 인기 만점이었다. 사방 양키의 대표 무기로 자리 잡는 가 했는데 안타깝게도 미군이 AT-4 대전차 로켓포를 전격 채용하면서 인기가 한 방에 옥 같다. 하지만 최근 아르칸잔과 이라크전을 거치며 숨어 있는 반군의 은신처를 조절 무기가 필요해지면서 열외로 탄두를 장착한 개선판 M72AS LAW가 히 히터로 떠올랐다. 미 해병대와 일부 국가의 특수부대에서 사용 중이다.

## 전차 꿈짜매! 성형직약탄과 함께 시작된 땅개의 반격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전장이 전차가 등장하자 땅개들은 총격과 공포에 빠졌다. 추후낙엽처럼 쓰러진 땅개를 보며 피눈물을 흘린 각국은 전쟁이 끝나자마자 이 괴물을 처치하기 위해 몰입했다. 그 결과물 중 하나가 성형직약탄이다. 이른바 '엔로 효과'. 즉 철판에 폭약을 할발 붙여 폭발시키는 것보다 그 사이에 빈 공간을 만들 때 관통력이 증가한다는 것에 주목했다. 폭약을 관통력이 가장 극대화되는 끝때기 모양으로 성형한 후(응?) 일정한 방향에 폭발력이 집중하게 만들었다. 그 덕에 살상 면적은 좁지만 폭약의 힘만으로도 장갑을 뚫는 관통력을 얻는 데 성공했다. 적은 발사체로도 두꺼운 전차의 장갑을 관통시킬 수 있는 경제적인 무기로 간 것도 감성이다.

## 로켓포의 원조 할매, 독일 판자파우스트

제2차 세계대전은 전차에 개미를 뱉던 나라들이 성형직약탄과 로켓을 합성한 대전차 로켓포로 반격을 시작한 시기였다. 대표적인 녀석은 폴폴이의 대표 명사 '바주카(Bazooka)'와 독일의 '판자파우스트(Panzerfaust)'다. 이 중에서도 독일의 판자파우스트는 2세대만큼 질나갔다. 비록 관통력만 한 번 쓰고 버려야 했고, 사거리도 짧았지만 보병 한 명이 전차를 잡아낼 수 있는 엄청난 경제적인 무기였다(실제로 당시 모든 전차의 장갑을 뚫을 수 있었다). 독일과 싸우다 극적인 역전승을 거둔 구 소련도 전쟁 중에 판자파우스트를 분석한 후 최초의 소련계 대전차 로켓포 RPG-2를 개발했다. RPG라고 해서 롤플레이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놈은 대가리 박아라. 러시아 말로 '휴대용 대전차 유망 무기'라는 뜻의 펄라라는 이 녀석을 구 소련은 육군 보급 재식 장비로 전격 채택했다. 이후 1961년 RPG-2의 사거리와 위력을 강화시킨 오늘날의 RPG-7 대전차 로켓포가 등장했다.



### 김대영

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0여 년간 은·오프라인에서 국방 관련 칼럼을 기재해온 밀리터리 전문 칼럼니스트. 육군 출신 아이진(ARMYIN)에서 (영속 속의 전쟁)을 기고했다. 현재 네이버 캐스트와 조선닷컴에서 군사 관련 기획물을 연재 중이며, 인텔리뷰에서 국방조사회 팀장을 맡고 있다.

홈페이지 [www.cyworld.com/undercoverbrother](http://www.cyworld.com/undercoverbrother)





## 로켓포의 아이콘이 되다

RPG-2의 촉보를 이은 RPG-7은 구 소련 육군과 바르샤바조약기구 당 개의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다. 구 소련은 RPG-7을 동맹국, 냉전 시절 서방 세계에 마진가치처럼 로켓포를 날려대고 싶어 환장한 테러리스트와 반군에게 파격가로 신나게 팔아댔다. RPG-7은 베트남전에서 데뷔하자마자 미군 전차를 신나게 요단강으로 날려버렸고, 제3차 중동전 용 키프루(Yom Kippur) 전투에서는 대전차 미사일 AT-3 새거(Sagger)와 콤보를 이루어 하루에 800여 대의 이스라엘 군 전차를 박살냈다. 한마디로 로켓포계의 아이콘으로 등극한 것이다.

## RIVAL SHOOTING MACHINE -2-



### PZf-3

노벨 아저씨 회사가 만든 바로 그 로켓포!

독일군의 대전차 로켓포의 업그레이드 버전 판 제피우스트-3는 1989년부터 독일 연방군이 사용했다. 우리에게 '노벨상'으로 유명한 다니어 마이트사가 총 26만 여기를 생산했는데, 현재 우리 군도 1990년대 초부터 1만여기를 들여와 사용 중이다. 대전차 로켓포의 고질적인 약점인 미사일 발사 후폭풍발사 후 추방 45도로 약 30m까지 분사되는데, 정면으로 맞으면 목숨을 잃을 만큼 강력80파울을 획기적으로 줄인 게 특징이다. 그 덕에 좁아터진 참호 안에서도 로켓포 남사가 가능하며, 4번 정도는 재활용이 가능하다. 700mm 정도의 장갑을 뚫는 건 기본이다.

## 베스트셀러 일 수밖에 없는 착한 가격

러시아의 바질트사에서 생산 중인 RPG-7는 현재 40여 개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다. 몇몇 국가에서는 RPG-7의 라이선스를 받아 생산하거나 카피캣 제품을 만들고 있다. 대표적인 녀석이 중국의 69식 화전통, 북한의 7호 발사관, 베트남의 B-41 대전차 로켓포다. 최근에는 미국의 에어로닉사도 Mk 7771라는 이름으로 RPG-7를 생산 중이다. 공식적인 통계는 없지만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 판매되는 대전차 로켓캣계 RPG-7은 구하기도 쉽고, 가격도 저렴하다. 아프리카나 중동의 암시장에서 RPG-7의 발사기는 300달러, 포탄은 25~50달러 정도다. 우리나라 돈으로 40만 원 정도, 중저가 스마트폰 대 가격이면 RPG-7 세트를 지르고 남겠지.





## 알라님이 내려주신 요술봉이 요기 있네

근본주의 이슬람교를 믿는 반군 및 테러리스트의 손에 주어진 RPG-7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1979년에 발발한 아프간전쟁이다. 초강대국 구 소련을 상대로 이슬람 전사들은 험난한 지형을 적극 활용했고, 구 소련의 무기 RPG-7로 끈질긴 게릴라전을 펼쳤다. 미국의 베트남전쟁처럼, 아무런 이득이 없는 계속되는 소모전과 게릴라전에 피가 마른 구 소련은 결국 군을 철수시켰다. 이후에도 RPG-7은 1994년 제1차 체첸 분쟁에서 러시아군을, 2001년 아프간전과 2003년 이라크전에서는 수많은 미군을 일라신 결로 보내며 두려움의 상징으로 악명을 떨쳤다. 강대국의 군대를 상대하는 이슬람 전사들에게는 RPG-7이 진정한 '알라가 내려준 고미운 요술봉' 이었고, 상대편 군인에게는 '알라가 던져준 벌어먹을 요술봉' 이었다.

## 이제는 헬기고 할정이고 나발이고 다 죽었어

RPG-7을 전차를 잡는 용도로만 생각하면 오산이다. 영화 <블랙 호크 다운>의 배경이 되는 1993년 소말리아의 모가디슈 전투에서 소말리아 반군은 여러 대의 RPG-7을 낚사해 미 육군의 특수전 헬기 블랙 호크 2대를 잡아내는 성과를 올렸다. 최근에는 소말리아 해역이 배 위에서 이들을 발사해 상대 함정을 공격하는 창의적인 활용법까지 개발하면서 그 용도가 확장되고 있다. 지난 1월 21일 해군 청해부대의 삼호주얼리호 구출 작전 '아덴만 여명'에서 해군 구축함 최영함의 가장 끝치를 쏜 무기 역시 바로 RPG-7였다. 40만 원도 채 되지 않는 녀석이 가격 이 수백 배 되는 헬기, 구축함까지 공포에 떨게 만드니 이들을 공격기 최고의 명개 무기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거다. 가격 대비 성능비가 뛰어나다.

## RIVAL SHOOTING MACHINE -3-



**AT-4**  
미국 명개기 지른  
스웨덴산 대전차 로켓

AT-4는 미군이 쓰고 있지만 스웨덴의 사브 보포스 다이내믹스가 만든 무기다. 사실 미군도 1970년대 말 LAW를 대체할 딱딱딱한 신형 바이퍼를 개발하려 했지만 버그가 속출해서 계획 자체를 전면 백지화했고, 옮겨 가져 먹기로 입찰을 통해 AT-4를 질렀다. 자국산 무기에 한 장하는 미군에게 해리어 수직이착륙기와 함께 예외적인 케이스 중 하나로 꼽힌다. 마천가지로 1회용이고, 400mm 정도는 가볍게 관통한다. 판저파우스트-3처럼 후폭풍이 적다는 게 장점이다.





To

For



**YVONNE STRAHOVSKI**

미드 <착>을 광내는 섹시 비밀 병기 이본느 스트라호브스키가 거친 액션이 난무하는 영화 <킬러 엘리트>에서 로버트 드니로와 제이슨 스타뎀의 눈을 환율하게 만들었다. 그 기쁨, 우리도 누리보자!

BY PATRICK CARONE  
PHOTOGRAPHS STEPHAN WURTH

**Die**

“ 나는 약간 뜰끼 있고  
정중한 남자가 좋다.”



✗ 할리우드에는 로버트 드니로와 제이슨 스타뎀 같은 육직 한 아이들 사이에서도 연기와 액션으로 자기 존재감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안소 여배우들이 있다. 이본느 스트라호브스키도 그중 한 명이다. 그녀는 <킬러 엘리트>에서는 우연히 악당의 싸움에 휘말리는 농장 아가씨를 연기하면서 자신의 매력과 마음껏 빛났었다. 이본느는 이미 미드 <착>에서 여러바리한 남자 주인공 옆집에 사는 귀엽지만 엉뚱한 CIA 요원으로 등장해 시청자의 눈을 사로잡았다. 이 시리즈에 출연하기 위해 고향 호주로 떠나는 이본느의 할리우드 안착 성공 비결이 예뻐 얼얼 뿐이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그녀가 CollegaeHumor.com에 올린 회제의 패러디 뮤직비디오는 그런 생각을 단박에 불식시킬 거다. 말 그대로 가관이다. 레이다 가가, 케이티 페리, 케사, 이 세 팝스타를 아주 드럽게, 그리고 코믹하게 패러디한 이 영상이 공공하더라면 구글에서 검색해보도록(귀찮으면 위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MAXIM 홈페이지로 찾아오라). 모두 미워 숨은 지독한 유머 감각이 당신을 거의 자리게 만들 거다.

이런 말이 있다. 로버트 드니로를 밥(Bob)\*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할리우드에서 수단이 제대로 자리 잡고 성공한 거라고. 당신은 그 과정을 이루었나? \*밥: 로버트 드니로의 별명. 어릴 때 학교 선생에서 별명이 바비 일드였나? 성공했다.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 리스트에서 이제 그 항목을 지우야 할 것 같다.

#### 밥과의 첫 만남은 어땠나?

그냥 그의 트레일러 문을 노크했다. 그리고 그가 거기 있었다! 사탕 가게에 들어간 아이가 된 기분이었다. 입이 귀에 걸렸었지.

#### 제이슨 스타뎀은 영화에서처럼 기립 남자는 터프가이인가?

아니, 전혀 그렇지 않다. 누군가를 실신시키기 위해 늘 안달 나 있는 것 같진 않았다.

이게 또 남녀 사이인, 당신 같은 매력녀가 그 남자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게 실제로 사람을 때리는 것보다 더 아플 수도 있다.

맞다.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우리 온 누이 관계에 가까웠다. 생각해보면 좀

징그럽다. 영화 <킬러 엘리트>에서 우리 연인 관계로 등장하니!.

당신이 맡은 역할은 농성에서 일하는 아가씨다. 호주에서 보낸 당신의 성장기도 비숄했나?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시드니 교외 지역에서 자랐는데 수몰 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하이킹도 하고 바위도 오르고 달리기도 하면서 말이다. 그런 장면들은 내 어린 시절 기억과 많이 닮아 있다.

음, 아무래도 우리 '수몰에서 시간을 보낸다'라고 하면 뭔가 다른 상상을 하게 된다. 브라질리안 확성기\*이 필요하진 않을까 하는...

혹은 안티 브라질리안 확성기를 떠올릴지도. \*음모를 완전히 민중으로 미는 제도

바로 그거지 이야기를 이어서, 호주인에 대한 외국 사람들의 편견 중 가장 많이 틀어본 건 무엇인가?

도심에 캥거루가 뛰어다닌다고 생각하는 거다. 하지만 그런 오해다. 캥거루들이 풀아다니긴 하지만 전부 그 무성한... 수풀 속에 있다. 아. 또 그 단어가 나오는

권 정말 이 농담을 이어서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무도 요즘엔 수몰을 안 본지 꽤 오래됐다.

조심하는 게 좋을 거다. 우리가 방금 당신의 마지막 말만 따서 당신 사진 옆에 넣어버릴지도 모른다.

약 안 돼 좋아. 그럼 "나는 호주의 숲이 그림자"라고 바꾸자. 아메?

월린 건전하긴? 고향이 그리운 또 다른 이유도 있었지?

오스트레일리아의 초콜릿이 그림자. 하지만 어차피 있어도 먹진 못할 거다. 왜냐하면 요즘엔 설탕을 아예 안 먹으니까. 그냥 냄새만 맡고 나의 욕망을 충족해야지. 아, 인터뷰가 점점 시궁창으로 빠져드는 것 같다. 말하는 거라면 전부 냄새 맡거나 무성한 수몰에 대한 거라니...

<착>에서 보여준 액션 연기가 인상적이었다. 어릴 때 무술이라도 배웠나?

그렇진 않았다. 하지만 다섯 살 때부터 열여덟 살 때까지 무용을 했다. 그래서 안무나 춤을 익히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 물론 동작을 더 연습하긴 해야 했다. 너무 빌레처럼 보이면 안 되니까.

이런 MAXIM에 나온 호주 여자 중 내가 제일 예쁘다고 말해 어세



사라 워커(척)에서의 배역 이름)를 연기하는 게 무척 재미있었을 것 같다. <척>은 코미디 액션 드라마 로맨스물이다. 난 거기서 TV 쇼 사상 최고의 여성 캐릭터를 연기했다고 생각한다.

**<척> 새 시즌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이제 척과 사라가 결혼에 골인했으니 둘 사이에 훨씬 더 다이나믹한 일이 펼쳐질 예정이다. 그리고 마크 해밀과 캐리-앤 모스가 합류한다. 정말 흥분된다.

**이번 시즌이 마지막인가?**

나는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만으로도 놀랍다. 드라마가 시작할 때 우린 거름 같은 존재였는데, 우리가 계속 전파를 탈 수 있었던 건 모두 팬들 덕분이다. 지난 시즌 마지막 무렵, 뭐랄까 이런 마무리를 하지 않아도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엄... 아마 우린 다시 돌아올지도?"

**팬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당신에게 엄청 집착하는 팬도 있었을 거다. 뭔가 이상한 선물을 받았던가...**

아주 흥미로운 시를 받은 적이 있다. 한 장, 한 장, 그리고 또 한 장... 끝도 없는 시. 그것도 리움을 맞춘...

**거 참 괴상명측하군! <척>에서 당신은 피파에게 끌리는 여자다. 실제로 그런 남자를 좋아하나, 아니면 좀 더 남자다운 사람에게 끌리나?**

둘을 섞은 타입을 선호한다. 나는 약간 들끼가 있는 정중한 사나이가 좋다.

**그나저나 CollegeHumor.com에 올린 패러디 뮤직비디오에서 케샤를 흉내 내며 토하는 팔라너 연기가 일품이었다. 경험에서 우러나온 거겠지?**

그렇 리가. 난 잘 토하지 않는다. 그 단계까지 가지 않는 나만의 비결이 있다. 빵을 먹는 거대 약간 올라온다 싶을 때 속이 편해진다. ☺







오토바이가 수줍게 고개를  
내렸다. 녀석, 너도 남자구나.



이본느

스트라후브스키

고향: 호주 시드니

생년월일: 1982년 7월 30일

**파티 장소:**

라스베이거스. "도박은 이제 지겹다. 하지만 춤 추는 건 좋다. 지난번에 갔을 때 율나이트로 놀았다."

**시크니처 드링크:**

"태킬라를 온 더 룩으로 거기에 신선한 파인애플 주스와 라임을 살짝 추가한다."

**시간 도둑:**

앵그리 버드. "거의 여기에 미쳐 있다. 수박 스테이지도 전부 봤고, 모든 단계에서 별 3개를 얻었다. 내가 봐도 좀 놀란다."

**끊을 수 없는 유혹:**

(토들러스 앤드 티아라스)  
(아이에게 아한 옷을 입고 화장을 떡칠하는 걸로 미국 내에서 악명 높은 어린이 미인 대회 리얼리티 쇼). "상당히 배울 게 많다...라고 이걸 보는 나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있다."

**최근 식단:**

"달콤한 쿠키, 크리스피 크림 도넛, 누텔라 초콜릿, 헤이즐넛으로 만든 잼으로, 일단 열면 병 바닥을 보게 되는 '악마의 잼' 한 병. 어머머만한 살량을 섭취했다."  
아간 살량 안 먹는다며?



촬영 현장  
스케치와  
특별 영상  
↓



# STYLE

## 100 프롭니다

순결함은 가슴팍에 뜨거운 열기를 불어넣었다.

BY 고경희 PHOTOGRAPHY ARC STUDIO

COOPERATIONS 수퍼드라이(www.superdry.kr)  
타이힐퍼거, 데님&서울라이 할프론텐(02-546-7764)  
스톤아일랜드, 씨비컴패니(02-3446-0949)  
보스 블랙 텐(02-543-7685)



빨간색 로고가 생기를 불어 넣는다. 체크무늬 팔꿈치 패치가 앙증맞다.  
235,000원 타이힐퍼거



눈꽃을 형상화한 패이 아일 패턴은 직직한 겨울옷에 화려한 꽃을 피운다.  
255,000원 타이힐퍼거



완장 같은 허안색 띠 디자인이 강렬한 붉은색 니트에 위엄을 더한다. 여진이 당신의 일에 고분고분하게 복종할지도...  
495,000원 스톤아일랜드



## 1. 양모 WOOL

따뜻한 호주에서 사육된 메리노 양모가 방한용 제품으로서 가장 우수한 품질을 선사한다. 특히 기온이 낮고 습한 곳에서 더욱 진가가 발휘된다. 세탁 후 크기가 줄어들거나 해충의 침식을 쉽게 받는 단점이 있지만 가볍고 따뜻하며 볼에 잘 지 않아 겨울철 담요 재질로도 많이 쓰인다. 중성세제 사용에 손세탁이나 드라이클리닝 또는 울 코스로 세탁 가능하다.



목 위를 올라오는 5개 단추와 지퍼의 이중 여림이 있으니 가세 바람도 두렵지 않다.  
595,000원 씨비컴패니

## 2. 면 COTTON

물들이를 감싸는 천안 면이라고 생각했나? 전체 섬유와 생산과 소비량 중 절반을 차지하는 면을 알면 것이다. 목화에서 추출한 면은 생산지에 따라 특징도 달라 쓰임도 제각각이다. 미국산은 가늘고 길어 실을 만들기 적당하고, 이집트산은 미국산과 비슷한데 적갈색 빛이 나고, 인도산은 짧고 굵기 때문에 이불솜으로 쓰인다. 면을 많이 쓰는 이유는 열에 강하고 잦은 세탁에 손상이 적기 때문이다. 팔팔 삶아서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지만, 반대로 더럽고 습하면 흙이나 곰팡이, 세균이 침투할 수 있으니 주의하자.



동일 브랜드 제품에 소재와 함량이 같아도 느낌은 천차만별. 눈꽃 모양 카디건 368,000원, 보라색 니트 108,000원 모두 수퍼드라이



보들보들한 감촉이 좋아 터플 네 스타일이 답답한 사람이라도 쉽게 벗고 싶지 않을 거다. 780,000원 보스 블랙 텐



넉넉한 사이즈의 니트 카디건만큼 사랑을 풍요롭고 느긋하게 만드는 건 없다. 228,000원 데님&서울라이 팔프록텐



## 3. 캐시미어 CASHMERE

캐시미어 산양의 거칠고 두꺼운 털 안쪽에 부드럽고 가벼운 털이 숨어 있다. 이 부분을 채취한 섬유가 바로 캐시미어다. 양모보다 가늘고 매우 부드럽다. 생산량은 적은데 수요가 많고 착하지 않은 가격 때문에 고급 소재 이미지가 강하다. 캐시미어 소재의 이유는 미지근한 물에 울 삼푸를 사용해 손세탁하자. 설마 비틀어 짜진 않겠지? 깨끗한 수건으로 눌러 물기를 제거한 후 그늘에 말리자. 습기에 약하니 비나 눈은 피하자.



# BACK TO THE FUTURE II

STYLE

반려온  
픽사님  
만나기



## 가 현실로!

2015년에나 볼 수 있을 줄 알았던 마티 맥플라이의 신발이 현실로 나타났다!

BY 송종민

1989  
나이키  
퍼워 레이스



아들을 구하기 위해 30년 후 미래로 날아가던 마티. 30분간 펼쳐지는, 1989년에 예측한 2015년의 미래 모습이 바로 (Back To The Future 2)의 하이라이드다. 특히 마티가 신었던 자동으로 신발끈이 묶이는 나이키 하이돌 슈즈는 화제 만발! 당시 가상의 PPL에 참여했던 나이키에 실제 발매 요구가 빚발쳤다고.

**POWER ON!** 영화처럼 여기를 살짝 만져주면 클립 안모두의 시선이 당신에게 쫓긴다.



오트메틱 파워 레이스 가능(자동 신발끈은 아쉽게도 없다. 아직 3년 남았으니까 뭐)



2011

나이키 에어 맥플라이



스트랩 부분의 나이키 로고는 물론 신발 측면까지 LED 라이트로 빛을 냈다. 세계 최초의 충전식 스니커즈로 한 번 충전으로 다섯 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이벤트를 위해 기획된 유명 일러스트레이터들의 포스터



영화의 광팬들과 열혈 스니커즈 컬렉터들의 소장 욕구에 불을 당긴 나이키 에어맥은 1,500족 한정 수량만 제작되어 이미예 옥션을 통해서만 경매되었다. 99센트에서 시작된 경매가가 5,000달러 가까이 치솟는 치열한 경쟁 속에 낙찰되었다는 후문. 너무 비싼 게 아니냐며 원망할지도 모르겠지만

이번 경매 수익금은 마이클 J 폭스가 설립한 파킨슨씨병 재단에 연구 자금으로 기부할 예정이다. 이 신발의 주인공 마티 역을 맡은 마이클 J 폭스는 30세의 젊은 나이에 퇴행성 뇌질환인 파킨슨씨병에 걸려 연기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그는 사비를 털어 파킨슨씨병 연구 재단을 설립하고 대외적인 모금 활동을 계속해오고 있다. 이런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다시금 건강해진 마티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길 기대해본다.



# 니뿔을 찾아서 : 탈모의 이유

이유 없는 무덤도, 이별도 그리고 탈모도 없다. 탈모 원인 분자 6가지를 꼽아봤다. 빈둥분둥자들을 찾아 살펴서 것발아주자.

김정민



## NO.6 어머니

모발은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모발이 가늘고 힘이 없다. 어머니 시금치가 몸에 제일 좋다고 그랬잖아요!



## NO.5 골병

두피에 흐르는 혈액이 원활하게 돌아야 모발이 잘 난다. 고혈압이나 빈혈 같은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는 지병이 생기면 탈모가 가속화된다.



## NO.4 록 스피릿

머리가 너무 길면 그 무게만으로도 약한 모발이 빠지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물론 영기는 머리카락을 빗을 때도 빠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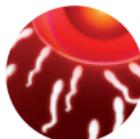
## NO.3 박 과장

지랄 같은 직장 상사도 탈모의 원인. 스트레스로 볼멘질이 일어나면 부교감신경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모근에 영양 공급이 어려워진다.



## NO.2 개기름

머리에 피자가 많아지면 두피성 지루염이 생긴다. '지루염'이라는 이름과는 정반대로 머리카락이 일찍 죽어버리는 중성이다.



## NO.1 아버지

말이 필요 없다. 당신의 DNA에 각인되어 있는 탈모 유전자는 남성호르몬 안드로겐을 과다 분비시키고, 단백질 합성을 방해 해 결국 탈모에 이르게 한다. 아... 아버지!

그랬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모발 단연간 해설 보러 가!

## 탈모 박사 OX 퀴즈!



1. 2:8로 고정된 오븐속 가보리가 탈모를 가져온다. ( )
2. 대머리는 턱매질 자수가 월등하다. ( )
3. 두피 마사지로 탈모를 막을 수 있다. ( )
4. 군요은 머리카락이 더 빠진다. ( )
5. 이한 생강으로 빔을 지새우면 머리카락이 자란다. ( )



## 도움말 주신 윤춘식 원장?

- 서울대학교 병원 피부과 전문의
- 미국 피부과학회(AAO) 정회원
- 국제 모발이식학회 정회원
- 대한모발학회 정회원
- 대한피부과외과학회 학술위원 -정보위원
- 저서 (탈모 예방과 치료, 가보리)

에이원 피부과  
(TEL: 02-555-7277)

## SOS! 탈모 구조대

플랑~! 샴푸 가지고 탈모를 막겠다고? 뭐,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



### 1. 피도 플레인 플러스

가격 ★★★★★

환기 ★★★★★

편의성 ★★★★★

성분 옥수수씨기루, 콩기루, 레몬 껍질 오일, 로즈마리 잎 오일, 세이지 오일, 카페리드 오일, 솔츠나무 잎과 열매 오일 등

피도 플레인 플러스는 샴푸를 쓰기에 두피에 뿌려 주는 기초 제품. 앵폼을 직접 탈모 부위에 골고루 발라 20분 후에 씻어낸다. 케라틴의 생성을 촉진하는 콩가루가 들어 있다. 소나무 잔과와 솔잎, 친한 레몬 향이 섞인 향은 무척 강렬해 약간 부담스럽기까지 하다. 그러나 샴푸를 하고 나면 향긋한 레몬 향만 남으니 너무 걱정 마라!



### 2. 후크내츨릴 레몬버베너 컨디셔너

가격 ★★★★★

환기 ★★★★★

편의성 ★★★★★

성분 올리브 오일, 베지터블 글리세린, 아르지닌, 캄프롤 추출물, 알로에 베라 잎 추출물, 게이마일 추출물 등

알로에 베라 잎 추출물은 모발의 건조함을 막아 머리 카락에 촉촉한 상태를 유지시켜준다. 또 진정 작용을 하기 때문에 두피의 트러블을 안정시키고 피부 자체의 습기를 조절 하는 데 좋다. 레몬 향이 상큼하다고 든 컨디셔너와 달리 향곤 후 이뿔거리지 않아 좋다.



### 3. 러 자양옴토 잔액

가격 ★★★★★

환기 ★★★★★

편의성 ★★★★★

성분 백자인 추출물, 당아 추출물, 직안, 하수오, 김초 등

이모레피시픽은 원래 지방강장제로 효능이 알려진 쪽베리 나무잎인 백자인에 탈모 방지 성분이 있음을 밝혀냈다. 잔액은 1일 2회 구멍이 달린 뚜껑을 탈모 부위에 직접 묻혀서 발라주면 된다. 사용은 간편하지만 진한 약한 냄새를 하루 중일 탈고 다녀야 하는 건 별로. 하지만 지방 강장제라니... 참재!

# 우리는 영국에서 쇼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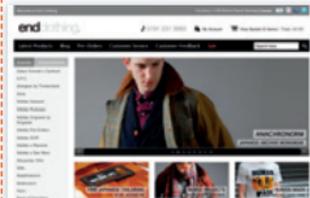
당신 몸통이에 새끈한 갑옷을 걸치지 못한 건, 간지 나는 아이템이 한국에 없거나  
있어도 비싼 탓이겠지. 그래서 MAXIMI 해외 온라인 쇼핑의 세상에 인도해주려고 한다.  
그중 영국을 주목해야 하는 건 단지 신사가 많기로 유명한 나라이기 때문만이 아니다.

BY 고영희 HELP 최진수(남성 브랜드 브라운브로세스 해외 마케팅) ILLUSTRATION 진영준

## 당신의 스타일은?

### Classic & Heritage

당신은 훌륭한 집안에서 태어나 준비된 미래로 촉망받는  
훌륭한 외모의 남자...로 보이고 싶지?



www.endclothing.co.uk

거위 털이 금강보다 더 비싼 몽클레어부터 캐주얼 스포츠 브랜드  
부터 다양한 브랜드와 가격대의 제품이 있다. 세그먼트  
는 브랜드와 아이템별로 약간 차이가 있다. 아주 가끔 해외 부  
속 배송도 진행하니 수시로 클릭날라락해봐. 고가 브랜드는 당  
연하고, 저가 브랜드라도 우리나라 세일 행사장 기간대에서 구  
입하는 것보다 더 저렴할 수도 있다.



영국 상류층이 대대로 즐겨 입는 아웃도어 브랜드 **바버**는 실  
용적이면서도 고급스러워서 어떤 옷에도 왕실의 귀족을 뒀입  
다. 우리나라 국내 주요 백화점과 편집숍에서도 최근 만날 수  
있게 되었지만 후덜덜한 가격에 매장 출품이라 꺼졌다면 온라인  
숍을 찾는 거다.

↓↓↓↓↓  
↓↓↓↓↓

↓↓↓↓↓  
↓↓↓↓↓

### Active Guy

유쾌하고 외향적인 성격의 당신은 스타일왕이 이끌어 나가  
는 최고 센스쟁이...가 될 거야.



www.urbanindustry.co.uk

최근 20대 남자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모든 브랜드가 여기 있다.  
소소한 제품 몇 점만 선보이는 국내 매장보다 더 다양한 제품을  
한번에 비교하면서 볼 수 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의 브랜드  
가 많으니 한꺼번에 많이 질러도 부담스럽지 않다.



칼하트는 스트리트 브랜드라고 하지만 가격대가 너무 높아  
선뜻 지름신을 영입할 수 없게 만든다. 국내 숍에서는 데님셔츠  
가 30만 원대, 봄가을용 재킷이 60만 원대를 훌쩍 넘는다는. 거  
기에 비교하면 이 온라인 숍에 있는 모든 옷들 사이만 할 것 같은  
충동을 불러일으킨다.

↓↓↓↓↓  
↓↓↓↓↓

↓↓↓↓↓  
↓↓↓↓↓

## 영국 쇼핑물이 사랑스러운 이유

1. 셀나라 영국은 일찍부터 온라인 이 발달했다.
2. 역사가 깊은 브랜드가 많아 기본 적인 아이템과 세련된 제품이 사시 사할 풍년. 너무 심할지언기든 유행 쫓는 디자인이 아니라 실용이 적고 오래 질리지 않는다.
3. 거대한 양키, 북유럽 거인에 비 하면 영국인은... 당신 체격과 비슷 한 편이다.
4. 그나마 영어가 익숙하지 않아?

## Buy It Now

1. 할 사지?  
국내 입점 브랜드라면 직접 들어가  
고 주문하는 게 덜 불안하다. 본인  
사이즈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 상의  
부터 쇼핑을 시작하자. 피크업에 민  
감한 바지나 상대적으로 값이 비싼  
재킷에 도전했다면 낭패를 볼 수도.
2. 구매?  
본인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를 필수.  
화수문 영아 카드로는 절대 결제가  
되지 않는다.
3. 환불?  
배송료가 비싸고 배송 기간도 간대  
(4~5일이면 도착하긴 하더라) 사지  
고 때문에, 단순히 마음에 안 든다  
고 무조건 환불할 순 없지. 아깝지  
만 다른 사람에게 팔고 먼 길 사자.  
더 이른 길로.

## + 추가 쇼핑물

FOR YOU 일단 영어 공부...

www.aki-ri.com

www.asos.com

secretales.com

FOR HER 어린 개조용

www.theoutnet.com

www.net-a-porter.com

뜨거운  
파티 속으로!



THE

MAXIM

PARTY

2011.9.24

MAXIM PARTY가 아니었다면  
9월 마지막 주 토요일은  
그리 뜨겁지 않았을 거대!  
가을 한가름 녹인 그 현장 속으로 초대한다!

BY 김희성 PHOTOGRAPH MS PHOTOGRAPH  
COOPERATIONS CLUB ANSWER, ESCAPE KOREA

### SATURDAY NIGHT FEVER

슬프게도 노출의 계절 여름이 지나고 쌀쌀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5번째 MAXIM PARTY가 있던 9월 24일 토요일도 상당히 한기가 느껴졌다.  
하지만 자정이 지난 시간,  
CLUB ANSWER 앞에는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옷차림의 그녀들로 가득했다.  
바깥 공기는 쌀쌀했지만 클럽 안은  
MAXIM PARTY의 열기로 후끈거렸으니까,  
에디터도 이날 민소매 퀘피스를 입고 클럽 바깥을 서성거렸지만  
한기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 그 정도로 뜨거운 밤이었다!

### MAXIM PARTY EXCLUSIVE #1. MAXIM BAG

그녀들만으로도 파티는 충분히 뜨거웠지만 MAXIM PARTY에서 만날 수 있는 건  
그녀들이 아니었다. 파티 때마다 단 100명만이 득템할 수 있는 MAXIM BAG을  
클러버들을 기쁘게 했다. 매년 다른 선물이 담겨 있어 경쟁이 상당히  
치열했지만 정착 가장 인기 있었던 건 MAXIM 로고가 박혀 있는 종이 가방이었다는

### MAXIM PARTY EXCLUSIVE #2. MAXIM PERFORMANCE GIRL

최근하고 멋진 여자들이 포스터 속에만 있는 건 아니다.  
아찔하게 리플한 MAXIM 티셔츠와 핫팬츠를 입고 아찔한 퍼포먼스를  
선사하는 MAXIM 퍼포먼스 걸들 덕분에 "MAXIM 파티 걸들 진짜 예쁘다" 라는 소문이  
순식간에 좌~의 퍼졌고, MAXIM PARTY는 늘 성황리에 끝났다.  
그녀들이 스테이지에 등장할 때면 CLUB ANSWER에서는 소녀시대의 등장을 방불케 하는  
수컷들의 환성이 들렸다지.



### 2010 MISS MAXIM 최혜연의 습격

잘 알고 있었지만 우리는 지난달에 100번째 한국판 MAXIM을 발간했다. 에디터는 대량의 100호를 기념해 한정판으로 제작한 티셔츠 지면 광고를 촬영하기 위해 티셔츠를 멋스럽게 오려서 리폼을 했다(2011년 10월호 참조). 촬영이 끝나자 이날 모델로 활약한 최혜연 양이 티셔츠를 가져가도 되느냐고 물었다. 그리고 티셔츠를 가지고 돌아서며 한마디를 던졌다. "MAXIM PARTY 때 입고 놀러 올게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그저 빈말이라고 생각했다. 서, 설마 진짜 MAXIM PARTY에 손바닥만 한 크기의 티셔츠를 입고 와서 놀 줄은 몰랐거든. 이날 파티를 찾은 최혜연은 약속대로 MAXIM 티를 입고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춤 실력을 선보여 클럽들에게 엄청난 토요일 밤을 선사했다. 생원!



### MAXIM PARTY EXCLUSIVE #3. POSTER GIRL

아마 클럽 파티가 생겨난 이래 포스터가 이렇게 인기 있었던 건 MAXIM PARTY가 최초일 거다. MAXIM PARTY 포스터의 주인공들은 MAXIM 표지 모델 부럽지 않을 정도의 인기를 누렸으니 말이다. MISS MAXIM 회장님 우승자의 특전 중 하나는 MAXIM PARTY 포스터를 찍는 거다. 상의 말인도 불사한 1회 포스터 걸 최혜연 양을 필두로 MAXIM PARTY 포스터는 매번 과감한 콘셉트와 포스로 MAXIM PARTY를 사자 전부터 달구었다. 남는 포스터가 없다는 문이 워낙 많아 에디터에게 '피터 포스터를 부록으로라도 걸어야 하나?' 라는 고민을 안겨주기도 했다.







**MAXIM PARTY COMING SOON!**

올해 5월 21일 첫 번째 파티를 시작으로 지난 9월 24일까지!

매달 마지막 주 주말을 기대하게 했던 MAXIM PARTY!

9월 24일 MAXIM PARTY 시즌 1은 막을 내렸다. 너무 슬퍼하진 마라.

알 그대로 시즌 1이 끝났을 뿐이니까.

MAXIM 독자들이 존재하는 한 MAXIM PARTY는 시즌 2, 3, 4, 5... 하아간 새로운 콘셉트로 당신을 미치게 만들 테니 다음 MAXIM PARTY가 언제 열리는지만 기다리면 된다. ☺

# WHO'S THAT GIRL

## 를코 팔라녀 정혜진

불의를 보면 나타나다! 두주봉사 소맥요정 낚술여전사 정혜진 그녀의 매력적인 주사에 다같이 빠져보자.

BY 김희성  
 PHOTOGRAPHS ARC STUDIO  
 WORDS&FILM 송종민  
 HAIR&MAKEUP 이현정  
 ASSISTANT 조다현



▲ 서초 타임지터우먼 언더웨어 코디츠림바빈 이너웨어

\* SHE WAS HERE \*



TVN <롤러코스터>  
 낚술여전사 팔라녀

그녀의 첫 단독 주연작.  
 두주봉사! 마걸리, 소맥 등을  
 밀어내려면 불의를 보면 못 참는  
 팔라녀로 변신한다.  
 지 애비도 못 알아 보는 게 특징.

OPERATION: 김희성(02-566-7164) / 통스튜디오, 박성호(02-566-7164) / 통스튜디오, 박성호(02-566-7164) / 통스튜디오, www.observer.co.kr

▶ 후드 상의 프레디  
향석 언젠츠 톱스토피리



tvN <콜러코스터>에서 당신의  
인상적인 콜라네 연기는 잘  
보였다. 실제 본인의 주사인가? 너무  
리얼하던데?

실제로도 소주 2병은 기본으로 가볍게  
해치우는 수준이다. 술 마시면 무조건  
끝까지 간다. 하지만 너무 취하면  
귀소본능을 발휘해 집으로 도망간다고  
허더라.

술은 누구랑 주로 마시나?

혼자(웃음) 요즘은 일과 관련한 사람들과  
술자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

당신처럼 술 마시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술직하게 마시고 싶다고 말해라. 나도  
그리고 싶다면 쿨하게 응해주는 편이다.

혹시... 오늘 시간 어떤가?

마음이 안 들면 거절도 깔끔이 잘 한다.  
서로 시간 낭비할 필요는 없잖아?

술을, 나 같은 남자가 아니면 도대체 같이

술 마시고 싶은 남자는 어떤 남자인가?  
어렸을 때는 잘 생긴 남자였는데 나이가  
들수록 착실하고 다정한 사귀어주는 남자가  
좋아지더라.

그런 남자가 지금 당신 눈 앞에 있다.

자, 어떻게 할 건가?

지긋이 눈빛을 보내보자? 감독님께서도  
"눈에 묘한 매력"이 있는 배우"라고 칭찬해  
주셨다.

그리고 보니 <콜라네>에서 **피니쉬**를  
처리된 부분이 많더라. 정말로 욕을 하나?  
그렇다. 때문에 써 있는 그대로 연기하는  
거다. 처음에는 잘 안 됐는데 요즘은 입에  
너무 잘 붙어서 달이다.

욕 나를 뻔한 남자를 만난 적도 있나?

소개팅을 나갔는데 잘난 척을 너무  
많이 하는 거다. 잘난 건 알겠는데  
그렇게 알일이 알려줄 필요는 없잖아?

당신 같은 여자가 소개팅이라니!

대시하는 남자들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나이가 나이인자라 주변에서 소개팅을  
많이 해준다. 성공률은 높은 편이다.

몸매가 범상치 않은데, 또 다른 곳에서  
최보 재의가 들어온다면?

욕심난다. 꼭 해보고 싶다. 이거 보고  
있는 사람 아니면 연락 좀 달라. 열심히  
하겠다(웃음).

이렇게 밝고 매력적인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도 있나!

"넌 안 돼, 늦게 시작해서 왜 이걸  
하려고 그러지?" 같은 말은 정말  
아프다. 소극적이고 조곤한 편이라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 언젠가는  
잘해서 다 복수할 거다. 엉영.

그럼 언젠가 술을 달래나?

술...(웃음)

PROFILE

정혜진

생년월일 1980년 4월 7일생

취미

운동, 수영, 골프, 헬스

주요 출연 지역

대전, 주부 집 근처에서 본다.

특징

<콜라네>가 좋았으면 좋겠다.

아직 부족하지만

예정으로 봐주시라.

열심히 하겠다!

소프

막걸리 광고를 찍고 싶대(웃음).

내년에는 말도 타고 액션 연기도

하는 사극에 도전해 보고 싶다.

GO TO  
MAXIM  
IPAD  
미공개 컷



촬영장  
침투하기



# MAXIM BUYER'S EDGE



## 파코라빈, ECO FRIENDLY 셔츠 출시

바이오희로 간지셔츠와 핵 한 권으로 훈남 간지를 뽐낼 계절이다. 친환경 이베사 원사로 만들어진 파코라빈의 드레스 셔츠는 부담스럽지 않은 컬러감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셔츠를 입는 순간 잠들지도 모를 부드러운 촉감이 매력적인 셔츠다. 슬림핏, 클래식 라인으로 나누어 출시되며 주요 백화점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02-400-3040



## 차량용 소형 블랙박스 판도라 출시

세상에 인공 능 하나 없다. 블랙박스에 주목하라! 판도라라는 이름의 블랙박스가 출시됐다. 업계 최초로 BK C&C가 선보이는 비비드한 컬러와 휴대용 크기의 외관만 앙증맞은 사이즈가 눈길을 끈다. 안전함 대용량 축전기가 보조전원으로 탑재되어 여름철에도 폭발의 위험이 없고, 차량 전원이 차단되더라도 전후 5초 동안 영상 저장 가능하다. 지난 10월부터 오픈마켓에서 판매를 시작했으며 론칭 이벤트로 고스영의 판도라 백, 핑크, 차량 무료 점검 티켓을 시은품으로 증정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가격 2만원대 문의 1600-4118  
www.thepandora.co.kr

## 최초의 4륜구동 페라리, FF

페라리는 결혼하기 전에만 타는 스포츠카라고 생각했? 넓찍한 앞뒤 좌석에 당신의 가족을 태우고 자동차 투어를 떠날 수 있는 궁극의 페라리가 드디어 탄생했다. FF는 Ferrari 4의 약자로 4인승과 4륜구동을 의미한다. 고성능 스포츠카가 실용성은 제로라고 생각했겠지만 페라리는 넓은 승차 공간과, 적재함으로 '궁극의 GT'란 바로 이런 것임을 말하고 있다. 문의 02-3433-0808



## 낙타(CAMEL)를 사막에서 데려오다!

세계적인 담배 브랜드 CAMEL이 한국에 상륙했다. CAMEL은 풍부한 맛을 만족할 수 있는 CAMEL FILTER(8mg)와 부드러운 맛이 특징인 CAMEL LIGHT(6mg)로 구성되었다. 한국 예연가의 입맛에 맞게 숯 필터(Activated Charcoal Filter)를 적용하여 부드럽고 풍부한 풍미를 느낄 수 있으며, 귀금속 제작된 CAMEL 케이스는 풍부한 맛에 세련미를 더해준다. 193년 출시 이후 100년 맛을 이어온 CAMEL, 이제 한국에서 직접 만나보자! 가격 2,500원 문의 080-777-7177 www.JT.co.kr



## 라키바이베베에서 헤드폰을 쓴다!

제시과 알바의 변화지로도 유명한 라키바이베베에서 고객 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 화이트와 블랙 두 가지 컬러의 헤드폰을 랜덤으로 증정하는 이 이벤트는 11월 13일까지 갤럭시 명품관 WEST 4층 A.T.G 매장 및 현대백화점 데남바, 롯데백화점 진스퀘어 등 전국 4곳의 라키바이베베의 매장에서 진행된다.  
문의 02-515-1513

## 머벨, 엑시스2 스포츠 고어텍스 출시

머벨의 엑시스2 스포츠 고어텍스는 산행은 물론 트레킹 등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 시 최적의 품질을 느낄 수 있도록 제작된 프리미엄 아웃도어 슈즈로, 어떤 환경에서도 믿어 편안하다고 한다. 등산화치고는 디자인도 유려하여, 어느 등산화와는 달리 도심에서 타운 웨어와 코디해도 어색하지 않다.  
문의 02-516-5611



## 남자에겐 누구나 바나나가 있다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운다. 태어날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나라는 잃었을 때군대 갈 때, 그리하여 글로벌 남성채널 F에서 11월 1일을 남자의 날로 선포했다. 남자는 다리가 3개라서 그렇다는 설도 있다. 이날 F에서 외롭고 소외 받는 이 시대 남성들을 위해 바나나처럼 길고 굽적굽직한 특별한 방송을 준비하였으니 채널 고정하시라. 당시의 바나나에 후끈화끈한 남자의 기운이 가득 차게 될지!



## 레옹, '사색(四色)'에 빠지다

컬러풀한 디자인과 업그레이드 된 맛으로 리뉴얼된 레옹이 10월 19일 출시된다. '오렌지, 블루, 그레이'의 네 가지 감칠맛 색상을 바탕으로 '검은 고양이' 캐릭터를 중앙에 배치한 심플한 패키지 디자인을 적용하였다. 또한 패키지 표면에 '소프트필' 기법으로 부드러운 터치감을 주며, 풍부한 맛과 깔끔한 톡톡을 구현하여 촉각감을 개선하였다. 고타르 달배에 적합한 맛을 새롭게 개발하여 적용한 신제품 '레옹 파베(PEVE)'는 타르 6mg의 진한 달배맛을 느낄 수 있게 하였으며 하드필터를 적용하여 오래 들고 있어도 필터의 원형이 유지된다. 가격 2,500원



## 소니코리아, 세계 최초 풀 HD디지탈 레코딩 쌍안경 'DEV-5' 출시

DEV-5는 소니의 독보적인 영상 기술과 진보된 디지털 이미지 기술을 기반으로 쌍안경을 통해 보이는 그대로를 2D 및 3D 풀 HD 영상으로 촬영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디지털 레코딩 쌍안경이다. 기존 쌍안경에서는 볼 수 없었던 혁신적인 제품으로 스포츠 경기 관람, 생태 관찰(촬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문의 02-6370-8066

## 트렌디한 남성을 위한 언더웨어 Calvin Klein X

딱 떨어지는 착용감 좋은, 그리고 색다른 언더웨어를 찾고 있었다면 캘빈 클라인 X 에 주목하라. 골드 컬러의 로고 밴드가 더욱 세련돼 보이는 Calvin Klein X는 블랙 밴드에 입체감 있는 로고와 골드 X 패치로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트렌디한 맛을 갖춘 코튼 소재 언더웨어다. 색상은 블랙&화이트 두 가지로 출시 되었다.

가격 55,000원 문의 08-3446-7725



## 오리스, AT&T 월드업즈팀을 한국에서 다시 만나다.

스위스의 시계 브랜드 오리스가 AT&T 월드업즈팀의 공식 파트너로서, 지난 10월 16일 F1 코리아그랑프리리를 찾았다. 작년엔 이어 2번째 방문. 오리스의 로고는 두 대의 FW33 레이싱카 노즈의 앞면과 앞쪽 윙의 양 옆면, 두 드라이버들의 가슴, 장갑 및 헬멧과 팀 유니폼에 모두 자리하였다. 2011년 F1 가이드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물을 정기적으로 오리스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문에 보자.

문의 02-757-9868(미세칭) www.milmmatch.co.kr

## F1 공식 타이어 피렐리, 코리아 그랑프리 맞아 제품 쇼케이스

피렐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F1 레이싱의 단두 타이어 공급업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에 따라 피렐리는 2011년부터 오는 2013년까지 3년 간 F1 그랑프리에 참여하는 모든 레이싱팀에 사용하는 F1 공식 타이어를 공급하게 되었다.

문의 02-574-5080



## 슈퍼스타K3 TOP1을 세련되게 만든 빈폴의 위용

슈퍼스타K3 TOP1이 환광할때 한 모습이 보이는가? 빈폴이 올랐라 세션, 투개월 뒤 슈퍼스타K3의 스타일링을 지원하고 있다. 매우 굵은일 밤, 노래 실력만큼이나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그들의 스타일링을 보는 것도 슈퍼스타K3의 재미 아닌가. 연연인 못지 않은 그들의 긴가부름다면 아래 문단치를 참조하라.

문의 02-7599-0007 www.beanpole.com



## 한국타이어, 타이어 구매 고객 대상 스마트 케어 서비스 실시

'구매 금융 서비스'와 '오토 플래너(Auto Planner)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는 '스마트 케어 서비스'는 한국타이어 이스타이션(ST)에서 BC 카드를 이용하여 타이어를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스마트 케어 서비스' 이용 고객은 24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가능한 구매 금융 서비스를 통해 타이어를 구매할 수 있으며, 최대 20만 원 상당의 타이어 및 차량 관리/점검 할인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또한 멤버십 고객들에게는 타이어 평생 무상점검 서비스, 차량 점검 할인 서비스(최대 2회) 등을 제공한다. 문의 www.hankooktire.com

## 스노보드 스타일 브랜드 슈가포인트, 신상 출격

국내 스노보드 웨어의 강자 슈가포인트가 11/2시즌 신상품을 출시했다. 독특한 칼라와 패턴, 스타일, 더욱 강화된 기능성으로 무장한 이번 컬렉션은 6개의 세트 스타일과 8개의 팬츠 스타일로 구성되었다. 보온성이 강화된 패딩 재킷은 팔 부분이 탈부착 가능하여 베스트 스타일로 연출할 수 있고, 스테디셀러인 야구잠바, 롱 자켓 스타일 및 레귤러 스타일 등은 화려한 색감을 보여준다. 팬츠는 슬림, 배기, 레귤러, 루즈 핏 등 다양한 스타일로 되어 있어 스타일 연출이 용이하다. 문의 02-2217-5009 [www.sugapoint.com](http://www.sugapoint.com)



## 올 가을엔 거품으로 세안하자! 시세이도 우노 클렌징 3종의 제안

시세이도의 남성용 화장품 브랜드 우노에서 거품의 질을 높여 피부의 노폐물을 부드럽게 씻어내는 우노 신 세안제를 남성들에게 추천한다. 번들거림 제거를 위한 '올드라 블랙 워시 N', 2중요의 모공 세척 스크럽을 배합한 '스크럽 링 워시 N', 건조한 피부를 위해 보습 성분을 배합한 '모이스처 클리어 워시' 3종이 대기 중이다. 인성맞춤 세안제를 사용하여 올 가을 피부 미남이 되자! 문의 080-564-7700



## 코믹 본능 최고의 스파이로 컴백! 자니 잉글리시: 네버다이

전 세계 관객에게 웃음의 아이콘으로 군림한 '미스터인' 로만 옛킨슨이 돌아왔다. <자니 잉글리시> 이후 8년 만에 돌아온 <자니 잉글리시: 네버다이> 로만 옛킨슨은 영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도중 중국 수상의 암살을 막는 베리아이더인 미션을 수행하며 특유의 표정연기와 몸 개그로 대활약할 예정이다.

총공부터 알프스 산맥까지 국경과 대륙을 넘나드는 방대한 로케이션과 대규모 액션씬으로 무장한 글로벌 첩보 액션 코미디 <자니 잉글리시: 네버다이>의 스티븐 윌리엄 스티븐슨이 M7 국경으로, <오만과 편견>의 청순녀 로저먼드 파이크가 미스터 빈과 황당무계한 로맨스를 펼치는 아가씨로 등장해 빅배치를 선사할 예정이다. 얼얼한 봐도 웃는다!

개봉 11월 3일



## 파나소닉, 세계 최초 5종날 면도기 람대쉬 출시

프리미엄 면도기 람대쉬 ES-LV90이 파나소닉에서 출시되었다. 람대쉬 ES-LV90은 세계 최초 신개념 360도 밀착 5종날 면도 헤드와 파나쉬, 슬릿날, 리프트날이 어우러져 수염을 한 가닥도 놓치지 않는 완벽한 면도를 구현한다. 또한 한층 빨라진 리니어모터(14,000rpm)는 면도 시간을 단축해 주어 피부 트러블과 자극 없이 단시간 내에 면도할 수 있다.

가격 599,000원 문의 02-533-8452 [www.panasonic.kr](http://www.panasonic.kr)



## 리복 ZIGTECH과 함께 Energetic Winter를

2011년 새롭게 출시되는 리복 직 텍 워터 자켓은 에너지 리턴 효과가 있는 셸리언트 소재를 사용했다. 셸리언트 소재는 착용 시 체내 산소량을 증가시켜 상대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발산시킨다. 또 몸에서 빠져나가는 에너지를 흡수해 다시 우리 몸으로 보내주는 기능이 있어 운동효과를 극대화한다. 문의 02-3446-4058



## 세안제도 트렌드를 타고, 클레어스 달랑이 세안제 루마카

클레어스 달랑이 세안제 루마카(LUMACA)는 프랑스 세디에서 달랑이점 액을 100% 추출해 담은 귀여운 달랑이 비누와 익산성 클렌징폼으로 2중 구성된 제품이다. 달랑이 짙게 생분미 모공과 상처부위로 침투하여 피부 재생에 능동적으로 작용해 피부의 탄력과 생기를 더해 줄 것이다. 모이스처라이저, 엔티에이징 로션 등 번거로운 아이템을 내려놓고 간편한 달랑이 세안제 루마카로 지친 피부에 생기를 불어 넣어. [www.claireskorea.com](http://www.claireskorea.com)

# for Man?

과거부터 현재까지 여성화장품 브랜드에 for Man만 붙여서 남성화장품이라야 판매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for Man 화장품을 사용하십니까?  
당신은 아직도 여성화장품을 사용하십니까?  
당신은 아직도 손에 잡히는 데로 아무거나 대충대충 사용하십니까?

남성은 남성 피부컨디션을 고려한 남성전문 화장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엠도씨는 오직 남성만을 위해 개발된 남성전문 화장품 브랜드입니다.

남성전문 피부타입별 화장품 | 엠도씨

Homepage / 홈페이지  
[www.mdock.co.kr](http://www.mdock.co.kr)

Online Shopping Mall / 온라인 쇼핑몰  
[www.mdockkorea.com](http://www.mdockkorea.com)

엠도씨 쇼핑몰에서 무료샘플을 신청하세요.  
기초생물(농산물), 비비크림, 선크림, 모공팩,  
홍콩생모, 탈장염 생모 모두를 드립니다.

# M<sup>°C</sup>

M d o c



# 안녕하세요 고영욱입니다

## 좌하하하

제2의 전성기가 왔는데 이제 죽어야 하나!  
BY 송준민 ILLUSTRATION 변영준



만나자마자 이런 말을 하게 돼서 그 충격이란 단신  
이유가 24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억울하다.

**하긴 요즘 예능 섭의 1순위. 《하이킥》 출연. 이 정  
도면 정말 예능 정복이라고 해도 되겠다.**

이제 시작이다. 데뷔한 지는 오래됐지만 이제야 방  
송을 알아가는 것 같고 사람들도 점점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아 뿌듯하다. 《하이킥》 출연도 너무 해보  
고 싶었던 일이라 배워가며 열심히 하고 있다.

**이현우 씨 한테 한우라도 사 들고 찾아가야 하는 거  
아닌가?**

현우 형은 얼마 전 《안영욱세요》에서 같이 방송 했  
다. 오프닝에서 현우 형은 “고영욱입니다. 플라 영연  
해요”라고 말하고 난 늘 하던 “이현우입니다. 좌하하하”  
를 형 앞에서 했다.(웃음) 형 결혼하기 전에는 종종  
맥주도 한잔하고 그랬는데 요즘엔 자주 못 본다. 좌  
하하~예능 활동에 큰 힘이 됐던 만큼 맥주 한잔 사  
드려야지.

**방송에서 몇 차례 해명했는데도 “고영욱=양자서”가  
공식처럼 굳어지고 있다. 길에서 꼬마들이 “어? 양  
자서?”라고 하면 화낼 건가?**

벌도 화까지. 유행어처럼 그냥 재미있게 생각한다.

**남들 험담으로 웃긴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  
각하나? 김지현 씨와 현영은 씨에게 미안한 건  
나?**

가끔은 곳에서 소재를 찾게 될 때가 많다. 남들 민망  
할 정도로 깐아내리면서 계속 방송 할 생각이 아니  
다. 지현 누나는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문자를 했었는  
데 지현은 괜찮다고. 우리 영육이가 요즘에 방송에  
많이 나와서 좋다고 답장이 왔다. 따뜻한 누나다. 현  
영은도 얼마 전에 마주쳤는데 “형, 페인 왔어요”라  
고 지기가 먼저 웃으면서 말을 걸어왔다. 미안하고  
고 했더니 괜찮다고 했다.

**스캔들 기사와 만났던 예전 여자친구 이이기가 유독  
많다. 여성 팬력이 화려한 건가 여성들에게 인기  
많은 건가.**

난 아니다. 내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인기도 있었고  
또 지금은 솔로라 보니 자유롭게 여성분들을 만날  
기회가 많은 편이다. 하지만 사귀고 싶은 정도의 감  
정이 드는 사람들을 아직 만나지 못하고 있다. 제길.

**그런 당신이 정윤주를 10년이나 따라다녔다는 말이**

**사실인가? 당신에게 가능한 일인가?**

질문에서처럼 나한테 가능한 일은 당연히 아니  
다.(웃음) 《해피투게더》관 방송에서 정윤주라는 사  
람이 예능이라고 웃겨블라고 했던건지 그 말을 꺼  
내는데 정말 실마 설마 했다. 예전에 오다 가다 한두  
번 본 게 아니고 그저 매력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하  
게 전부인데 너무 과장이 지나쳤던 것 같아 기분이  
좋진 않았다. 나도 방송에선 웃고 넘기지만 기사들  
이 인터넷에 도배되면 스트레스도 받고 상처도 받  
는다. 10년이라니 말도 안 돼. 좌하~

**《세바퀴》에서는 결국 재혼 드림까지... 당신의 도전  
은 정말 대단하다.**

재혼 기사까지 인터넷에 도배가 돼서 엄마가 걱정  
을 많이 했었는데 막상 방송을 보시고 나서는 “별  
일 아니네”라고 하셨다. 준희는 스무 살 때부터 때  
부터 친구였고 그때 서로 호감이 잠만 있었는데. 그 해  
길 재미있어 말한 것뿐이다.

**바람둥이 이미지까지 붙을 법한데 옹골 피해했다. 비  
밀이 뭔가?**

피해는 거 확실인가?(웃음) 생각이 아무하고나 쉽  
게 사귀지 않는 내 성격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어떤 여자에게 끌리나!**

얼굴에 칼 든 흔적이 없는 여자가 좋다. 예초에 태생  
이 없고 예쁜 여자만 말이지. 음악 취향이나 감성이  
통하고 내 얘기를 이해해주고 밝고 잘 웃고 센스 있  
고 재치 있고 지루하지 않은 여자. 아, 이어서 아직  
솔로다.

**뭐 이성형인데 무슨 말을 못하겠나. 이제 당신을 코  
미디언으로 아는 사람도 있을 것 같다. 다시 음악  
활동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나.**

신기하게 여러 친구들이 콜라를 안다. 얼마 전에  
《슈스케》 손예림 양도 날 보고 “어? 콜라?”라고  
했다.(웃음) 그래도 여러 친구들은 가수로서의 내 활  
동 모습을 기억하진 못할 거다. 음악을 다시 하고 싶  
은 생각은 항상 간직하고 있다.

**콜라 이야기와 나와서 말인데 이성민 씨가 밥 가르  
쳐줄 때 솔직히 웃었나 안 웃었나.**

웃음을 가르쳐줬다(기묘한 같이 연습하고 배운 거다.  
상민이 형이 흥분해서 격하게 랩을 할 때 웃긴다는 무  
리였다. 밥이 날은 천사가 7주 뒤로 영결송을 부르  
는데 “이런저런 조건조건 따지다 보니까”를 흥분  
해서 “조건조건 조개까 보니”라고 발음해서 아찔했

었다.(웃음) 그리고 상민이 형이 흥분해서 있어서 녹  
음할 때도 항상 클러거였는데 “아 그럴까봐 날 아껴  
라고 콩”하고 “다시 할게요”를 반복했다.(웃음) 엄  
마가 상민이형 랩을 듣고 웃었는데 할 때도 있지만  
랩이 격해서 명대사 못살 것 같다고 한 적도 있다.  
상민이 형은 소리를 했어도 가능했을 것 같다.

**콜라 시절 정말 인기가 대단했다. 근데 당신이 콜라  
시절 이야기만 나오면 왠지 뻔한 에피소드가 많다.  
콜라에서 사탕 몇 뒤였다.**

콜라 하면 김지현이지만 처음에는 내가 ‘잠 못 드는  
이유’란 크라이 랩으로 콜라를 알렸다. 또 내 입으로  
말하긴 그런데 팬데터와 소녀 팬들은 내가 가장 많  
았다. 당시 콜라 팬들은 다 일 텐데.(웃음)

**《무한도전》 하나하나 시즌3와 《나구사》에서는 유독  
힘을 못 썼다. 사람들이 많아서 날을 못 걷기?  
예리한데? 《나구사》는 내 성격 탓도 있나만 가수들  
의 경연 위주 방송이다 보니 내 분위기가 안 나갈 때  
가 많았다. 《무한도전》은 처음 나왔던 프로그램인  
데다가 그날 나왔던 신세라 씨 어떤(?)에 완전히 문  
했다. 엉엉.**

**사실 나도 세경 양 보느라 당신이 거기 나왔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내기 힘들었다. 그런데 낮가림은 정  
말로 의의다. 얼마나 낮을 가리던 가수 김조한이 당  
신을 홍보한다고 방송국에서 박카스를 돌렸잖나?  
조한이 형은 나를 불러 최고 전성기 때 같이 활동했  
던 동료 가수로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방송이  
만 내가 자기 매니저를 하는 것을 좀 미안했던 것  
같다. 그만큼 순수하고 알수록 참 팬들은 형이다.**

**《나구사》의 사신이라는 별명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  
이나 미안함을 느끼나?**

본의 아니게 내가 많은 가수들이 다 첫 번째로 말하  
했는데, 더 못 챙긴 거 같아 마음이 무겁다. 하지만  
매니저가 경연에 주는 영향은 사실 전혀 없다. 오로  
지 청중평가판의 몫이 아닐까.

**가수 뜻이란 뜻인가? 《나구사》에서 만난 세 명의  
가수 중 누가 가장 어색했나?**

김연우 형. 동육이는 동갑 친구였고, 조한 형은 데뷔  
시기도 비슷해서 같이 활동을 했는데 연우 형은 초  
문이라...

**나구사의 사신으로서 또 나구사에 출연할 예정이  
있나? 왠지 가수들이 케플 될 것 같기도 하고.**



가수들에게 더 이상 피해 주고 싶지 않다. 근대 사실 나도 피해자라고. 내 고장...

**게스트 말고 고정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겠나?**

〈라디오스타〉, MC 형님들과 모두 친하고 잘 통하는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타이밍은 좋은데 낮가림이 심한 당신이 생판 처음 보는 게스트가 나오는 토크쇼를 말할 수 있겠나?**

방송에서 언제까지 낮가리고 있을 순 없지 않은가. 낮가림도 좀 호전된 상태다.(웃음) 일단 맡겨달라.

서지석과는 〈뜨거운 형제들〉 때부터 같이 출연했다가 이제는 〈하이킥〉에서 박하선을 두고 사랑의 연

**적이 되게 됐다.**

나도 신기하다고 생각했다. 아바타 소개팅에서 돌이한 여자를 놓고 경쟁했는데 〈하이킥〉에서도 이렇게 만나서 박하선을 두고 삼각관계가 된 게 작은 인연은 아닌 것 같다.(웃음) 아바타 때도 서지석 군과 재미있었고 〈하이킥〉에서도 앞으로 티격태격하면서 재미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기대 된다.

박하선을 두고 "실감 나는 연기를 위해 실제 사귀어야 하나?" 라고 말했다. 그 말을 실현에 옮길 자신이 생겼는지 궁금하다.

하선 일은 착하고 예의바르고 연기도 잘 하고 시트 콤라도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다. "사귀어야 하나"

런 말은 〈하이킥〉 제작 발표회 때 그제 재미로 한 농담이었다. 정말 동료, 동생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많은 사람이 당신이 서지석에게 박하선을 빼앗길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녀를 지킬 당신만의 전략이 있나?**

뭣됐지만 진실되고 한 여자만 바라보는 정성, 순수함.

정말 연기자로서의 자세가 된 것 같다. 자신을 버리는 연기... 이제 진짜로 당신이 죽어야 할 시간이 다가온다. 더 바실 재물이 남아 있나? 친한 연예인의 굴욕담이라면 묵속 연창도 생각해주겠다. 그럼 뽀아내이지, 이게 작은 일이야? ☹



# MAXIM ONLINE STORE

자신 호 MAXIM을 놓쳤나?

목숨과도 같은  
당신의 MAXIM 컬렉션에  
이별이 빠졌나?

서점에서도, 인터넷서점에서도  
MAXIM 과월호를 구할 순 없다.  
좌절하지 말고

[www.maximkorea.net](http://www.maximkorea.net)으로 오라!

## 총알 배송!

(총알을 드리진 않아요.)

MAXIM 홈페이지의 과월호 구매 메뉴  
로 들어오시면 지금까지 나온 MAXIM  
매거진들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그녀가 품절되기 전에  
어서 쟁취하십시오!

\*당일 4시 이전에 입금하시는  
독자님께서는 당일 발송 가능합니다.

일부 과월호는 문절되었을 수 있습니다.



하루이름의 배송기간도 당신에겐 너무 길다면? 해외에서  
주문하지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면? 사려던 MAXIM 과월호가  
절판되었다면? 종이 매거진보다 저렴하게 MAXIM을 즐기고  
싶다면? 집지 속 영상과 함께 생활한 화보를 감상하고 싶다면?

## MAXIM E-MAGAZINE 에 주목하라!

MAXIM 홈페이지의 과월호 메뉴에서 e-매거진 구매를 클릭하시면

권당 1,500원에 MAXIM의 E-매거진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e매거진 1권 이용권 **1,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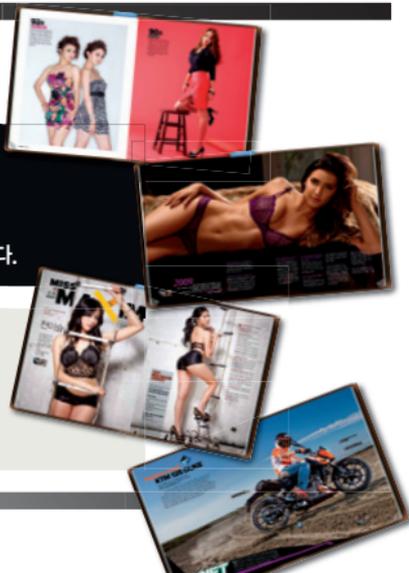
e매거진 6권 이용권 **8,100원 (10% 할인)**

e매거진 12권 이용권 **15,300원 (15% 할인) + 1000씩 적립**

e매거진 24권 이용권 **28,800원 (20% 할인) + 2000씩 적립**

\*이용권은 1권당 첫 열람 시점부터 30일 동안 유효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MAXIM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11월 1일 남자의 날



FX채널 방문  
과일로 받기



주기만 했던 남자들이여  
바나나를 받자!

# MAXIM



KOREA

## WHAT STEVE LEAVES US

### SPORT

K리그가 아시아에서  
짱 먹는 이유

### SMOKE&DRINK

고양이와 낙타의 역습  
200원의 저주  
여자보다 좋은 맥주 이야기

섹시 여전사  
원자현

<킬러 엘리트>의 흥일점

**Yvonne  
Strahovski**

ICON: 스티브 잡스

### STYLE

100% PURE THINGS  
영국 쇼핑몰 이용 팁  
나이키의 BACK TO THE FUTURE2  
탈모는 왜 생길까?

아만다 사이프리의  
폭풍 성장

바퀴 달린 괴물  
**DUCATI**  
MONSTER 696

고영욱의 외침

제시카 고메즈  
에이프릴키스  
사회

NOVEMBER 2011



www.maximkorea.net